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2 **1** Vol 241

부록 | 2012년 탁상용 캘린더

**50** *th*  
Anniversary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 2002 데뷔 음반 발매\_ 황금 디아파종상 수상
- 2003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3위 수상거부
- 2004 '쇼팽' 음반 발매\_ 쇼크상 수상
- 2005 쇼팽 콩쿠르 3위
- 2007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1위없는 공동 4위
- 2008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음반 발매 & 전국투어
- 2010 쇼팽 탄생 200주년 리사이틀
- 2012 데뷔 10주년 전국투어

2002 - 2012

1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다

#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DONG-HYEK LIM PIANO RECITAL

차이코프스키 <사계>, 라흐마니노프 <프렐류드>, 라흐마니노프 <소나타 2번>

데뷔 10주년  
10개 도시 전국투어

2012/2.14 / 화 /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 주관 | 부산문화회관 |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7) / 홍보마케팅부(607-3100)  
 [입장권]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 정기회원 20% 할인 |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티켓링크 (1588-7890) / BS 부산은행 전지점(620-3510)

음악의 빛, 그리고 감동!  
2012 제7회 부산국제음악제 콘서트 시리즈  
(Busan Music Festival Concert Series)



**보로메오 스트링 콰르텟 (Borromeo String Quartet)**

연간 100여차례의 공연을 통해 오늘날 가장 저돌적이고 대담한 4중주단으로 자리매김.  
음악성, 지성, 테크닉을 겸비한 세계적으로 드문 현악 4중주단이 들려주는 명품 실내악의 진수!  
**베토벤/현악4중주 <라즈모프스키> 슈베르트/현악4중주 <죽음과 소녀> 외**  
Beethoven/String Quartet<Rasumovsky>Schubert/String Quartet<Death and the Maiden>

2월 2일(목)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명품 협주곡의 세계 with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Concertos with Busan Symphony Orchestra)**



김남윤 고이치로하라다 신연 황 피터와일리 김정권

모차르트/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1악장 (Vn김남윤, 고이치로 하라다)  
Mozart/ 2Violin Concerto 1st mov.

바르톡/비올라협주곡 (Vla신연 황)  
Bartok/Viola Concerto

드보르작/첼로협주곡 2악장 (Vc피터와일리)  
Dvorak/ Cello Concerto 2nd mov.

**베토벤/피아노, 합창, 오케스트라를 위한 <코랄 환타지> (Pf 김정권)**

소프라노/김경희 테너/양승엽 바리톤/하병욱 외 3명  
합창/부산대학교동문연합합창단



지휘 / 오충근

2월 3일(금)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가족음악회 '거장의 실내악' (Family Concert)**



정명화 신수정 주희성 김정권 김남윤 니콜라스켄 백주영 김동욱 신연황 전정훈 피터와일리 김이선

**멘델스존/현악8중주**  
Mendelssohn/ String Octet  
**드보르작/피아노5중주 외 수곡**  
Dvorak/ Piano Quintet

2월 7일(화)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세르게이 바바얀 피아노독주회 (Piano Recital by Sergei Babayan)**

2010년 부산초연에서 돌풍을 일으킨 이 시대의 거장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빛나는 감동!

Bach/ Goldberg Variation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기립박수를 쳤던 바로 그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바바얀의 바로 그곡!



2월 8일(수)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폐막연주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화합과 나눔의 음악회) (Final Concert)**



백혜선 이경숙 필립케윈 백주영 니콜라스켄 김동욱 전정훈 피터와일리

특별출연/김남윤과 30인의  
바이올린오케스트라

브람스/헝가리안 무곡  
Brahms/ Hungarian D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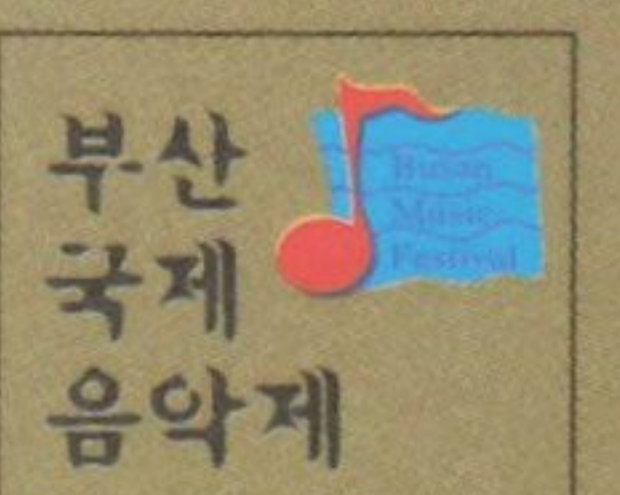
브람스/피아노3중주  
Brahms/ Piano Trio

브람스/광시곡  
Brahms/ Rhapsody

**브람스/피아노 5중주 외**  
Brahms/ Piano Quintet

2월 9일(목)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사)부산국제음악제 • 주관 : (사)부산국제음악제 운영위원회, 부산아트매니지먼트
- 후원 : 부산광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입장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각 음악회 별 동일 가격)
- 예매처 : 인터파크, BS 팝부산/부산은행 전지점 • 전화예매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0-5833
- 단체할인 : 20%할인(20명 이상), 부산문화회관 회원 : 10%할인
- 문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0-5833 www.busanmusicfestival.com www.busanarts.com



# 2012 Yamaha Grand Piano Fair

2012. 2. 10 [Fri] ~ 2. 12 [Sun]

삼성동 코엑스 1층 Yamaha Artist Services Seoul

그랜드피아노 구매시 사은품 증정(키보드 혹은 오디오 중 택1)  
야마하 그랜드피아노 부산·경남 총판  
상담문의 : 010-3579-0905



2011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피아노부문 2위  
그 영광의 순간에 야마하가 함께했습니다.

###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 전시 및 판매

12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생산된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는 전세계 음악인들의 연주와 교류를 통해 계속해서 더 나은 재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랜드 피아노는 한 번 선택하면 오랜 시간 함께하는 자리를 정성스럽게 마련하였으니 본인만의 특별한 피아노를 선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하였으니 2012 Yamaha Grand Piano Fair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문의 : 그랜드피아노 전문상담 010-3579-0905(국가공인 1급)



PIANIST 김태형



PIANIST 손얼음

2.10 [Fri] pm 7:30

CONCERT 1 \_\_\_\_\_ 김태형  
2010 쾨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입상

2.11 [Sat] pm 5:00

CONCERT 2 \_\_\_\_\_ 손얼음  
2011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피아노부문 2위



## C/O/N/T/E/N/T/S

### 06 신년사

명품 문화도시, 부산의 새 아침을 열며 | 허남식

### 08 신년시

공감을 꿈꾸다 | 김수우

### 10 커버스토리

2012년 창단 50주년 맞는 부산시립교향악단

### 28 반갑습니다

젊은 거장 피아니스트 임동혁

### 30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축제분위기로 흥겨운 독일의 성탄 장터 | 김지혜

### 34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①

푸시킨과 차이코프스키의 '예브게니 오네긴' | 이동신

### 36 불멸의 거장, 흥난파 ⑤

음악론과 그 성격 | 김창욱

### 38 그림, 풍류를 만나다 ⑪

매화가지의 까치는 봄소식을 가져오고 | 변광석

### 40 그곳에 가면

전주한지문화원

### 42 우리는 문화가족

우리가 만드는 오케스트라

### 44 리뷰

장한나 첼로 독주회 | 신설령

미션 임파서블, 독립영화 파서블 | 김희진

### 46 프로그램 가이드

### 57 나의 애청음반

김소희 '심청가' | 박성희

### 58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 60 부산문화회관 소식

### 62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년 1월호 통권 241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 Fax. 051-607-3109

발행인 | 최성달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1년 12월 25일

인쇄처 | 소문출판인쇄사 Tel. 051-256-2301~3 / Fax. 051-248-7960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 명품 문화도시, 부산의 새 아침을 열며

희망찬 용의 해, 임진(壬辰)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힘차게 비상하는 용의 기운처럼, 올해도 부산시민 모두에게 길운(吉運)이 넘치고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난해는 ‘유럽 발 경제위기’, ‘중동의 봄’, ‘뉴욕의 가을’까지 나라 안팎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부산은 ‘크고 강한 도시, 세계 속의 선진부산’을 목표로 꾸준히 달려왔고 또 많은 것을 성취해냈습니다.

부산이 염원하는 ‘크고 강한 도시’란 어떤 도시입니까. 밖으로는 세계 유수의 일류도시들과 어깨를 견줄만한 큰 도시입니다. 안으로는 시민 삶의 질을 한껏 드높여 풍요와 품격이 넘쳐흐르는 알차고 강한 도시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산의 꿈을 성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문화입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저력있는 문화도시, 일상생활 어디서나 문화가 넘쳐흐르는 도시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또 하나의 부산입니다. 올해도 부산은 지역문화를 가다듬고 북돋우며, 시민과 더불어 부산문화의 역량을 키워가며, 진정한 의미의 선진 도시를 향해 쉽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올해는 부산문화의 중심인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이 새로운 도약의 날개를 펼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지난 2010년 대극장 리모델링에 이어 2011년 전시실 리모델링을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1988년 개관 이래 20여년의 세월을 시민과 함께 해온 부산문화회관이 새 옷을 갈아입고 명품 문화도시 부산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올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두루 뜻 깊은 해를 맞아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향악단으로서 최초로 창단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올해 유명 아티스트를 초청하고 해외 순회연주회를 개최하며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지난 40년간 합창단을 거쳐 간 역대 단원들 가운데 한국 성악계의 대표적인 연주자로 발돋움한 이들을 초청하여 'HOME COMING 콘서트'를 펼칠 계획입니다. 최상의 공연장으로 거듭난 부산문화회관은 세계 4대 뮤지컬인 '미스 사이공' 부산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문화도시는 창조적 역량을 갖춘 사람과 풍성한 문화 콘텐츠가 결정됩니다. 우리 시는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면서 생활 속에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도시를 만드는데 올해도 온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명품 문화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부산의 희망찬 발걸음에 시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과 화평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새해 아침에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 공감을 꿈꾸다

김수우

길 끝에서 온 우리들이  
이제 길을 열어 가자꾸나  
세상 끝에서 온 바람이 햇빛이 발걸음 맞추니  
푸른 계단으로 놓인 새 365일

우주의 대장간에서 달구어낸  
별과 꽃과 사람들 속에서  
창조의 신화가 다시 피어나리니

주머니를 뒤지니 네게 줄 도토리도 있구나  
이제 소리내어 이름을 불러보자  
서로가 서로에게 편지였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었으니

네 눈동자에 담긴 내 모습 반짝이는구나  
내 눈동자에 담긴 네 모습도 영롱하리니

기억을 찾아 상상을 찾아 근원을 찾아  
함께 흘러가는 우리들  
지극하여라

네 눈동자 속에 담긴 새 하늘  
거기 봄여름가을이 있으니  
거기 산맥과 시장과 지붕이 출렁이는구나



지속을 꿈꾸는 저 만남들 약속들 반성들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목걸이 걸어주자꾸나

안녕한 것들 대답처럼 마주보고  
오래 그리운 것들 나란나란 그림자지어 돌아오니  
발원지를 기억하는 물의 곁들, 마음의 곁들  
굽이굽이 씩씩하고 너그럽구나  
큰 바다가 되는구나

영원에서 온 우리들이  
이제 영원을 열어 가자꾸나  
세상 중심에서 온 손길들이 목소리들이  
푸른 계단으로 놓였으니

김수우 시인은 1995년 <시와 시학>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저서로 시집 '길의길' '당신의 용이에 옷을 건다' '붉은 사하라' '젯밥과 화분', 사진에세이집으로 '하늘이 보이는 쪽창' '지붕 밑 푸른 바다' '아름다운 자연 가족', 산문집 '찌앗을 지키는 새' '백년어' '유쾌한 달팽이'가 있다. 2005년 부산작가상을 수상한 김수우 시인은 부산 원도심서 인문학 북카페 <백년어서원>을 운영하면서 인문학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2012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새 시대를 열다



1962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기념공연 당시의 모습

2012년 임진년 새해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창단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1962년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50년의 큰 산을 오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성장, 부산 음악애호가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 등 격동의 시대를 거쳐 오는 동안 우리나라의 관현악 운동은 흥망 성쇠를 거듭했다. 서울의 경우 1956년 서울방송교향악단(현, KBS교향악단)이 창단되고 1957년 서울시립교향악단(1945년 고려교향악단을 모태로 하고 있다)이 창단되면서 본격적인 교향악 운동이 시작되었고 부산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전 故 오태균이 이끄는 부산실내악단(1953

년 창단)과 부산대교향악단, 한병함이 이끄는 방송관현악단 등이 활발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교향악 운동에 관한 인식을 활성화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인력 부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단체의 통합이 권유되었고, 그 결과 故 오태균을 지휘자로 하는 부산교향악단이 탄생하게 된다. 민간 주도의 운영이라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남달랐기에 부산교향악단의 시립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은 매우 높았다. 그러던 중, 1961년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던 지휘자 안익태가 서울국제음악제에 참가해 부산교향악단을 객원지휘하게 되면서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을 독려하게 되고, 이를 기점으로 故 오태균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창단되었다. 1962년 11월 2일 중구 남포동 제일극장에서 창단연주회가 개최되었다.

초대 지휘자 故 오태균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의 초석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2년 10월부터 1971년 2월까지 재직하면서 부산시립교향악단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닦았다. 제 2대 지휘자 한병함과 제 3대 지휘자 이기홍을 거치면서 단원 실력 향상과 열악한 제반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지휘자와 단원간의 갈등이 불거져 1981년 6월 1일, 해단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당시 5개월간 진지한 자성의 시간을 가진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같은 해 10월 8일 제 4대 지휘자 故 박종혁을 영입하면서 재창단하게 된다. 1988년 9월에는 부산문화회관의 개관으로 수준급 연습장을 확보하게 되었고,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급여 체제 등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립교향악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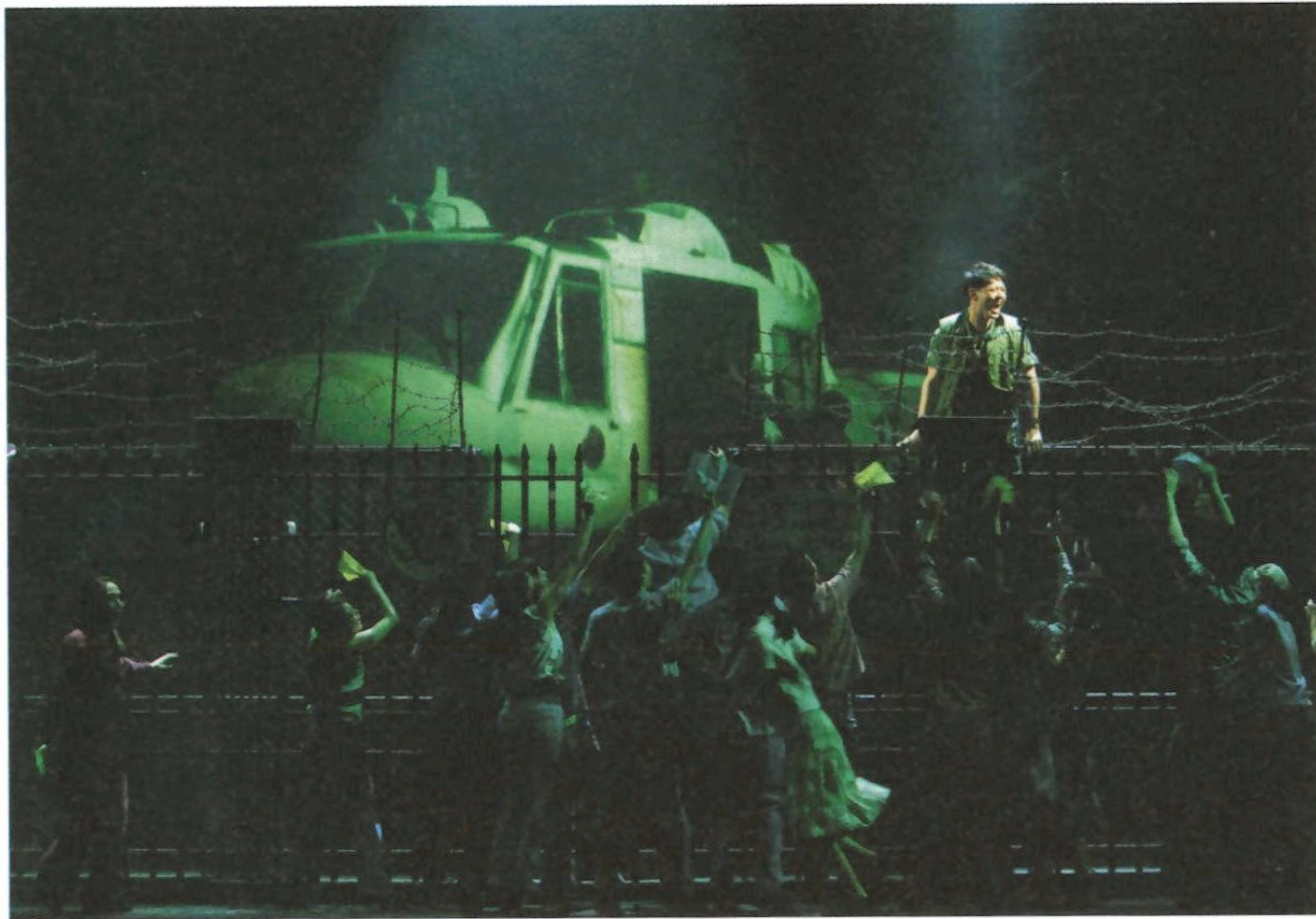


1989년에는 국내 시립교향악단으로서 최초로 외국인 지휘자 마크 고렌슈타인을 제 5대 지휘자로 영입하여 레퍼토리를 대폭 확대하고 연습 체제를 확립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마크 고렌슈타인은 당시 부산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매니아층 형성에 기여했다. 이어 제 6대 지휘자 故 블라디미르 킨, 제 7대 지휘자 故 반초 차브다르스키가 뒤를 이어 재직하였다.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재직한 제 8대 지휘자 곽승은 재직 동안 공용 악기 구매 등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연주 활동을 펼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창단 이후 최초로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순회연주회를 개최함으로써 현지 저명 언론의 찬사를 받는 등 세계적 수준의 교향악단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제 9대 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재직 기간 동안 꾸준히 관객의 폭을 넓혔으며, 2009년 6월부터 제 10대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영입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임으로써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12년을 맞는 각오가 남다르다. 1월 12일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주 일정을 시작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12년을 향후 50년을 설계하는 원년으로 삼고 1년 동안 다양한 기념 사업, 특별연주회를 펼칠 계획이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역대지휘자 마크 고렌슈타인과 곽승을 비롯해 김대진, 이병욱, 장 베르나르 포미에 등 국내외 거장 지휘자와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을 초청,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행복한 음악선물을 안겨줄 계획이다.

## 2012년 부산문화회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프로그램 선사 부산문화회관 2012년 주요 계획



첫 부산무대를 갖는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2012년 새해를 여는 '2011 제야음악회'로 희망찬 임진년을 맞은 부산문화회관은 2012년 어느 해보다 풍성한 성찬을 준비하고 있다.

2012년 한 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높여주기 위해 부산문화회관은 기획공연과 예술단 공연의 특성을 고려해 수준 높은 무대를 펼친다. 2012년은 특히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창단 50주년, 부산시립합창단의 창단 40주년이 되는 해로 예술단 공연에도 예년에 만날 수 없었던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 부산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2012년 기획 공연의 첫 포문은 2월 14일 젊은 거장 임동혁이 연다. 한국의 젊은 여성 관객들을 클

래식 공연장으로 이끈 클래식계의 대표 스타 임동혁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쇼팽 콩쿠르-차이코프스키 콩쿠르로 대표되는 이른바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임동혁은 2012년 데뷔 10주년을 맞아 라흐마니노프를 레퍼토리로 부산음악팬들을 찾아온다.

임동혁 연주회에 이어 4월에는 세계 4대 뮤지컬인 '미스 사이공'의 역사적인 부산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미스 사이공'은 부산문화회관 리모델링 전 대극장 시설의 노후화로 부산공연이 한차례 무산되어 부산문화계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부산시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세계적인 흥행기록을 이어 가고 있는 '미스 사이공'을 부산문화회관에 유치, 부산시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공연은 4월 5일부터 29일까지 평일 1회, 토·일요일 2회로 총 30회 펼쳐진다. 뮤지컬 '미스사이공'은 베트남 여성이 울고 있는 아이의 손끝을 붙잡고 있는 한 장의 흑백 사진에서 탄생된 작품이다. 이 사진은 뮤지컬 '미스사이공'의 원작자인 '알랭 부브리'와 '미셸 쇤베르그'에게 강한 영감을 줬다. 당시 사진은 미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미국으로 떠나보내고 있는 베트남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부브리'와 '쇤베르그'는 이 사진에 잘 알려진 '나비부인'의 이야기를 더해 뮤지컬 '미스사이공'을 제작했다. 브로드웨이에서 아시아계 배우로 무대에 서고 있는 '마이클 리'와 한국 뮤지컬계 스타 '이건명', 한국 초연 '미스사이공'부터 자리를 지켜온 '김보경', 지난해 새로운 헤로인으로 발탁된 '임혜영' 등이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티켓 오픈은 2월 14일. 새로운 소극장 콘서트 문화를 열어온 하늘아래 그 콘서트도 2012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올해는 1월 27일 하와이 공연을 시작으로 아마도 이자람밴드, 나무 자전거 등이 부산을 찾을 계획이다.

부산시립예술단은 1월 12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2012년 본격적으로 연주 일정을 시작한다. 올해 창단 5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12년을 향후 50년을 설계하는 원년으로 삼고 1년 동안 다양한 기념 사업, 특별연주회를 펼친다. 역대 수석지휘자들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마크 고렌슈타인과 곽승이 50주년을 맞아 오랜만에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나고 김대진, 장 베르나르 포미에 등 거장 지휘자와 저명 아티스트들이 부산을 찾을 계획이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창단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부산시립합창단을 거친 역대 단원들을 초청하는 'HOME COMING 콘서트'를 기획, 우리나라 성악계의 대표적 연주자로 발돋움한 이들을 축하하는 동시에 현 단원과의 연주교감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의 부산시립합창단의 위상을 더 높이고 부산 시민들에게 깊이 있는 음악을 선사할 계획이다. 또 세대를 뛰어 넘어 사랑 받았던 7080가요합창음악회, POP합창음악회는 2012년 새로운 레퍼토리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 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의 區 문화회관에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천원의 행복' 공연, 문화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미래 잠재 관객 계발을 위한 부산시립교향악단 시민클래식교실, 시민무용교실, 시민연극교실, 부산문화대학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 위로부터 젊은 거장 피아니스트 임동혁, 부산시립합창단 POP합창음악회, 아마도이자람밴드

# 2012 임진년

지난 한해동안 부산시립예술단을 아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새해에도 오래도록 기억되는 감동의 무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 2012년 창단 50주년, 초심으로 새로운 50년을 준비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12년 창단 50주년을 맞아 역대 지휘자,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을 초청, 다양한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향악단 창단 50주년을 맞아 오랜만에 부산음악애호가들을 만난다. 2011년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첫 만남을 가진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장 베르나르 포미에, 지휘자로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김대진, 차세대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로 주목 받고 있는 젊은 마에스트로 이병욱 등도 2012년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지휘,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페스티벌 부지휘자, 유럽 정상급 현대음악 전문 앙상블인 OENM의 수석 객원지휘자를 역임한 이병욱은 2006년에는 잘츠부르크 시에서 주최한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축제의 오프닝 공연을 지휘하여 호평 받은 바 있다.

창단 50주년을 기념, 8월 중국순회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중 수교 20주년 축하무대와 함께 진행되는 중국 순회연주는 북경과 상해 두 곳에서 열린다. 또 지방교향악단으로는 처음으로 창단된 부산시립교향악단 50년의 역사를 정리한 '부산시립교향악단 50년사' 발간도 준비하고 있다.

국내외 저명 협연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1년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제3회 중국 국제 바이올린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금호영재 김봄소리, 애국가의 작곡자인 안익태 선생이 1930년대 첼로 수석을 지낸 미국 신시내티 심포니의 유일한 한국단원인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최나경(재스민 최) 등 젊고 실력 있는 협연자들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기획 프로그램인 '오페라 in 콘서트'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오페레타 '박쥐'를 선곡, 연말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2011년 한 해 동안 '그림 속 클래식, 영화 속 클래식 음악'을 선사했던 한낮의 음악 선물 웰빙콘서트 '11시에 만나요'는 2012년 한 해동안 무대 예술의 결정체인 걸작 오페라를 4회(2월 23일, 4월 26일, 9월 7일, 11월 15일)에 걸쳐 해설과 함께 공연한다.

매년 매진 행진을 기록한 송년음악회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 9번 '합창'으로 송년과 새해의 벽찬 환희를 나눈다. 그 외 클래식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시민 클래식교실(1월 4일~2월 29일, 매주 수요일),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 '악기가 죽이야기' 등은 더욱 업그레이드된 레퍼토리로 부산시민들을 찾아간다.

2012년 창단 5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열악한 환경에서 아름다운 음악의 꽃을 피우고자한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의 깊은 뜻을 새기고 새해,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2012년을 맞는 각오가 남다르다.

2011년 제야음악회장에서 임진년 새해를 맞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은 특히 '50년 전 초심으로'를 모토로 의욕적인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2012년 한 해동안 창단 50주년 기념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역대 지휘자들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 5대 수석 지휘자 마크 고렌슈타인과 제 8대 수석지휘자 곽승이 부산시립교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부산의 전통예술과 향토문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국악 공연 선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11년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꽃'으로 우리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2011년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꽃'으로 우리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월 23일 임진년의 무병장수와 안녕을 기원하는 설맞이 국악한마당으로 2012년 첫 무대를 연다.

설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가족문화공연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도된 '설맞이 국악한마당'은 극장을 찾는 청중들과 민족 고유의 명절을 함께 축하하고 덕담을 나누는 훈훈한 무대로 큰 감동을 선사했다. 지난해는 특히 다문화 가정과 외국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큰 박수를 받았다. 올해는 유경조 악장의 집박으로 여는

'해령'과 마려무용단의 전통춤, 우리소리예술단의 판굿 무대가 펼쳐진다.

설맞이 국악한마당에 이어 3월 22일 제 16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5회의 정기연주회와 4회의 특별연주회 등 본격적인 연주일정을 갖는다. 2012년에는 부산의 전통예술과 향토문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국악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다양한 레퍼토리를 구상하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을 위해 '창작곡 공모'와 국악실내악의 밤을 새롭게 기획, 보다 다양한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2012년 의욕적으로 신설하는 '창작곡 공모의 밤'은 부산지역의 전통음악 계승을 위한 신인작곡가 발굴을 위해 전국의 젊은 국악인들을 대상으로 창작곡을 공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한다는 계획으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3월 22일에 열리는 첫 정기연주회에서는 부산, 영남 지역의 정서가 묻어있는 명곡을 중심으로 봄의 기운처럼 활기찬 선율을 선사한다. 6월 13일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 162회 정기연주회는 오늘날 인류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환경생태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국악으로 전한다. 7월 13일로 예정된 제 163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부산을 소재로 한 창작국악곡을 위촉, 부산국악애호가들에게 새로운 명곡들을 들려준다. 11월 22일 열리는 제 164회 정기연주회는 객원지휘자를 선정, 새로운 분위기의 무대를 열어준다. 2012년을 마무리하며 가지게 될 12월 27일 제 165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이내믹하고 생동감 있는 연주로 한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인기프로그램인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는 8월 23일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통(통)장르 콘서트로 대중가요, 사물놀이, 전통민요가 함께 어우러지는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는 특별한 레퍼토리와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출연진으로 인기를 모아왔다.

그 외에도 4월에는 기량이 우수한 젊은 국악인 발굴을 위한 '청소년 협연의 밤-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5월 가정의 달 기념한 지역문화회관 특별순회공연 '천원의 행복' 무대, 지역 간 상호 문화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한 지방순회공연 등을 개최, 부산의 전통 예술을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



## 부산시립합창단

# 친숙한 프로그램으로 창단 40주년을 축하



부산시립합창단은 1972년 창단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모습으로 청중들과 만날 계획이다.

구 수석지휘자의 퇴임으로 현재 수석지휘자가 공식이지만 한 해 동안 진행되는 정규 프로그램과 창단 40주년 특별공연 등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창단 40주년을 기념하는 첫 무대는 2월 16일 박광하 트레이너의 지휘로 특별음악회를 연다. 또 10월에는 부산시립합창단을 거쳐간 역대 단원과 함께하는 'HOME COMING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 성악계의 대표적 연주가로 발돋움한 이들을 축하하는 동시에 현 단원과 선배단원들의 연주교감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부산시립합창단의 위상을 더 높이고 부산 시민들에게 깊이 있는 음악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2월 특별 음악회에 이어 부산시립합창단은 2월 28일과 29일은 박광하 트레이너와 함께 부산의 자매 도시인 일본 후쿠오카의 후쿠오카 아크로스홀 초청 연주길에 오른다.

심도있는 합창 음악을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는 3월 13일 제 14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1년 동안 4회 진행이 되고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합창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특별연주회는 6회 펼쳐진다.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술단'은 5월 북구빙상문화센터(5월 1일), 금정문화회관(5월 3일)에서 열리는 '천원의 행복' 공연과 9월 동래문화회관(9월 13일), 을숙도문화회관(9월 18일), 영도문화회관(9월 20일)에서 열리는 區 문화회관 활성화 공연 등이 진행된다. 창단 40주년을 맞는 새해는 천원의 행복, 區 문화회관 공연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예술단' 정규 프로그램 외에도 부산시립합창단 공연을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또 세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가요, 팝송 등 명곡들을 합창버전으로 재편곡한 7080가요합창음악회와 POP 합창음악회는 각각 5월과 7월에 새로운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줄 계획이다.

그 외 부산시립합창단은 시민참여 프로그램 '나는 문화예술도시 부산사람이다'를 새롭게 신설, 한국가곡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경연 형식으로 참여하여 가곡 등 합창 음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이들에게 발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아마추어 합창인들이 참가하는 '부산합창제'도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2012년의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공연은 12월 13일 리 신차오 지휘로 'L.v.Beethoven의 No.9'를 들려줄 계획이다.

## 부산시립무용단

# 작품성과 대중성을 담은 흥겨운 무대 선사



2011년 제 65회 정기공연 발표한 '소도'는 삼한시대 상징적인 공간에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탄탄하게 이야기를 이끌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1년 숨 가쁘게 달려온 부산시립무용단은 2012년 임진년, 수준 높은 창작 정기공연을 통한 '예술적 성취도 제고'와 시민대 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무용인구 저변확대'를 목표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은 2012년 1월 9일 시민무용교실로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시민무용교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2010년부터 시민무용교실을 수료한 우수 수강자를 대상으로 고급반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립무용단은 시립무용단원들과 수강생들이 우리춤 빛깔찾기 '풍류(風流)' 공연을 새롭게 만들어 우리 춤에 대한 열의를 높여왔다. 2012년에도 시민무용교실 후

6월 26일 풍류 5기, 12월 7일 풍류 6기를 배출할 계획이다.

공식 공연 일정은 1월 18일과 19일 우리 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은 우리춤 산책으로 시작, 상반기와 하반기 2회의 정기공연, 한여름 밤 시원한 웃음을 선사하는 여름마당춤판, 단원들의 창작 열정이 넘치는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우리춤 산책은 평소 끊임없이 우리 춤을 연마해 온 단원들의 노력이 드러나는 공연이다. 올해는 처용무, 이매방류 승무, 진주검무, 고성오광대 말뚝이춤, 이매방류 살풀이춤 등의 중요무형문화재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진주교방굿거리춤, 도살पुर리, 장고춤, 태평무, 춘앵무 등 다채로운 우리 춤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정기공연은 참신하고 작품성 있는 창작 무대로 무용애호가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다. 시립무용단은 2011년 대중성과 실험성을 고수하며 '맹진사댁 경사'와 '소도'를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상반기에 열릴 제 66회 정기공연은 5월 17일과 18일 제 67회 정기공연은 11월 22일과 23일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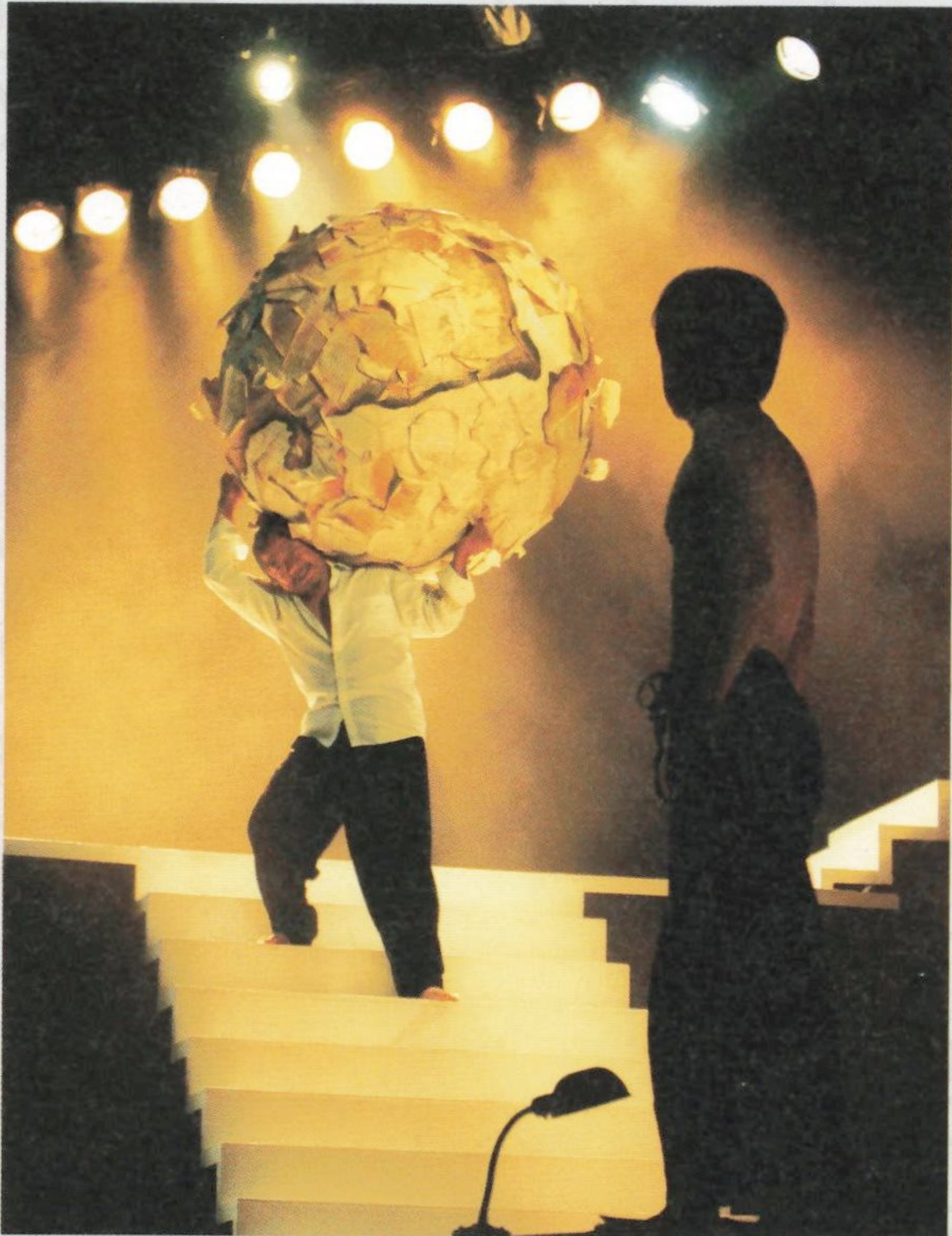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는 친근함과 해학적 즐거움으로 매년 여름 관중들에게 시원한 웃음을 선사해온 여름마당춤판은 7월 19일과 20일 부산문화회관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부산의 여름을 빛내는 열정적인 창작 춤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은 8월 21일 세 명의 춤꾼이 자신만의 춤 언어와 몸짓을 통하여 직접 빚어낸 참신한 작품 세계를 펼친다.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복지관 순회공연'은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통춤을 주요 레퍼토리로 구성, 2월 13일부터 3월 9일까지 부산 지역의 복지관에서 펼쳐진다. 區 문화회관에서 펼치는 여름마당춤판 순회공연은 동래문화회관(6/8), 금정문화회관(6/15), 을숙도문화회관(6/29)에서 열릴 계획이다.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는 5월 24일 공연을 시작으로 총 8회의 공연이 진행된다. 2010년 첫선을 보인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는 미취학아동들을 위한 공연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장애우를 위한 특별 공연과 함께 부산을 알리는 크고 작은 공연에서 역동적인 춤사위로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 부산시립극단

# 시민들과 함께 하는 오감 만족 여행



부산시립극단은 3월 9일, 10일 새로운 형식의 '낭독공연'으로 2012년 무대를 연다

1998년 창단, 2012년으로 창단 14년을 맞는 부산시립극단은 2011년의 부족했던 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부산시립극단 전 단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신년을 맞는다.

부산시립극단은 2011년 11월 임기만료로 퇴임한 제 4대 수석연출가 김광보의 퇴임으로 당분간 객원 체제로 운영된다. 12월 21일과 22일 정순지 연출로 선보인 가족극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로 2011년 활동을 마무리한 부산시립극단은 2011년 활동을 평가하고 반성하여 2012년에는 시립극단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의가 대단하다.

2012년 부산시립극단은 3회의 정기공연과 2회의 특별공연, 찾아가는 공연 등을 갖는다.

첫 무대는 3월 9일과 10일 특별공연으로 '낭독공연'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무대를 구상하고 있다. 최근 한국 연극 현장에서 주요한 공연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낭독공연은 책만 읽어주는 낭독의 형태가 아닌 낭독 모노드라마 형식의 공연으로 무대와 의상 등을 최소화하여 희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괴테 페스티벌> 때 시도되면서 점차 확대되었다. 3월 낭독 공연을 시작으로 시즌별 낭독 공연을 준비해 오감을 만족시키는 감성 여행을 선

사하고 아울러 평일 오전공연 시간도 적극 활용해 공연 감상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2년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지역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은 무대 구성에 제약이 없는 공연하기 쉬운 작품을 구상, 관객들과 만날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 셰익스피어와 신화극, 모노드라마, 체험공연 등 쉽게 공연할 수 있는 소품위주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어디서나 극단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4월, 8월, 10월로 예정된 정기공연은 수석연출가 확정 후 공연의 기본 흐름을 잡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립극단은 그동안 정기공연에서 해외명작 시리즈와 창작 작품을 무대에 올려 관객의 선호도를 높이고 부산연극의 힘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12년에는 다양한 작품을 여러 형태의 공연으로 만나 볼 수 있는 객원연출가들과의 작업을 시도하여 신선함과 독창성을 이끌어 내는 공연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 특별 공연 외에도 7월 경주에서 열리는 국, 공립 교류공연, 12월 부산시민들을 위한 가족극 무대, 문화소의 지역을 찾아가 공연하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부산시민들을 위한 '시청로비콘서트', 연극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기 위한 시민연극교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혀가며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기본에 충실한 내실 있는 무대 선사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2012년에도 작곡가의 성향, 시대적인 배경을 잘 파악한 전통적인 명곡들을 선곡,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날 계획이다.

2011년은 클래식 음악사에 길이 남을 걸작으로 청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2012년 낭만 시대의 작품들과 다양한 모음곡으로 임진년 새해 활동을 이어 간다.

“청소년교향악단은 졸업으로 매년 단원들의 변화가 많아 새로운 단원들과 기존 단원들이 호흡을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2011년은 전 단원들이 최상의 호흡으로 바쁜 공연일정과 연습 일정을 소화하면서 기량이 몰라보게 향상 되었습니다.”

학업과 연주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단원들의 열정이 고맙고 대견하다는 수석지휘자 이동신은 2012년 한해도 단원들과 함께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1월 2일부터 4박 5일간 단원들의 신년 결의를 다지는 동계 캠프를 실시, 새로운 기운으로 한해를 시작한다. 단원들에게 프로패셔널한 기교가 넘치는 연주보다는 기본적인 리듬과 악보에 충실한 연주를 주문하는 이동신 지휘자는 앞으로도 작곡가의 성향, 시대적인 배경을 잘 파악한 전통적인 명곡들을 선곡,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날 계획이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2012년 한해 3개의 테마로 정기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3월 27일 첫 무대에서는 요절한 프랑스의 천재 작곡가 비제의 음악으로 첫 무대를 연다. 동시대 프랑스 작가 메리메의 소설을 기초로 만든 대표곡 ‘카르멘’ 과 알퐁스 도데의 희곡을 가지고 만든 ‘아를르의 여인’ 으로 섬세하고 부드러운 비제의 음악을 들려준다. 5월 24일에는 그리그와 시벨리우스로 대표되는 ‘북유럽의 음악’ 을, 9월 27일에는 ‘그림으로 만나는 클래식 공연’ 으로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을 새롭게 조명할 계획이다.

정기공연 외 청소년교향악단 자체 오디션을 통해 우수한 단원들에게 협연 기회를 제공하는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와 토요일상설무대,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은 2012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토요일상설무대의 경우 보다 다양한 실내악 프로그램을 선곡, 청소년 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계획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청소년교향악단의 2012년 첫 토요일상설무대는 1월 28일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그외 지역 간의 문화 교류 활성화와 경쟁을 통한 실력 향상에 기여해온 김해문화의전당 청소년교향악축제에도 참가, 한층 원숙해진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다. 2012년 2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으로 한국, 베트남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베트남 순회 연주길에 오르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현재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연습에 임하고 있다.

2011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송년음악회에서 비록 일부 단원들이지만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중국 국립오케스트라, 큐슈오케스트라와 연합오케스트라를 구성, ‘말러’에 도전하게 되면서 내적으로 큰 자극을 받았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2012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노하우를 배우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2012년에도 보다 다양하면서도 알찬 무대를 선보일 각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2년 올 한해 3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지역 작곡가들의 창작 합창곡을 들려줄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0일 명작동화 '백설공주'와 애니메이션 영화 '슈렉'을 합창뮤지컬로 재해석한 특별한 송년무대로 2011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2년에도 보다 다양하면서도 알찬 무대를 선보인다는 각오로 임진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올 한해 3차례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순회연주회, 해외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3월 24일 세계적인 작곡가로 사랑받고 있는 영국의 현대 작곡가 존 루터의 미사곡 '글로리아'로 2012년 첫 무대를 연다. 고도의 합창 테크닉과 음악적 표현을 요구하는 '글로리아'는 현대 합창음악의 진

면모를 느낄 수 있는 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합동무대로 마련된다. 1996년 5월에 창단된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그동안 2006년 중국 남영시 초청공연, 2009년 독일 자를란트 국제음악제 초청공연, 2010년 세계어린이합창제 초청공연, 2011년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투란도트'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매년 창작음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창작곡을 발굴, 발표무대를 가져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2년에도 세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지역 작곡가들의 창작합창곡을 들려줄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창작합창의 부흥을 위해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작합창곡 공모전을 가질 계획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9일 특별연주회를 통해 지난해 부모님께 효의 마음을 담아 노래했던 '부모님 감사합니다' 무대에 이어 올해는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특별한 무대 '선생님 감사합니다'를 마련한다. 2009년 작곡가 최석태가 우리 정서에 맞는 선율로 탄생시킨 창작 가족오페라 '콩쥐팥쥐'를 레퍼토리화시켜 지난 한 해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창작뮤지컬로 제작한 '라이언 킹'을 준비하고 있다. 12월 22일 송년무대를 통해 소개될 창작뮤지컬 '라이언 킹'은 초원의 왕 사자 무과사의 어린 아들 심바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다시 '왕'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이 그동안 무대를 통해 쌓아온 춤과 노래, 연기로 가족뮤지컬의 진수를 보여줄 계획이다. 청소년 합창문화 발전 및 합창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해온 제 26회 부산청소년합창제는 10월 2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도 큰 활약을 펼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7월중 고양시에서 열리는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에도 참가, 국내 최고의 기량을 지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저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민간외교관으로 다양한 해외초청 무대를 가진 바 있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5월 3일부터 6일까지 헨델의 고향인 독일 할레에서 개최되는 할레국제소년소녀합창제에 초청받았다. 지난해 7월 세계 최대 규모의 제 3회 홍콩국제청소년합창콩쿠르에 초청받아 참가, 그 실력을 인정받았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해에 이어 그 명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 2012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대극장	기획			· 4/5(목)~29(일) 미스사이공			
	예술단	· 1/12(목) 교향(정기)	· 2/14(화) 임동혁 독주회  · 2/16(목) 합창(특별)	· 3/9(금) 교향(특별) · 3/13(화) 합창(정기) · 3/22(목) 국악(정기) · 3/23(금) 교향(정기) · 3/24(토) 소년소녀(정기)	· 5/17(목)~18(금) 무용(정기) · 5/19(토) 소년소녀(특별) · 5/22(화) 합창(7080 콘서트) · 5/25(금) 교향(정기)	· 6/8(금) 교향(정기) · 6/22(금) 합창(정기) 교향(반주)	
중극장	기획						
	예술단	· 1/23(월) 국악(특별)	· 2/23(목) 교향(월빙)	· 3/27(화) 청교(정기)	· 4/19(목) 교향(정기) · 4/20(금) 합창(특별) · 4/26(목) 교향(월빙)	· 5/24(목) 청교(정기)	· 6/29(금) 청교(특별)
소극장	기획	· 1/27(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	· 2/24(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	· 3/16(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 II	· 4/20(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	· 5/18(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	· 6/8(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 II
	예술단	· 1/4, 25(수) 시민클래식교실 · 1/13(금) 시민무용교실(발표) · 1/18(수)~19(목) 무용(특별)	· 2/1, 8, 15, 22, 29(수) 시민클래식교실 · 2/6(월), 7(화), 9(목), 10(금), 13(월), 14(화), 16(목), 17(금) 교향(악기가족이야기)	· 3/9(금)~10(토) 극단(특별)	· 4/23(월)~29(일) 극단(정기)	· 5/24(목), 25(금), 30(수), 31(목) 무용(특별)	· 6/1(금), 4(월), 5(화), 7(목) 무용(특별) · 6/26(화) 무용(특별)
국제 회의장	· 1/9(월)~13(금) 시민무용교실 · 1/18(수) 시민클래식교실						
지역(區) 문화회관 및 야외극장				· 4/26(목) 국악(동래문화회관)	· 5/1(화) 합창(북구빙상문화센터) · 5/3(목) 합창(금정문화회관) · 5/10(목) 교향(동래문화회관) · 5/11(금) 교향(을숙도문화회관) · 5/17(목) 국악(영도문화회관) · 5/31(목) 무용(해운대문화회관)	· 6/8(금) 무용(동래문화회관) · 6/13(수) 국악(을숙도문화회관) · 6/15(금) 무용(금정문화회관) · 6/29(금) 무용(을숙도문화회관)	
순회공연	· 1/27(금)~30(월) 국악 (가오송 등축제 초청공연)	· 2/9(목)~12(일) 청소년교향악 단(한국·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 베트남 순회연주회) · 2/28(화)~29(수) 합창 (후쿠오카 아크로스홀 연주)		· 교향(2012 교향악축제) ※4월중		· 6/22 무용(여수박람회)	
참고	※1/16(월)~31(화) 대극장 무대공사 ※7/2(월)~31(화) 소극장 무대보수						

※ 이 공연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3(화) 교향(정기)</li> <li>· 7/10(화) 교향(공쿠르)</li> <li>· 7/13(금) 합창(특별)</li> <li>· 7/19(목)~20(금) 무용마당총판(*우천시)</li> <li>· 7/26(목)~28(토) 소년소녀(특별)</li> <li>· 7/31(화) 교향(정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6(목) Across String Ensemble</li> <li>· 8/17(금) 교향(특별)</li> <li>· 8/21(화) 합창(특별)</li> <li>· 8/22(수)~23(목) 국악(특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4(금) 교향(정기)</li> <li>· 9/21(금) 교향(특별)</li> <li>· 9/22(토) 소년소녀(정기)</li> <li>· 9/27(목) 청교(정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2(금) 합창(정기) 교향(특별)</li> <li>· 10/18(목) 교향(정기)</li> <li>· 10/24(수)~26(금) 합창(특별)</li> <li>· 10/27(토) 소년소녀(특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3(토) 교향(정기)</li> <li>· 11/22(목)~23(금) 무용(정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7(금)~8(토) 교향(특별)</li> <li>· 12/13(목) 교향·합창(특별)</li> <li>· 12/14(금) 교향(정기)</li> <li>· 12/18(화)~19(수) 무용(특별)</li> <li>· 12/20(목) 청교(특별)</li> <li>· 12/21(금) 합창(정기)</li> <li>· 12/22(토) 소년소녀(정기)</li> <li>· 12/27(목) 국악(정기)</li> <li>· 12/31(월) 교향(제야음악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13(금) 국악(정기)</li> <li>· 7/19(목)~20(금) 교향(악기가족이야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20(월)~21(화) 무용(특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금) 교향(웹빙)</li> <li>· 9/20(목) 국악(특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25(목) 청교(특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12(월)~14(수) 극단(특별)</li> <li>· 11/15(목)~16(금) 교향(특별)</li> <li>· 11/20(화) 합창(특별)</li> <li>· 11/22(목) 국악(정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0(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li> <li>· 8/3(금) 극단(연극교실발표)</li> <li>· 8/23(목)~25(토) 극단(정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4(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I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2(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li> <li>· 10/4(목)~7(일) 극단(정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9(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14(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II</li> <li>· 12/6(목)~7(금) 무용(특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23(월)~27(금) 시민무용교실</li> <li>· 7/23(월)~8/2(금) 시민연극교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10/31(매주 수요일) 문화대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19(목)~20(금) 여름무용마당총판(*우천시 대극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3(목) 합창(동래문화회관)</li> <li>· 9/18(화) 합창(을숙도문화회관)</li> <li>· 9/20(목) 합창(영도문화회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8(목) 국악(정기, 금정문화회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단 국·공립교류공연(경주) ※7월중</li> </ul>					



## PREVIEW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6회 정기연주회 2012년 신년음악회

1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리 신차오

양육진

김가영

2011년 제야음악회로 한해를 마무리하며 신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안겨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2012년 신년음악회로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2012년의 환희를 선사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의 지휘로 2012년 연주의 서막을 여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전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으로 활동한 인제대학교 양육진 교수와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김가영의 특별협연으로, 화려하고 밝은 춤사위가 연상되는

발레 음악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을 위한 마스터클래스 강사로 초청되는 호른 연주자 만이(Man Yi)가 함께 연주, 부드럽고 풍부한 호른 선율을 들려준다. 중국 중앙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자를란트 음대에 재학 중인 만이는 베이징에서 열린 2004년 중국국립프렌치호른콩쿠르 영재 아티스트 상, 2007년 중국국립프렌치호른콩쿠르 1위를 수상한 실력파이다.

신년의 환희를 만끽하기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선택한 레퍼토리는 차이코프스키 '잠자는 숲속의 미녀' 모음곡, 프로코피에프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아당 '지젤',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

차이코프스키 '잠자는 숲속의 미녀' 모음곡은 마린스키 극장의 지배인 브세볼로지스키의 의뢰로 1889년에 완성한 전 3막 8장, 61곡으로 구성된 화려한 발레 대작이다. 그 당시 춤을 위한 리듬 음악에 불과했던 춤곡을 예술 음악으로 승화시킨 차이코프스키는 5곡을 발췌해 연주회용 모음곡 작품 66a를 구성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목관의 주제적인 음형에 꿈결 같은 그랜드하프의 빛나는 멜로디를 자랑하는 화려한 춤곡인 제 2곡 '장미의 아다지오'와 인상적인 서주 뒤, 금관악기와 현악기의 다채로운 음색이 뒤섞이고, 빠르게 흐르는 제 5곡 '왈츠'를 들려준다.

이어지는 프로코피에프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은 베로나의 불행한 연인들을 둘러싼 비극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곡된 곡으로 곡은 단순, 명쾌하며 선율이 아름답고 리리시즘과 로맨티시즘이 전편에 흐르고 있다. 관현악법은 절묘해서 극적 긴장감에 다이내믹한 활력이 넘친다. 아당의 최고 히트작인 발레음악 '지젤'은 정교함과 리듬성, 그리고 통일성을 지닌 곡으로 지젤의 변화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의 분위기가 특히 뛰어나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가영의 연주로 '그랑 파 드 되'를 들려준다.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1919년판)은 한낱 무명 작곡가였던 스트라빈스키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 놓았던 발레음악이다. 스트라빈스키의 나이 28세 때인 1910년에 작곡된 이 작품은 근대 무용예술의 거목 디아길레프가 새로 창단한 러시아 발레단의 공연을 위해 작곡되었다. 러시아의 유명한 전설에 기초하고 있어 러시아 민요 선율을 풍부하게 들을 수 있으며, 격정적인 감정 분출, 현란한 색채와 약동하는 리듬이 가득하다.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부산시립무용단 2012년 우리춤 산책

1월 18일-19일 수-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신명이 살아있는 흥겨운 춤사위로 부산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부산시립무용단이 '우리춤 산책'으로 2012년 첫 무대를 연다. 평소 강습을 통해 우리춤의 기량을 갈고 닦아온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의 빼어난 춤사위를 만날 수 있는 '우리춤 산책'은 정기공연 무대에서 만날 수 없었던 단원들의 진지함,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무대이다. 올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39호 처용무를 비롯해 제 27호 이매방류 승무, 제 12호 진주검무, 제 7호 고성오광대 말뚝이춤, 제 97호 살풀이춤 등 중요무형문화재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 21호 진주교방굿거리춤, 도살पुर리, 장고춤, 태평무, 춘앵무, 산조춤 등 다채로운 우리춤을

한자리에서 공연, 한국춤의 정수를 골고루 맛볼 수 있다.

태평무의 경우 18일에는 한영숙류 태평무를, 19일에는 강선영류 태평무와 한영숙류 태평무를 한자리에 올려 동일한 작품의 다른 유파 춤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 1930년대 故한성준 선생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왕십리 당굿의 무속장단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한영숙 태평무는 여성스럽기 보다는 날카로운 기개를 느낄 수 있고 화려하기 보다는 정갈하면서도 절제된 정·중·동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강선영 태평무는 장단의 기복에 따른 활달함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흥취, 엄숙함과 장중함이 춤에 배어있고 빠른 장단에도 불구하고 율동이 크고 팔 사위가 우아하며 춤의 기품이 배어 나온다. 한영숙류 태평무는 서현미와 이현주가, 강선영류 태평무는 류권홍의 춤으로 만난다.

그 외 신라 제 49대 헌강왕 때의 처용설화에서 유래한 처용무는 강모세가, 우리나라 민속춤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이매방류 승무는 안주희가, 경기도 도당굿판에서 비롯된 도살पुर리는 이정인이, 아름다운 장고 가락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시킨 장고춤은 황선희, 김동숙, 강미향이, 궁중에서 연희되던 진주검무는 이현주, 양반의 추악상을 말뚝이라는 민중의 대표를 내세워 신랄하게 비판하고 조롱하는 고성오광대 '말뚝이춤'은 허태성, 황동하의 춤으로 만날 수 있다. 돌꺀날 마지막 무대에서는 남산놀이마당의 특별출연으로 경쾌하고 절도있는 김진영의 '소고놀이'가 펼쳐진다.

## 공연일정

### 1월 18일

- 처용무(춤\_강모세)
- 도살पुर리(춤\_이정인)
- 한영숙류 태평무(춤\_서현미)
- 고성오광대 말뚝이춤 (춤\_허태성, 황동하, 악사\_상식\_김동수, 북\_이동근, 장구\_김은정, 징\_장영진, 태평소\_윤현호)
- 이매방류 승무(춤\_안주희, 뒷장고\_김주연)
- 장고춤(춤\_황선희, 김동숙, 강미향)
- 진주검무(춤\_이현주)

### 1월 19일

- 춘앵무(춤\_이화성)
- 진주교방굿거리춤(춤\_김주령)
- 진주검무(춤\_이상민, 박은혜, 김도은, 김시현)
- 한영숙류 태평무(춤\_이현주)
- 소고놀이(춤\_김진영 · 악사\_남산놀이마당\_상식\_장재희, 장고\_설영성, 북\_류제철, 징\_방형웅, 태평소\_김현일)
- 강선영류 태평무(춤\_류권홍)
- 산조춤(춤\_윤은하)
- 이매방류 살풀이춤(춤\_장래훈)

● 입장권 | 균일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PREVIEW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 설맞이 국악한마당

1월 23일 월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임진년(壬辰年) 새해 우리 민족 최고의 대명절 설을 맞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설맞이 국악한마당'으로 2012년 국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무병장수와 풍요에 대한 소망을 담아 지난해에 이어 '설맞이 국악한마당'으로 넉넉한 신명마당을 펼친다. 올해에는 신명 넘치는 歌·舞·樂으로 풍성한 설맞이 국악한마당을 선사하기 위해 김갑용 단장을 중심으로 폭 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마려무용단과 박시영 대표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우리소리예술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박성희, 정선희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첫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유경조 악장의 집박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 되는 和의 세계를 추구하는 '해령(解令)'으로 2012년 연주의 서막을 연다. 조선후기 궁중에서 왕의 행차 때 주로 연주하던 행악으로 매우 엄숙하고 화려한 선율을 지닌 해령(解令)은 박, 편종, 편경, 당피리, 대금, 해금, 당적, 아쟁, 장구, 좌고 중심의 편성으로 연주하는 곡으로 관악기의 장중한 음색과 피리와 대금이 교차하면서 화려한 장식을 하는 연주방식, 그리고 느리고 자유로운 리듬이 어우러져 여유롭고 장엄한 멋을 자아낸다.

이어지는 무대는 마려무용단 김갑용 단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김진홍을 사사한 김갑용의 승무는 하얀 고깔과 장삼, 붉은 가사를 두르고 추는 일종의 장삼춤으로 민속무용 중 최고의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춤이다. 김갑용 단장의 승무에 이어 김민지, 김유림, 김정연, 홍현주, 정연희, 한지영 등 마려무용단 단원들이 '부채춤'으로 무(舞)의 하이라이트 무대를 연다.

마려무용단의 무대에 이어 거문고의 중후한 음색과 여성적인 가야금이 어우러지는 현악 합주 '출강'을 들려준다. 북한 흥남 제련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출강'은 1994년 거문고 연주자 이세환에 의해 소개되어 현재까지 사랑받고 있는 거문고 연주곡으로 이후 관현악곡, 거문고 가야금 이중주, 가야금 이중주로 편곡되어 널리 연주되고 있다.

가(歌)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박성희, 정선희가 새해 밝고 흥겨운 기운을 담아 흥겨운 민요 한마당을 연다.

설맞이 국악한마당의 마지막 무대는 음악과 놀이의 종합예술 '판굿'으로 장식한다. 다이내믹한 악기연주와 일정한 형식의 진, 그리고 중, 포수 등과 같은 특정한 캐릭터로 분장한 잡색들이 놀이로 꾸며지는 판굿은 활기차고 다양한 리듬과 춤, 상쇠놀이, 설장구놀이, 소고놀이 등이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일본 히젠조 무나카타 공연, 미국 오렌건주 셀럼시 초청공연, 중국 상해 세계민속페스티벌 무대에서 호평받은 우리소리예술단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올해는 우리 음악을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랑방 분위기를 연출, TBN 부산교통방송 아나운서 김지현의 해설로 관객들에게 임진년 복된 기운을 선사한다.

- 입장권 | 무료(선착순 좌석권 배부)
-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4)

# 2012 제 7회 부산국제음악제

## Busan Music Festival-BMF

2월 2일(목)~9일(목), 부산문화회관, 신세계문화홀, 파라다이스호텔



보로메오 스트링 콰르텟

세르게이 바바얀

음악 비수기인 겨울,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실내악 연주로 부산 음악애호가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부산국제음악제 (Busan Music Festival-BMF) 2012년 무대기 2월 2일 부산 문화회관에서 막이 오른다.

각 악기별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패기와 열정, 관록과 여유가 묻어나는 부산국제음악제(음악감독/백혜선)는 2005년 부산아트매니지먼트가 민간 주도로 창설하여 명품음악축제로 각광 받아왔다. 음악애호가, 전공인, 시민들과 언론의 호평을 받으며

부산을 대표하는 유일한 음악제로 자리잡아온 부산국제음악제는 특히 2010년 부산마루국제음악제가 창설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올해는 '클래식 음악의 빛, 그리고 감동'이라는 주제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부분의 국내외 명연주자 15인과 보로메오 콰르텟,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등 100여명의 음악가가 참가, 2월 9일까지 7개의 음악회와 마스터 클래스, 전공학생들을 위한 뮤직아카데미가 진행된다.

올해는 매 시즌 전 세계에서 100회 이상의 공연을 가지며 음악성, 지성, 테크닉을 겸비한 세계적인 현악 4중주단 '보로메오 스트링 콰르텟'의 개막연주를 시작으로 피아니스트 백혜선(하트포드음대 및 대가대 석좌교수), 세르게이 바바얀(거장 피아니스트), 필립 케윈(맨하탄음대 교수), 신수정(서울대 초빙교수), 이경숙(연세대 명예교수), 주희성(서울대 교수), 김정권(부산대 교수), 고이치로 하라다(일본 도호음대 교수), 김남윤(한국예종 교수), 니콜라스 키첸(보로메오 콰르텟 리더), 백주영(서울대학교 교수), 김동욱(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신연황(줄리아드 음대 및 메네스음대 교수), 전중훈(캔사스 음대 교수), 피터 와일리(커티스 음대 교수), 정명화(대관령음악제 감독, 한국예종 명예교수), 김이선(뉴잉글랜드 음대 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등이 부산 음악애호가들에게 화려한 음의 향연을 선사한다.

감각적이고 신들린 연주를 하는 대만 출신의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신연황, 미국에서 활동하다 부산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김정권이 부산시민들에게 처음으로 선사하는 오케스트라 협연무대, 피아니스트 백혜선, 바이올리니스트 고이치로 하라다, 백주영, 김동욱, 비올리스트 신연황, 첼리스트 피터 와일리 등 국내외 명연주자들이 함께하는 갈라 콘서트, 초청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가족음악회 거장의 실내악, '비범한 테크닉과 완벽한 컨트롤 속에 투명한 소리로 채색된 피아니즘의 소유자'로 평가받고 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바바얀의 독주회에 기대가 모아진다.

### 축제음악회 일정

- 2월 2일(목) \_ 보로메오 콰르텟(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2월 3일(금) \_ 명품 협주곡 with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2월 4일(토) \_ 갈라 콘서트(신세계문화홀)
- 2월 5일(일) \_ 갈라콘서트(신세계문화홀)
- 2월 7일(화) \_ 가족음악회 거장의 실내악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2월 8일(수) \_ 세르게이 바바얀 피아노 독주회(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2월 9일(목) \_ 폐막연주회-화합과 나눔의 음악회(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문 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www.busanarts.com)

# 젊은 거장 피아니스트 임동혁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한 젊은 천재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2012년 부산문화회관 첫 기획 공연의 주인공으로 부산 음악팬들과 만난다.

1996년 모스크바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 2위에 입상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한 임동혁은 쾨엘리자베스 콩쿠르-쇼팽 콩쿠르-차이코프스키 콩쿠르로 대표되는 이른바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운 젊은 거장이다. 2012년은 임동혁이 데뷔 음반을 발매한지 10년을 맞이하는 해. 데뷔 10주년 기념 전국투어 소식에 벌써부터 음악팬들의 가슴이 설렌다.

2000년 부조니 콩쿠르와 하마마츠 콩쿠르 입상, 2001년 롱-티보 콩쿠르 우승과 더불어 솔로 리사이틀상, 오케스트라상, 프랑크 작곡가 해석상, 파리음악원 학생상, 마담가비 파스키에 상 등 5개 상을 수상한 임동혁은 2005년 제15회 국제 쇼팽 콩쿠르에서 형 임동민과 함께 공동 3위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2007년 6월, 제13회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1위 없는 4위를 기록한 임동혁은 '피아노의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EMI에서 데뷔앨범을 출시, '황금 디아과종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나이에 비해 빠르고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온 임동혁의 데뷔 10주년 공연에 앞서 서면으로 임동혁과 특별한 만남을 가져본다. 신동을 넘어 젊은 거장으로 우뚝 선 임동혁, 그와의 특별한 만남이 기다려진다.

## 2012년 부산문화회관 첫 기획 공연의 주인공으로 2년 만에 갖는 부산문화회관 공연 소감

언제나 부산은 저한테 특별한 도시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2004년 제가 처음으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독주회를 했을 때도 서울 공연에 앞서 부산문화회관에서 독주회를 했던 기억이 남아있는데요, 특히 관객들이 매우 열광적이고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인지 부산에서 데뷔 10주년 기념 독주회로 다시 관객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고 설렙니다.

### 2012년 신년계획

내년엔 데뷔 10주년 한국에서 전국 투어가 있습니다. 더불어 조금 더 저의 거처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한 해가 될 듯합니다. 또한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한 템포 쉬어가는 해일 것 같아요. 물론 마음가짐도 다시 돌아보고요.

### 2012년 특별한 연주계획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데뷔 10주년 투어가 특별 하겠네요.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 독주회를, 시카고 심포니와의 협연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되는 연주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처음으로 협연 무대를 갖게 되는데요, 라흐마니노프 곡이어서 다소 부담도 되지만 역시 기대가 됩니다.

### 도시마다 다른 연주회장 분위기

지역과 관객 반응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공연의 경우, 입장할 때 객석 반응은 냉랭할 정도로 차분한데요, 연주가 좋으면 그에 알맞은 호응을 보여줍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행히 부산은 관객 반응도 매우 뜨겁고 열광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편하게 연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음악에 대한 꿈은 언제부터 꾸게 되었는지, 음악과의 첫 만남이 궁금합니다.

8살 때 형이랑 거의 같은 시기에 음악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제가 전공으로 피아노를 하게 될지 정말 몰랐지만 3학년 정도가 되어서는 제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미 떨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였죠.

###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2004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의 공연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정말 힘든 연주였고 너무 긴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연주만 끝나면 정말 날아갈 텐데 라고 생각했고 정말로 연주가 끝나고 길이 남을 뒷풀이를 가졌죠.

### 음악에 담고 싶은 철학이 있다면?

그렇게 심오한 생각을 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음악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하고 솔직하되, 감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본적으로 음악은 아름답고 그 음악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잘 표현하고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형과의 연주계획이 있으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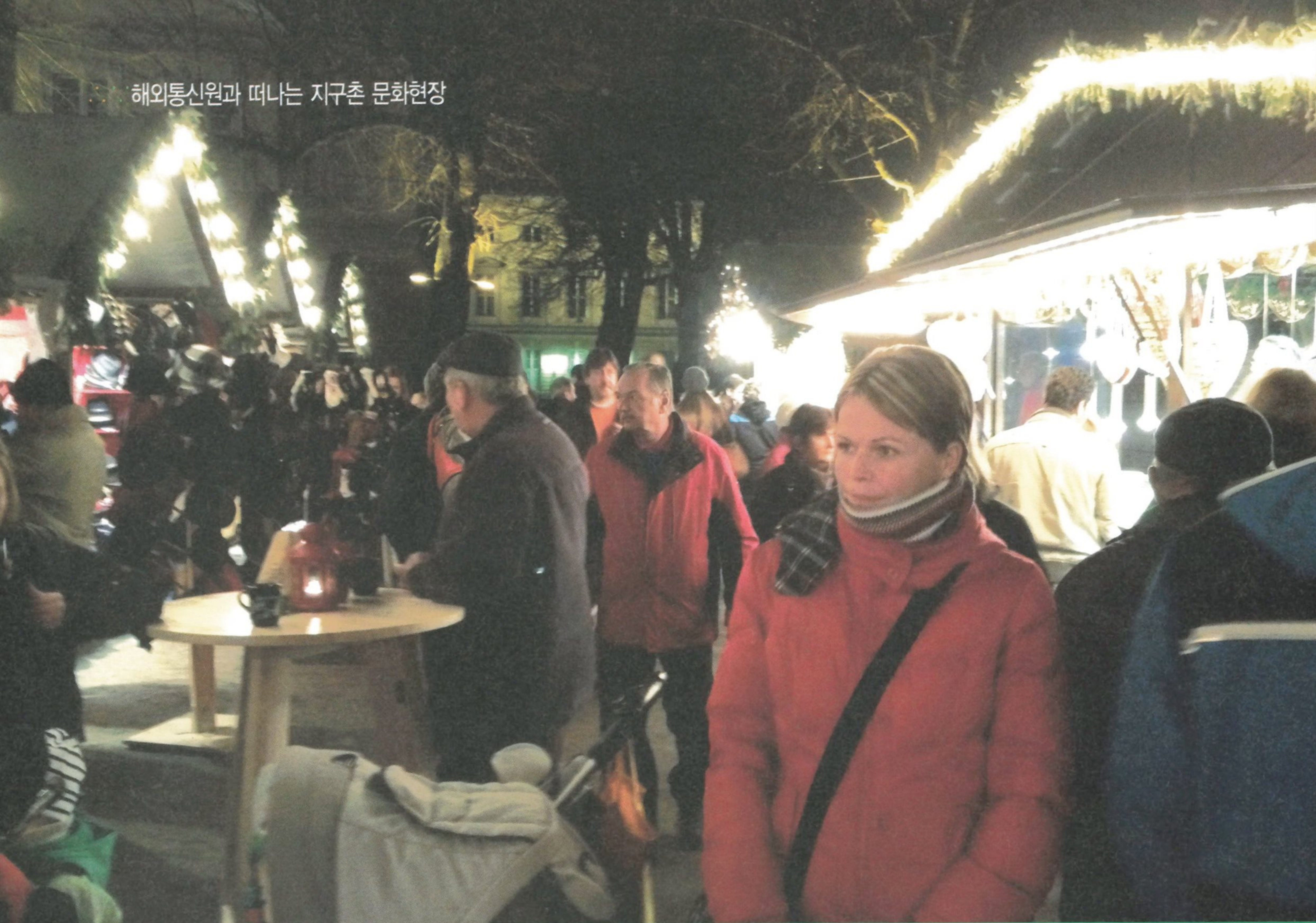
자주 거론되는 화제이긴 합니다만, 언젠간 분명 다시 기회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음악 활동 외 취미활동이 있다면, 혹은 일탈을 꿈꾸 적어 있는지요?

취미라고 한다면, ... 친구들이랑 만나 수다도 떨고 그래요. 일탈은 이미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일탈에 대한 환상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 2012년 연주곡에 간단한 소개와 감상 포인트를 알려주십시오.

2008년 바흐, 2010년 쇼팽에 이어 이번에는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등 전부 러시아 프로그램입니다. 러시아 곡들의 특징은 러시아의 넓은 대지를 연상시키는 어떤 광활함(?)이 느껴지며, 또 매우 강렬하고 열정적이죠. 그래서 굳이 어떤 지식이 없이 오시더라도 절대 지루할 틈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장터 풍경

## 축제분위기로 흥겨운 독일의 성탄 장터

김지혜\_독일 통신원(음악교육 박사, 베를린에서 음악 치료사 및 고등학교 음악 교사로 활동 중)

크리스마스는 유럽의 최대 명절이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성탄절 한달 전부터 강림절 절기(성탄절 전의 4주간)가 시작된다. 강림절의 시작은 성탄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가지 행사 가운데서 강림절과 함께 개장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까지 열리는 성탄 장터는 축제 분위기를 돋우는 데 큰 몫을 한다. 이 시기 독일 전역 도시중심부에서 성탄 장터가 열린다. 지역마다 특색있는 성탄 장터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여러 도시의 시장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베를린에만 지역마다 다른 30여개가 넘는 성탄 시장이 열린다. 베를린 중심지역에만 7개의 시장이 열리는데 시장들이 멀리 떨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지를 중심으로 걸어서 보기 좋다. 나무로 지어진 예쁜 오두막 모양의 작은 상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노상 장터는 마치 달력속의 유럽의 낭만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가격이 비쌌어도 불구하고 성탄 장터를 찾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백화점이나 디스카운트 매장에서의 인공적인 '세련된' 서비스나 번쩍거리는 화려함 대신 마치 작은 구멍가게



①



②



③

①손으로 만든 예쁜 새집 ②뜨거운 글뤼바인 한잔 ③성탄용 과자

에서 느낄 수 있는 소박함과 인간미, 그리고 마차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듯한 수공예 제품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쇼핑을 하다가 출출한 배를 채울 수 있는 소시지와 빵, 뜨거운 스프, 성탄 과자, 겨울에 빼놓을 수 없는 뜨겁게 데워 먹는 와인인 글뤼바인(Glühwein-따뜻하게 데운 와인), 브라트 브어스트(Bratwurst-구운 소시지) 등 먹거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약방의 감초이다.

예술가들이 직접 만든 작품과 수공예업자들이 만든 물건들은 사실 백화점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데 성탄 장터를 통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접할 수가 있고 가격도 단 돈 몇 천원에서 수십만원 대까지 아주 다양해서 성탄 선물을 마련하려는 고객들에게는 좋은 쇼핑 기회가 된다. 뿐만 아니라 물건을 수집하려는 예술 애호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수집 기회이며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에게는 흥미있는 눈요깃거리이기도 하다.

장터에는 없는 물건이 없다. 악세서리, 옷, 모자, 가방, 손으로 직접 만든 아기자기한 성탄 트리용 장식품, 혹은 집안을 예쁘게 채울 데코레이션, 그림, 직접 만든 치즈 소시지, 세계 각국에서 온 전통 물건들, 심지어 봄에 사용할 예쁜 새집까지 마차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빼곡히 모인 예쁜 전시장 같다.

축제에는 음악이 빠질 수 없는 법, 성탄 장터에는 아마추어 음악 밴드들의 연주 역시 빼놓을 수가 없다. 전통 수도사 복장을 한 듄직한 중년 남성들과 할아버지의 브라스 밴드의 연주와 합창단이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들은 너무 구수하고 따뜻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

을 멈추게 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성탄 장터의 시작과 끝은 뭐니뭐니해도 갖가지 음식들로 배를 든든하게 채우는 것이다. 인기 있는 성탄 장터에는 간이식당과 음료수 가판대가 한 곳에 빼곡하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흩어져 있어서 쇼핑을 하다가 잠시 요기를 할 수 있도록 '나그네'를 배려하고있다. 소시지와 빵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 구운 소시지, 지방색이 담긴 베를린 스타일, 소시지의 원조 튀링엔 등 다양한 소시지가 제공되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에이는 장터에서 잠시 계피 등 여러가지 약초가 든 뜨거운 와인을 한잔 마시면 알콜 기운이 목 사이를 타고 위로 흘러들어갈 때의 느낌은 정말이지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이다.

베를린을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카이저 빌헬름 기념 교회 (Kaiser Wilhelm Gedächtniskirche)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글뤼바인과 브라트 브어스트를 먹으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낸다.

성탄 장터는 물건을 사고 먹거리를 찾는 곳만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보살피기 위해서 찾는 위안의 장소이다. 빼곡히 가득한 사람들로 정신없이 붐비지만 그렇다고 어느 곳에서도 화려한 백화점에서의 쇼핑 스트레스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유난히 느리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단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물건을 구경하는 모습과 웃음소리, 친절하게 자신







출출할때는 소세지와 빵이 최고

의 물품들을 고객에게 소개하는 여유 있는 상점주인들, 대형 술에 가득 쌓인 먹거리와 퍼지는 음식 냄새와 솟아오르는 연기...

이런 인간적인 것들이 정신없이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 현대인들의 바쁜 마음에 잠시나마 심포를 찍을 수 있도록 잠시 왔다 가라는 손짓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별모양 장식용 등



수공예 트리 장식품



초코렛을 입힌 사과

# 푸시킨과 차이코프스키의 ‘예브게니 오네긴’

이동신\_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푸시킨

차이코프스키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시킨(1799~1837)은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이라 부르는 러시아 근대문학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아직도 가장 사랑받는 작가이다. 그는 러시아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며 지금도 끊임없이 재발견되는 현대적 인물이다. 약 20년의 창작기간동안 700여 편에 이르는 서정시, 영웅서사시, 낭만시, 민담, 단편소설, 장편소설, 희곡, 역사물, 평론, 기행문 등 기존의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작품을 남겼고 거기에 ‘운문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까지 개발하였다. 또한 해당 장르의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장르의 전범으로 간주될 만큼의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푸시킨은 고전적 규범과 장르의 경계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횡단하며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더불어 그는 낡은 사고로 여겨졌던 고전주의와 서구에서 건너온 낭만주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온 사실주의 등의 모든 사조를 수용하였다. 엄격한 형식과 문체, 열정과 사실성이 때로는 어우러지고 때로는 대립한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푸시킨의 작품 세계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보편성’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푸시킨 작품의 특징은 민족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의 혼합이다. 혼혈에다가 어려서부터 프랑스 문화를 접한 그의 이력은 이후 러시아 구전문학에 대한 그의 애정이 결합되어 가장 이국적이면서도 러시아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1823년부터 1830까지 7여 년 동안에 집필된 <예브게니 오네긴>은 푸시킨의 모든 문학적 역량이 담겨있는 걸작이다.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는 40~60개의 연이 포함되고, 이 연들은 모두 일정한 압운을 가지는 14개의 약강4보격을 유지한다. 이렇게 ‘운문’으로 구성된 ‘소설’은 서구의 운문형식을 빌려와 자신의 소설에 맞는 형식으로 재창조한 푸시킨의 발명품이다. 그리고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은 완벽한 형식미와 독창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러시아 문학의 독보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단단한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줄거리는 매우 단순하다. 주인공 오네긴은 친척의 유산 상속인이 되어 시골영지에 가게 되고 거기서 지주 렌스키와 그의 연인 올가를 알게 된다. 올가의 언니 타티아나는 오네긴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오네긴은 그녀의 사랑을 거절하고 사소한 다툼이 원인이 되어 렌스키와 결투를 하고 결국 그를 죽게 한다. 몇 년 뒤 오네긴은 사교계의 여왕이 된 공작부인 타티아나를 보고 열렬한 사랑에 빠지지만 타티아나는 그의 사랑을 거절한다.

1879년 모스크바에서 초연된 차이코프스키의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은 기존 오페라처럼 극적인 효과를 지향하지 않고 가곡처럼 순수한 서정극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작품을 ‘서정적 장면’이라 칭했다. 이후 1884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초연되어 찬사를 받은 이래 이 작품은 러시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가 되었다. 1876년 파리에서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을 보고 크게 감명 받



푸시킨의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은 차이코프스키에 의해 러시아적인 오페라로 탄생되었다.

은 차이코프스키는 카르멘처럼 친근하며 현실적인 비극을 소재로 오페라를 쓰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고 푸시킨의 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을 오페라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토니나 밀류포바의 광적인 청혼과 수주일간의 결혼생활 그리고 그것의 실패와 자살기도, 요양이라는 혼란스러운 삶으로 인해 작곡은 일시 중단되었다. 스위스에서 요양할 무렵 후원자 폰 메크 부인과 편지로 우정을 맺게 되고 그녀의 정신적 물질적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한 차이코프스키는 이듬해 교향곡 제 4번과 더불어 <예브게니 오네긴>을 완성시켰다.

현실적인 인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차이코프스키는 등장인물의 심리묘사에 치중하였다. 레치타티보를 최대한 줄이고 클라이맥스에는 독창이나 이중창을 썼으며 성악은 관현악에 대비해 독립성을 유지하여 주인공의 감정을 충실히 노래하게 하였다. 이에 반해 관현악은 성악보다 우위에 있지 않으면서도 라이트모티브처럼 주요주제를 새기는 동시에 주인공의 성격이나 감정의 흐름을 표현한다. 또한 결투장면처럼 극적인 다이내믹을 통해 상황을 나타내고 타티아나의 편지 장면처럼 성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프로코피예프와 스트라빈스키를 비롯한 많은 작곡가들은 <예브게니 오네긴>을 역사상 가장 러시아적인 오페라로 일컫는다. 시골과 도시인물의 차이를 보여주는 도구로써 꾸밈없이 사용된 민속음악의 영향이다. 자신에 대해 거의 모르는 여인으로부터 구애편지를 받은 차이코프스키는 마치 타티아나로부터 편지를 받은 오네긴과 같다. 실제로 이 편지장면 때문에 차이코프스키는 이 오페라를 착수했다. 그리고 그 장면만 따로 떼어내어 연주회용 아리아를 쓰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결투 직전에 렌스키가 부르는 아리아 '어디로, 아, 그대는 어디로 갔는가?'는 이 오페라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마치 차이코프스키 자신의 인생과 예전의 행복, 그리고 생사에 관한 무관심을 나타낸다. 결국 차이코프스키는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최고의 오페라를 탄생시킨 것이다.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에 이어 이번호 부터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이 음악에 녹아있는 진솔한 문학이야기를 새롭게 연재합니다.

# 음악론과 그 성격

김창욱\_음악평론가



난파트리오

## 문명개화와 근대주의적 음악론

문명개화의 시기였던 1920년대 전후, 흥난파는 근대주의적 음악론을 펼쳤다. 근대주의란 일제 강점하의 조선이 설령 독립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므로 독립보다 오히려 실력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그러니까 근대주의적 음악론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음악적 실력을 먼저 양성해야 한다는 논리라 볼 수 있다.

그는 당시 조선이 '깨는 때', 즉 문명개화의 시기로 파악하였다. 그것은 서구의 문명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조선이 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조선이 독립함에 있어 음악적 실력을

양성하는 일도 매우 긴급하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말하는 음악적 실력은 '완전'히 문명화된 서양음악적 실력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이를 적극 배양하는 것이 조선의 근대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런 까닭에 그는 서양음악의 소개와 보급은 물론, 경성악우회·연악회·난파트리오와 같은 각종 악단을 조직하는 등에 열의를 보였다. 그는 그것이 당대 자신이 맡아야 할 임무라고 생각했고, 그래야만이 조선도 문명국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서양음악의 세 요소인 선율·리듬·화성이 갖춰진 음악이 '완전한' 음악이며, 그렇지 않은 것을 '완전하지 않는', 혹은 '원시적인' 음악이라 폄하하기도 하였다. 즉 그의 근대주의적 음악론은 서구 음악이 세계의 보편적 음악이라는 서양중심적 논리였다.

## 음악적 민족주의로서의 신(新) 조선음악론

이러한 그의 입장은 1930년대 들어오면서 다소간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음악적 민족주의로서의 신조선음악론을 주창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음악의 창작에 있어서 조선의 정체성과 신분성을 구현하려 한 논리였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근대주의적 음악론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없지 않다. 그가 말한 신조선음악은 기존의 서양음악도 아니요, 그렇다고 재래의 조선음악도 아니었다. 그것은 서양음악과 조선음악의 장점을 취해서 만들어야 할 '새' 음악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신조선음악을 건설함에 있어서 조선의 전통음악을 토대로 하자고 하지 않았다. 재래의 전통음악이 새로운 시대의 음악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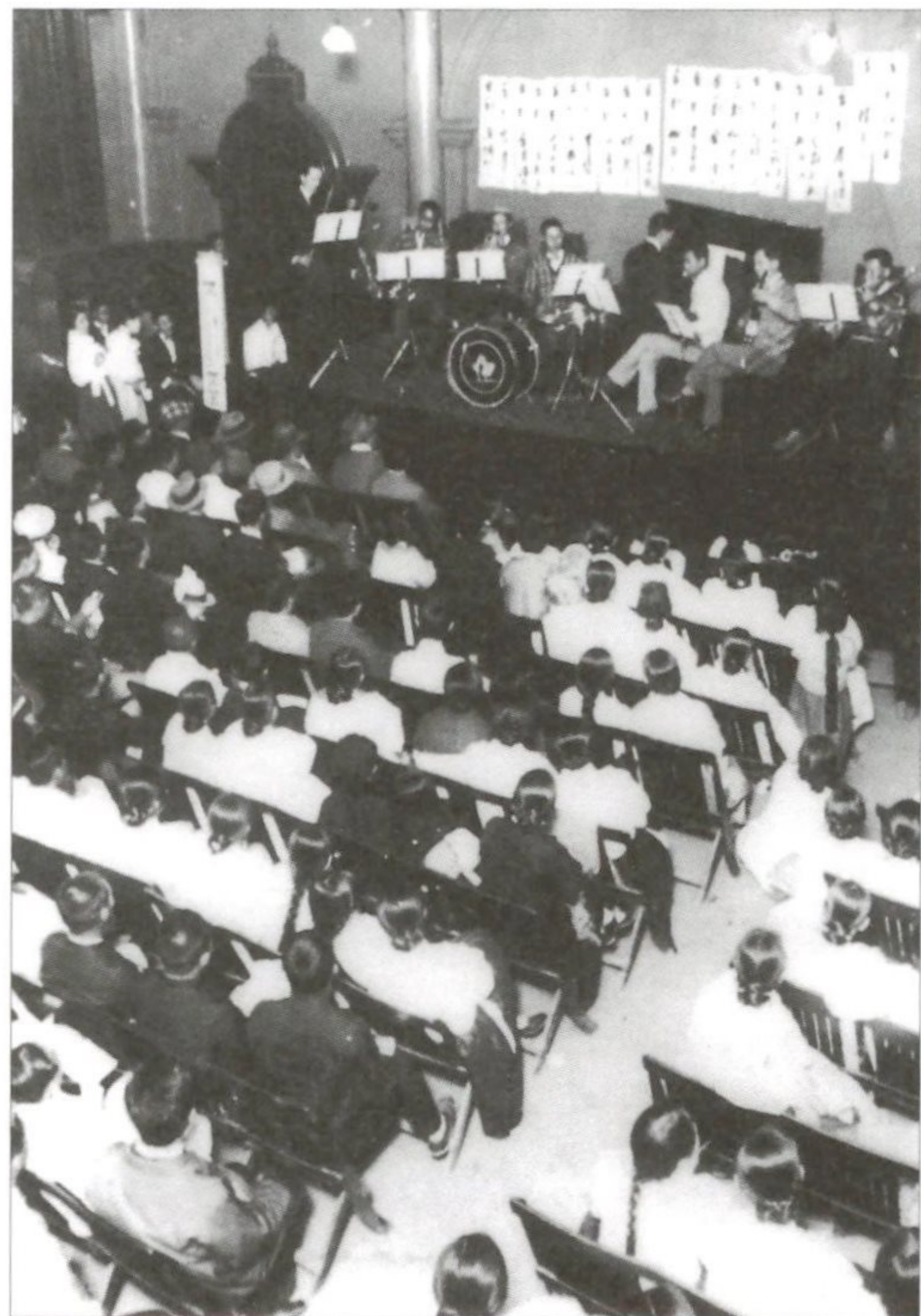
의 신조선음악론은 조선음악의 정체성이 내재되지 않은, 혹은 여전히 서양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음악론이라 할 수 있다.

홍난파가 조선음악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자유롭게 비판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의 전통음악적 경험이 일천한 탓으로 여겨진다. 그가 줄곧 천착한 쪽은 서양음악과 서양악기였고, 그것이 그에게 전통음악과 전통악기보다 훨씬 친숙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울러 그것은 기독교 문화를 통한 오리엔탈리즘의 수용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식민지 현실인식과 실용주의적 음악론

홍난파는 1920년 중반부터 실용주의적 성격의 음악론을 제시한 바 있다. 실용주의는 일반적인 경우 실제 생활에 필요한 사상이나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작품 자체의 자율성에 가치를 두는 예술지상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는 예술음악과 예술음악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활용할만한 일에 활용하고 이용될만한 끝에 이용되어야만 그 가치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예술적 가치보다 실용적 가치에 보다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는 '가정의 화락한 기분'을 위해서 가정음악이 필요하고, '어린이들의 성정을 순화시키고 그의 덕행을 기르는데' 학교음악의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그는 당시 많은 음악가들이 폄훼했던 유행가, 또한 유행속가에 대해서도 '듣는 사람에게 흥미나 즐거움을 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음악적 효과가 있다고 보았고, 심지어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제로부터 적성국가의 음악이라는 이유로 배척되었던 재즈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실제로 그는 김상준(金相駿)·박건원(朴乾源)·백명곤(白命坤)·이병삼(李丙三)·이철(李哲)·최호영(崔虎永)·한욱동(韓旭東)·홍재유(洪載裕) 등과 함께 1929년 코리안재즈밴드를 조직, 연주회를 열고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그의 이같은 열린 생각은 그가 신민요, 유행가, 영화주제가 등 레코드음악의 창작을 실현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즉 가정, 학교, 일반사회의 '생활에 적합'한, '실생활에 적응'되는, '실제생활에 적응 부화(附化)'되는, '일상생활에서 배태'되는 음악 창출이 그 목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수용자 대중이 원하는 바의 음악을 적재적소에 제공한다는 홍난파의 실용주의적 음악론은 실제 그의 음악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논리이기도 하였다.



1929년 결성된 코리안 재즈밴드



○ 朴乾源  
○ 金相駿  
○ 최호영  
○ 홍난파  
○ 홍재유  
○ 김상준  
○ 이병삼  
○ 이철  
○ 백명곤

1929 여름 JODK 방송  
4월에는 Jazz 방송이 취임이다.

1929년 여름 JODK방송국에서 가진 재즈공연

# 매화가지의 까치는 봄소식을 가져오고

변광석\_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김홍도 '매작도'

우리의 옛그림에서 화조(花鳥), 즉 꽃과 새를 소재로 한 작품을 흔히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상이 매화·난초·국화·대나무·모란·연꽃·갈대·에다가 까치·꿩·해오라기·기러기·오리·원앙·봉황 등이다. 꽃은 종류에 따라 부귀·청정·행복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새는 항상 음양의 조화를 담고서 부부애를 상징하고 있다. 벌이나 나비처럼 초충(草蟲)도 같은 의미로서 암수 쌍을 그리기는 마찬가지다. 앞의 글(11월호)에서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낸 김홍도의 호랑나비 그림을 설명한 바 있다.

이제 바야흐로 연말연시인지라 새해의 상징인 까치그림을 소개하고자 한다. 김홍도가 1796년(52세)에 그린 '병진년화첩(丙辰年畫帖)'에 들어있는 <매작도(梅鵲圖: 비단담채, 26.7×31.6cm, 호암미술관)>이다. 이 화첩에는 도담삼봉이나 사인암 등 충청도 단양의 풍광 좋은 실경그림도 있고 자연에서 노니는 화조그림도 있다. 새들은 까치 외에도 꿩·참새·피꼬리·오리·백로들을 소재로 하여 10폭을 그린 것이다. 김홍도는 50대에 이같은 화조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림속으로 들어가서 여러가지 읽어보자. 화사하게 핀 흥매화 줄기에 까치가 앉아 노닐고 있다. 매화의 아래부분 등결은 왼쪽으로 가지를 많이 쳤고, 가지의 윗부분은 오른쪽 위로 뻗어 있다. 대신에 오른쪽 아래 여백은 대나무가 사선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매화와 대나무를 함께 그린 것은 겨울과 봄이 겹쳐져 있는 절기라는 뜻이다. 사실 김홍도의 화조도 가운데 매죽(梅竹)을 함께 배치한 그림은 매우 드문 편이다. 대표적인 것이 '화조도(花鳥圖) 8첩병풍'에 나오는 <치희조춘도(雉戲早春圖)>이다. 암수 꿩 한쌍이 매화나무와 대나무 사이에 앉아 이른 봄을 기다리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으레 매난국죽 사군자는 선비들이 수묵으로 치지만, <매작도>는 연분홍 매화를 담채(淡彩; 가볍게 채색)로 처리한 게 섬세하며 또한 화사하다.

사군자 중에 매화는 봄을 상징하지만 폭풍한설의 추위를 무릅쓰고 가장 먼저 피어 춘신(春信) 즉 봄소식을 알리는 전령사였다. 그래서 춘선(春先)이라고도 한다. 또한 대나무는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곧게 뻗어서 싱싱한 푸른 잎을 자랑한다. 대나무는 한겨울에 독야청청(獨也靑靑) 푸르름을 간직한 소나무와 함께 꺾이지 않는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매·송·죽(梅松竹)은 시가나 문인화의 소재에 어김없이 등장하고, 문인의 필수품인 먹, 벼루 및 연적에도 송죽문을 새겼다. 또 선비의 절제미를 대표하는 청화백자에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조선 성종때 만든 흥치2년명(1489) 송죽문백자항아리는 보면 볼수록 청아하고 정정(亭亭)하기 이룰데 없다. 예전 산과 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장면이다. 북송대 유명한 시인 소식(蘇軾:1036~1101)의 찬문여가매석죽(贊文與可梅石竹) 시에 '매화는 차갑지만 빼어나고 대나무는 강마르지만 장수하고 수석은 못생겼지만 문채가 있으니, 이는 삼익(三益)의 벗이다' 라고 칭찬

하였다.

매화의 빼어남은 눈썹 '미(眉)'와 통하는 부분이 있다. 일찍이 제갈공명과 교분이 있던 마량(馬良)의 고사처럼 가장 뛰어난 것을 백미(白眉)라 하지 않던가. 또 '매(梅)'와 '미(眉)'는 중국에서는 독음이 같기 때문에 예부터 장수를 뜻하였으니 미수(眉壽)란 눈썹이 하얗게 된 노인을 가리켰고 이는 88세를 상징하는 미수(米壽)와도 의미가 통하였다. 흔히 매화는 사람의 심회를 투영시켜 감상한다. 그래서 완숙한 인생의 노년에 접어든 사람처럼 깊은 뿌리에 늙은 등걸과 가지를 품고 의연히 꽃을 피운 노매(老梅)가 강인한 생명력을 보이는 법이다.

에서 잠시 선현들이 읊은 멋진 매·송·죽 시문을 감상해 보자. 여말선초 문신이자 학자였던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이 이수보(李壽父)라는 사람의 뜰에 있는 매화·소나무·대나무를 보고 읊은 시다. 지면관계상 율시를 각각 반절만 적는다.

### 매(梅)

정원의 저 한 가지 매화를 보니 (庭院一枝梅)  
찬 눈을 무릅쓰고 살짝 피었네 (輕輕冒雪開)  
선달도 다 안 가서 봄 기운 돌고 (臘前春意動)  
달 아래 그윽이 향내 풍기네 (月下暗香來)

### 송(松)

겨울에도 마음은 지조가 있고 (歲寒心有操)  
그늘이 얇어도 뜻은 서늘해 (陰薄意猶涼)  
군자란 벗을 찾는 법이니 (君子求同氣)  
날마다 곁에 두어 마땅하겠지 (宜令日在傍)

### 죽(竹)

풍상에 꺾이어도 변하지 않고 (風霜摧不變)  
비 이슬에 씻기면 도로 싱싱해 (雨露洗還蘇)



김홍도 '노매도'

굳센 절개 갈수록 굳건하리니 (勁節應彌固)  
장차 너를 힘입길 내 바라노라 (將願賴爾扶)  
〈양촌선생문집(陽村先生文集)〉 제 3권, 시(詩)

다시 <매작도>를 보니 까치가 매화의 윗부분 등걸에 세 마리 앉아 노닐고 있다. 나머지 한 마리는 방금 왼쪽으로 날아 올랐다. 화면의 배치가 좌우상하로 비로소 완성되었다. 물상 뒤의 배경은 담묵(淡墨)으로 은은하게 처리하였고, 여백은 까치가 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남겨 놓았다. 까치가 상징하는 의미(寓意)는 기쁨이다. 온몸으로 혹한의 겨울을 견뎌낸 매화가지에 까치가 앉아 봄소식을 기쁘게 전하니 말이다. 이를 희보춘신(선)(喜報春信(先)이라 한다. 매화와 까치 그림에는 어김없이 이 화제(畫題)를 붙인다. 까치 대신 참새(雀)를 그리기도 한다. 세밀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또 간다. 늘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되는 지점이다. 우리 선조들은 선달 그림이 되면 까치의 봄소식을 기다리며 새해의 희망을 마음 속에 담아 두곤 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김홍도의 세화(歲畵) <매작도>를 감상하시고 다가 올 새해에는 더욱 더 좋은 일을 이루시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 천년 한지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전주한지문화원

임권택 감독의 101번째 영화로 더욱 화제가 됐던 영화 ‘달빛 길어 올리기’는 천년 세월이 지나도 삭지 않고 썩지도 않는다는 ‘천년 한지’인 전주한지의 아름다움과 제작과정을 담아낸 영화이다. 특히 깊은 산, 맑은 물 속에 뜬 달빛을 길어올려 한지를 만드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아름답다 못해 신비롭기까지 하다. 이렇듯 거장의 작품 속에서 되살아난 전주한지의 매력을 이제는 부산에서도 만날 수 있다.

지난해 10월 18일 개원한 전주한지문화원은 국내 최고의 한지 공예작가들의 작품 전시에서부터 한지공예 체험, 문화강좌, 다양한 한지제품 판매까지 ‘한지’를 테마로 한 이색 문화공간이다. 오랫동안 교직생활을 했던 박경완 씨가 지난해 초 우연히 한지의 매력에 빠지면서 전주한지문화원이 탄생했다. 전주한지문화원 개원에는 박경완 원장의 오랜 지인이자 다양한 한지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주)엘리안스코리아 이재식 대표의 도움이 컸다.

전주한지문화원은 지하철 1호선 장전동역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 커다란 나비 조형물로 장식된 독특한 외관의 건물부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지문화원이 자리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은은한 한지 등불이 길을 밝히면서 방문객을 반갑게 맞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양한 한지작품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국내 최고의 한지작가들의 작품들에서부터 일반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한지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켠에 마련된 체험실에서는 닥종이인형 공예가인 류귀화 씨의 닥종이인형 강습이 한창이다. 개원 후 매주 수업이 있는 금요일이면 대구에서 내려온다는 류귀화 씨는 장거리를 오가야 하는 불편함에도 고향인 부산에 한지문화원이 생겼다는 사실이 그저 반갑기만 하다.

전주한지문화원에서는 류귀화 씨의 닥종이인형 강습 외에도 매







주 목요일에는 한지공예작가 위선옥 씨가 진행하는 한지공예 강습이 열리고 있다. 겨울방학을 맞아 1월부터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방학특강 수업도 계획중이다. 한지를 직접 찢어부쳐 만드는 한지 고무신과 손거울, 사진틀, 한지등 등 다양한 공예작품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에 우리 한지의 아름다움을 전해줄 예정이다.

2월부터는 한지와 대나무를 이용해 우리 전통등을 복원하고 재현하는데 앞장서온 한지공예가 전영일 씨가 진행하는 한지등 강습이 예정되어 있다. 홍익대학교 조소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8년부터 전통등과 인연을 맺어온 전영일 씨는 2003년 원주한지문화제 초대전, 2005년 프랑스 파리 한지문화제 초대전, 2006년 필룩스와 함께 하는 우리전통등전 등을 통해 우리 전통등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등 작가이다. 강습과 함께 그의 작품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초대전도 준비하고 있다.

개관기념전으로 한지 수묵화작가인 평산 이재승 선생의 초대전을 가진 전주한지문화원에서는 앞으로 부산에서 접하기 힘든 한지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전시공간을 필요로 하는 부산의 지역작가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문을 열 계획이다.

전주한지문화원에서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 다양한 인문학강좌도 열어오고 있다.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 저자인 홍세화 씨와 재야운동가 백기완 씨가 이 곳을 다녀갔으며, 각 분야의 저명인사들을 초청해 지역 문화사랑방으로서의 역할도 다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주한지, 전주의 홍보대사로 발벗고 나서는 전주한지문화원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



국내 최고의 한지공예작가들의 작품 전시에서부터 한지공예체험, 문화강좌, 다양한 한지제품 판매까지 한지를 테마로 한 이색 문화공간 전주한지문화원.



다양한 한지공예 체험교실을 열고있는 전주한지문화원은 겨울방학을 맞아 1월 부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하는 어린이 방학특강 수업을 계획중이다.

● 문의 | 전주한지문화원(582-7595, [cafe.naver.com/soragallery](http://cafe.naver.com/soragallery))

꿈과 희망을 연주한다 '부산의 엘 시스테마'

## 우리가 만드는 오케스트라

마약과 총기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1970년대 베네주엘라 카라카스의 빈민가.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이 곳에 음악을 통한 작은 기적이 싹텄다. 2008년 영화로도 개봉되어 큰 화제를 낳았던 기적의 오케스트라 '엘 시스테마'가 바로 그것. 영어로 '시스템(Sistem)'이라는 뜻의 '엘 시스테마(El Sistema)'는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무상으로 악기를 제공하고 음악을 가르쳐주는 베네주엘라의 예술교육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로, 당시 총 대신 악기를 들고 난생 처음 음악을 연주하던 11명의 소년들이 30년이 지난 지금 30여만 명으로 늘면서 현재는 120여개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활동하고 있다. '엘 시스테마'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차세대 최고의 지휘자로 지목해 화제가 된 젊은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과 17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이 된 에디슨 루이즈 등 촉망받는 젊은 음악가들을 배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화개봉과 더불어 2년 전부터 '엘 시스테마'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각 지역별로 '엘 시스테마'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부터 부산에서도 '엘 시스테마'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12월 27일 작은 결실을 맺었다. 바로 부산의 엘 시스테마 '우리가 만드는 오케스트라' 첫 발표회가 열린 것. 60여명 어린이들이 빚어내는 꿈과 희망의 선율이 공연장인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 울려 퍼졌다.

사하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로 결성된 '우리가 만드는 오케스트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진행하는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문화재단과 (사)인코리안 오케스트라, 을숙도문화회관이 함께 지원했다. 기본적인 음악이론교육으로 진행되었던 2010년과 달리 2011년에는 어린이들에게 각자 악기를 배정, 5월부터 본격적인 합주연습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만드는 오케스트라'가 탄생되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타악기 등 다섯 개 파트로 나뉘어 매주 토요일, 격주 수요일마다 을숙도문화회관에 모여 연습시간을 가져온 단원들은 8개월이 지난 지금은 능숙하지는 않지만 오케스트라로서 제법 화음을 맞춰가고 있다.





‘부산의 엘 시스템아’ 우리가 만드는 오케스트라는 지난 2년간의 음악수업을 거쳐 12월 27일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첫 발표회를 가졌다.

‘우리가 만드는 오케스트라’ 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바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 처음 악기를 잡아보는 아이들이 악기소리를 내고 화음을 맞추기까지 그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 이제는 ‘음악’ 이라는 공통분모로 꿈과 희망을 함께 연주한다.

‘우리가 만드는 오케스트라’ 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정지은(광남초등 5년). 요즘 바이올린 연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는 지은이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사귀 친구들과 어울려 연주하는 시간이 즐겁기만 하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비올라를 연주하는 진아와 듀 오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많은 연습을 했다.

‘우리가 만드는 오케스트라’ 에 참여하면서 플루트를 처음 배웠다는 정희정(낙동초등 6년).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여럿이 함께 어우러져 화음을 낸다는게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중요한지를 알게됐다는 희정이는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내년부터 오케스트라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기만 하다. 취미라도 계속 플루트를 불고 싶다는 희정이는 이번 발표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플루트 5중주를 연주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엘 시스템아가 자리잡기까지는 30여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음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꿈과 희망을 연주하는 ‘부산의 엘 시스템아’ 우리가 만드는 오케스트라는 2012년 새로운 비상을 꿈꾼다.



# 첼로로 부르는 노래 장한나 첼로 독주회

신설령\_음악평론가



성숙한 음악가로 우리 앞에 나타난 장한나는 이제는 과도한 몸짓대신 절제함으로 깊은 감성을 들려주었다.

한해가 끝날 무렵인 12월 12일 무대에 오른 장한나의 첫 연주곡은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였다. 이번 연주회의 주제가 ‘첼로로 부르는 노래’인 만큼 주제에 가장 적합한 곡으로 첼로는 노래를 시작하였다. 가사가 없음으로 인해 오히려 청중의 수만 큼이나 무수한 노래들이 첼로의 깊고 풍성한 소리를 타고 흘러 넘치는 듯한 첫 곡이었다. 장한나 그녀는 성숙한 음악가로 우리 앞에 나타나 이제는 과도한 몸짓 대신 절제함으로, 그러나 깊은 감성으로 〈보칼리제〉를 노래하였다.

두 번째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소나타. 이제는 기악에 부여된 음 언어로 소나타라는 장르를 노래한다. 라흐마니노프는 첼로 소리에 긴 음가의 음표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한없이 서정적인 노래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피닌 콜린스가 연주하는 피아노는 음악 속에 조화롭게 스며들어 아름다운 앙상블을 이루고 있다.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의 첼로 연주자를 위한 배려가 특히 돋보인다. 적절한 음량 조절로 첼로가 마음껏 노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빠른 템포의 화려한 2악장이 지나가고 안단테로 연주되는 3악장에 이르자 피아노가 부르는 노래에 첼로는 때로는 깊은 울림으로 계속 저음으로 받쳐주

듯, 때로는 대위선율로 노래하듯 하여 그렇게 둘은 하모니를 이루어 나갔다. 그런데 3악장을 끝맺는 마지막 네 개의 음을 첼로는 어찌면 그렇게 깊은 의미를 담아 노래할 수 있었을까. 첼로로 부르는 완벽한 노래였다.

다음은 다시 가곡이다. 마누엘 데 파야의 〈7개의 스페인 가곡〉. 프로그램에는 〈무어인의 의상〉, 〈자장가〉 등 7개 곡의 제목이 나와 있지만, 연주가 시작되고 객석에 불이 꺼지면 청중은 연주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때 스크린에 연주 곡목을 볼 수 있게 해주면 음악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마지막 순서는 피아졸라의 〈그랜드 탱고〉이다. 20세기가 되자 유럽이 주변부라고 불렀던 나라들의 음악적 요소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 대륙으로부터 또 다른 대륙으로 음악은 옮겨지고, 그렇게 하여 음악은 서로 섞이고 변형되었다. 아르헨티나의 피아졸라 또한 그의 음악에 탱고도, 재즈도, 클래식 음악적 요소도 섞어 넣으며 새로운 음악을 탄생시켰다. 아주 오래전 음악과 언어와 춤이 하나였듯이 그렇게 그녀는 에너지 넘치는 피아노 리듬에 맞춰 첼로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춘다.

앙코르 곡 중 가브리엘 포레의 〈꿈을 꾸 후에〉는 장한나가 얘기하는 그날의 스토리가 있었다. 포레의 곡은 20년 가까이 장한나의 팬이었던, 그래서 유럽 연주에 자주 팬으로서 참석했던 첼리스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연주 당일 듣고 그분을 추억하면서 하는 연주였다. 친구를 향한 소중함과 애뜻함을 담은 연주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 “음악은 악보를 꺼내는 것처럼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꺼내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장한나 그녀는 마음에서 끄집어 낸 음악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 미션 임파서블, 독립영화 파서블

김희진\_영화감독

최근 두바이에서 개최된 국제영화제에 부산에서 만들어진 장편 독립영화 <미스진은 예쁘다>가 초청받아 상영되었다. 두바이에는 최근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4>의 주인공인 톰 크루즈도 영화제에 참석했다고 한다. 부르즈 칼리파에서의 촬영으로 두바이와의 인연을 가진 톰 크루즈가 영화 홍보를 겸하여 영화제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임파서블한 미션을 가능하게 하는 영화와 파서블한 희망을 좇는 변방의 독립영화의 만남이 두바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 쪽의 미션은 전 세계적인 흥행 성공이고 또 다른 쪽의 미션은 수상이나 언론의 주목을 통해 국내 개봉 가능성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저예산 영화의 형태로 15편의 영화를 만들고 최근 자신의 조감독들을 데뷔시키기 위해 제작을 지원한 작품들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인간적인 결별을 경험한 김기덕 감독은 독립영화의 제작 형태로 작품을 만들어왔지만 대중성과 상업성을 꿈꾼 자신의 의지로 인해 진정한 독립영화 감독으로는 평가받지 못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가 최근 영화제를 통해서만 선보인 자전적인 영화 <아리랑>은 그의 이력에서 가장 순수한 독립영화가 되었다. 혼자서 촬영과 편집, 출연까지 모든 제작을 일인체제로 진행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 이 작품은 개인적으로 그의 영화 중 최고의 미덕을 보인 작품으로 평가하고 싶다. 임파서블한 환경을 파서블하게 꿈꾸던 그가 파서블이 만드는 임파서블한 상황에 빠져 스스로 허우적대는 모습을 공개한 이 작품은 자기반영적 영화들이 도달해야 할 궁극의 지점을 잘 보여준다. 영화 속에서 그는 신세를 한탄하는 김기덕과 그를 책망하는 김기덕, 그리고 그 둘을 관찰하는 김기덕으로 분신을 꾀하여 일인영화지만 다이내믹한 구성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분신은 현실적으론 임파서블한 것이지만 영화라는 매체를 통하면 파서블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독립영화가 꿈꾸는 파서블한 꿈은 영화 매체의 내적인 방식을 통해서 출발할 때부터 임파서블

을 뛰어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만나는 순간이다.

<워낭소리>로 독립영화 흥행 신화를 만들어낸 독립영화 배급사 인디스토리도 그 놀라웠던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금 순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성과를 독립영화 환경으로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수익금 대부분을 재투자 한 부분도 있지만 단기성 스타 영화가 독립영화 환경 전체를 바꾸지 못한다는 교훈을 확인해 준 결과이기도 하다. 사실 독립영화의 배급 환경에 있어 자본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작품은 순수한 독립영화 느낌만으론 임파서블하다. 포르노그래피 산업의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독립영화의 배급에 있어서도 효자라 불릴 만한 작품들은 일정한 도색의 뉘앙스가 묻어있는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살결>, <원나잇 스탠드>, <에일리언 비키니> 등 일단 제목에서 야함이 묻어나는 작품들은 어느 정도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정한 수익을 창출해주어서 기본 운영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작품의 필요는 독립영화 배급 회사가 편하게 말하진 못하지만 어찌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과제이다.

부산영화 <미스진은 예쁘다>가 두바이에선 그럴듯한 성과를 내진 못했다. 그리고 국내 개봉도 아직 막연하다. 그렇지만 영화가 재미없진 않다. 잔잔한 웃음과 흐뭇한 인정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단지 우리의 현실이 임파서블을 만들고 있을 뿐인 것이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몇몇 불법 사이트에 같은 제목의 파일이 떠돌고 있다고 한다. 물론 동일한 영화는 아니다. 단지 제목이 뭔가 야한 면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낚시질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이게 임파서블을 파서블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톰 크루즈도 꿈꾸지 못하는 우리만의 방식, 그것이 독립영화가 세상을 만나 나가는 방식일 수 있다. 미션은 아직 완료되지 못했지만 우리의 독립요원들은 오늘도 정부의 무관심 아래 특수한 장비가 제공되지 않아도 때로는 분신술로, 때로는 가장술로 질기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Program

##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질은 음반 발매 기념 전국 투어콘서트 '백야' 1월 8일 일요일 오후 6:00 >>> 소극장



2011년 하늘아래 그 콘서트에 초대되어 부산을 찾은 바 있는 감성 모던록의 정수 '질은'의 '백야'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

2008년 1월 파스텔뮤직 5주년 기념음반에 '결에'를 수록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질은은 2010년 6월 EP <Wonderland> 발표 이후 1년 5개월 만에 미니 음반 '백야'를 발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소극장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밴드 편성과 편곡으로 따뜻한 무대를 연다.

2010년 6월 EP <Wonderland> 발표 이후 1년 5개월 만에 미니 음반 '백야'를 발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소극장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밴드 편성과 편곡으로 따뜻한 무대를 연다.

::관람료 균일 33,000원

::문의 파스텔뮤직(070-8630-6648)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6회 정기연주회 및 '2012 신년음악회'

1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리 신차오 양욱진 김가영

2011년 제야음악회로 한해를 마무리하며 신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안겨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선사하는 2012년 첫 무대 제 476회 정기연주회 및 '2012 신년음악회'.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는 2012년 신년음악회는 전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으로 활동한 인제대학교 양욱진 교수와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김가영, 마스터클래스 강사로 초청되는 호른 연주자 만이(Man Yi)가 화려하고 밝은 춤사위가 연상되는 발레 음악을 들려준다.

중국 중앙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자를란트 음대에 재학 중인 호른 연주자 만이는 베이징에서 열린 2004년

중국국립프렌치호른콩쿠르 영재아티스트상, 2007년 중국국립프렌치호른콩쿠르 1위를 수상한 실력파로 호른의 풍부함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 '잠자는 숲속의 미녀' 모음곡 중 프로코피에프/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중 아당/ '지젤' 중 '그랑 파 드 되'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1919년판)

· 지휘/리 신차오(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첼로/양욱진(인제대학교 교수)

· 비올라/김가영(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소년소녀 가장돕기 자선음악회 제 12회 사랑과 감사의 콘서트

1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 중극장



창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소프라노 김유섬 교수와 소프라노 엄남이(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조윤정(호산나 찬양대원), 한수진(창원시립합창단 단원), 백혜정(창원시립진해합창단원), 테너 조준제, 소프라노 조아연(창원대학교 대학원 재학), 김소현(창원대학교 대학원 재학), 바리톤 김진영(창원대학교 재학), 소프라노 정수정(창원대학교 재학) 등 제자들이 함께 마련하는 제 12회 소년소녀 가장 돕기 사랑과 감사의 콘서트.

#### ::프로그램

이현철/산유화

슈트라우스/봄의 소리 왈츠

베르디/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 '그러한 사랑', 오페라 '리골레토' 중 '그리운 사람의 이름은'

김성태/동심초

모차르트/오페라 '휘가로이 결혼' 중 '더이상 날지 못하리' 등 수곡

::관람료 균일 5,000원

::문의 조윤정(010-4353-6634)

### 드니 성호 왈츠 사이로- 여행자의 일기 1월 14일 토요일 오후 7:00 >>> 중극장



한국계 벨기에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안센스의 '왈츠 사이로' 부산 연주회.

8세에 기타를 시작, 14세에 벨기에 Jeunes Talents(Young Talent) 콩쿠르 1위에 입상하며 두각을 보인 드니 성호 안센스는 독일 Köler Stadt Anzeiger로부터 '결출한 연주', 프랑스 Les Cahiers de la Guitare로부터 '영감을 주는 연주'라는 찬사를 받으며 2004년 유럽 콘서트홀 협회(ECHO)로부터 '떠오르는 스타'로 선정되어 2005년 뉴욕 카네기홀 데뷔 무대를 가진 바 있다.

드니 성호는 이번 무대에서 자신의 삶의 사진첩 같은 쇼팽, 바리오스 왈츠와 본인의 작품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쇼팽/Valse postume

엘베니즈/Asturias

바리오스/Valse 제3번

메르츠/Hungarian Fantasy

쇼팽/Valse 작품69

줄리아니/Rossiniana 제 1번

히나스테라/소나타 작품 47 등 수곡

::관람료 VIP석 80,000원 · R석 60,000원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문의 Sens management(02-749-8821)

**(사)은하수 청소년오케스트라  
제 6회 정기연주회**

1월 15일 일요일 오후 6:30 >>> 대극장

제6회 은하수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Love N Peace  
CONCERTO**



2006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매년 정기연주회, 지역순회연주회를 열어온 은하수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천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은하수 청소년오케스트라

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유일한 청소년오케스트라로 인근 지역 행사에도 적극 참여 해왔다.

**::프로그램**

- 베토벤/운명 1악장
- 차이코프스키/명곡 메들리
- 쇼스타코비치/왈츠 2번
- 멘델스존/웨딩마치
- 브루흐/바이올린 협주곡 1번 3악장 등 수곡
- 감독/하외란 · 단장/이순성
- 지휘/박성준 · 협연/박지유

**::관람료 무료**

**::문의** 은하수 청소년오케스트라  
(010-7173-0131, 010-3414-3502)

**부산시립무용단 2012년 우리춤 산책**

1월 18-19일 수-목요일 오후 7:30 >>> 소극장



진주검무

신명이 살아있는 흥겨운 춤사위로 부산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부산시립무용단 2012년 첫 무대 '우리춤 산책'.

평소 강습을 통해 우리춤의 기량을 갈고 닦아온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의 빼어난 춤사위를 만날 수 있는 '우리춤 산책'은 정기공연 무대에서 만날 수 없었던 단원들의 진지함,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무대이다. 올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39호 처용무를 비롯해 제 27호 이매방류 승무, 제 12호 진주검무, 제 7호 고성오광대 중 2과장 말뚝이춤, 제 97호 살풀이춤 등 중요무형문화재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 21호 진주교방굿거리춤, 도살푸리, 장고춤 등 한국 춤의 정수를 골고루 맛볼 수 있다.

**::공연일정**

- 1월 18일
- 처용무(춤/강모세)
- 이매방류 승무(춤/안주희, 뒷장고/김주연)
- 도살푸리(춤/이정인)
- 장고춤(춤/황선희, 김동숙, 강미향)
- 한영숙류 태평무(춤/서현미)
- 진주검무(춤/이현주)
- 고성오광대 말뚝이춤(춤/허태성, 황동하, 악사-상쇠/김동수, 북/이동근, 장구/김은정, 징/장영진, 태평소/윤현호)

- 1월 19일
- 춘앵무(춤/이화성)
- 강선영류 태평무(춤/류권홍)
- 진주교방굿거리춤(춤/김주령)
- 산조춤(춤/윤은하)
- 진주검무(춤/이상민, 박은혜, 김도은, 김시현)
- 이매방류 살풀이춤(춤/장래훈)
- 한영숙류 태평무(춤/이현주)
- 소고놀이(춤/김진영 · 악사(남산놀이마당)-상쇠/장재희, 장고/설영성, 북/류제철, 징/방형웅, 태평소/김현일)

**::관람료** 균일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제 1129회 MBC 목요일음악회  
효원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하는 신년음악회  
'내 생애 꼭 감상해야 할 퓨전국악콘서트'**

1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 중극장



2012년 목요일음악회 첫 무대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효원국악관현악단이 들려주는 신년음악회 '내 생애 꼭 감상해야 할 퓨전국악콘서트'.

2000년 3월 창단된 젊은 국악연주단 '효원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100여 차례가 넘는 다양한 연주활동을 통해 실험적이고 대중적인 연주를 전개해 왔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동래구국악관현악단에서 지휘자로 활동 중인 홍희철이 지휘한다.

**::프로그램**

- 국악관현악 '연'
- 바리톤과 국악관현악 '박타령'
- 국악관현악으로 듣는 '거위의 꿈', '인연'
- 국악관현악 '멋으로 사는 세상'
- 국악관현악 '광야의 숨결'
- 기타와 해금을 위한 이중주 등 수곡
- 지휘/홍희철
- 출연/바리톤 김창돈, 보컬 최재은, 민요 이나영, 태평소 신선영, 기타 고충진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효원국악관현악단(010-2884-6418)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설맞이 국악한마당'**

1월 23일 월요일 오후 5:00 >>> 중극장



임진년(壬辰年) 새해 우리 민족 최고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들려주는 '설맞이 국악한마당'.

1년을 준비하는 깨끗하고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무병장

수와 풍요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설맞이 국악한마당'은 모든 만물이 하나 되는 和의 세계를 추구하는 '해령(解令)'을 시작으로 마려무용단, 우리소리 예술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박성희, 정선희가 歌·舞·樂이 어우러지는 풍성한 설맞이 국악한마당을 열어준다.

**::프로그램**

관악합주 '해령' (집박/유경조)

무용 '승무'

현악합주 '출강'

무용 '부채춤'

흥겨운 민요 한마당

판굿

- 집박/유경조(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 사회/김지현(TBN 부산교통방송 아나운서)
- 협연/마려무용단(단장 김갑용), 박성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정선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우리소리 예술단(대표 박시영)

**::관람료 초대**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4)**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 25 하와이**  
1월 27일 금요일 오후 8:00 >>> 소극장



새로운 콘서트 문화를 열어온 부산문화회관 하늘 아래 그 콘서트 2012년 첫 주인공 하와이의 부산 공연. 밴드 스웨터의 보컬이자 '열두 폭 병풍'이라는 고운 이름의 프로젝트로 3장의 앨범을 낸 이아립과 밴드 아서라이그의 보컬이자 집시swing 밴드 집시앤피쉬오케스트라의 기타리스트 이호석으로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 하와이는 2010년 9월 처음 만나 겨울 내내 곡을 만들고 주고 받으며 2011년 4월 한 장의 앨범을 완성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면 기타를 무척 좋아한다는 것,

'가장 가고 싶은 곳'을 떠올렸을 때 동시에 '하와이'를 외쳤다는 두 사람은 1월, 부산에서 일상을 여행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노래들을 들려줄 계획이다.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2012 제 7회 부산국제음악제  
(Busan Music Festival-BMF)**

2월 2일(목)-9일(목)

>>> 부산문화회관, 신세계문화홀, 파라다이스 호텔



음악 비수기인 겨울,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실내악 연주로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부산국제음악제 (Busan Music Festival-BMF) 2012년 무대.

각 악기별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패기와 열정, 관록과 여유가 묻어나는 부산국제음악제(음악감독/백혜선)는 2005년 부산아트매니지먼트가 민간 주도로 창설한 명품음악축제이다. '클래식 음악의 빛, 그리고 감동'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제 7회 부산국제음악제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부문의 국내외 명연주자 15인과 보로메오 콰르텟,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등 100여명의 음악가가 참가, 2월 2일부터 9일까지 7개의 음악회와 마스터 클래스, 전공 학생들을 위한 뮤직아카데미가 진행된다.

**::축제음악회 일정**

■2월 2일(목) 개막연주회 보로메오 콰르텟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989년 창단된 보로메오 4중주단은 오늘날 가장 저돌적이고 대담한 4중주단의 하나로서 음악성, 지성, 테크닉을 겸비한 세계적으로 드문 현악 4중주단으로 칭송받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현악4중주 '라주모프스키'

슈베르트/현악4중주 '죽음과 소녀' 등 수곡

· 연주/1st Violin-니콜라스 키첸, 2nd Violin-크리스토퍼 탕, Viola- 마이 모토부치, Cello- 김이선

■2월 3일(금) 명품 협주곡 with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오충근 신연황 김정권

부산국제음악제 초청연주자와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지휘/오충근)의 무대.

감각적이고 신들린 연주를 들려주는 대만 출신의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신연황과 '기억에 오래남을 연주'하는 사려깊은 피아니즘'이란 평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김정권이 부산시민들에게 처음으로 선사하는 오케스트라 협연무대이다.

**::프로그램**

바르톡/비올라협주곡

베토벤/피아노와 합창, 오케스트라를 위한 '코랄탄타지'

■2월 4일(토)~5일(일) 갈라 콘서트 >>> 신세계문화홀  
피아니스트 백혜선, 바이올리니스트 고이치로 하라다, 백주영, 김동욱, 비올리스트 신연황, 첼리스트 피터 와일리 등 국내외 명연주자들이 함께하는 갈라 콘서트.

■2월 7일(화) 가족음악회 거장의 실내악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초청연주자들이 한자리에서 모차르트 현악4중주, 멘델스존 현악 8중주 등을 연주한다.

■2월 8일(수) 세르게이 바바얀 피아노독주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1년 제 6회 부산국제음악제에 이어 다시 부산을 찾은 거장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바바얀이 마르타 아르게리히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은 '골드베르크변주곡'을 들려준다.

■ 2월 9일(목) 폐막연주회-화합과 나눔의 음악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국제음악제에 참가한 아티스트와 학생들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과 나눔의 무대로 바이올린 오케스트라 연주와 브람스 피아노 3중주, 드볼작의 피아노5중주 등을 들려준다.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0-5833, www.busanarts.com)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 26 아마도이자람밴드**

2월 3일 금요일 오후 8:00 >>> 소극장



부산문화회관 하늘아래 그 콘서트 26번째 주인공 '아마도이자람밴드' 부산 공연.

실력 있는 소리꾼 이자람(보컬, 기타)을 비롯해 장기하와 얼굴들의 기타리스트 이민기(기타), 연극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베이스스트 병성(베이스), 젊은 전통타 연주자 이향아(퍼커션), 곰(드럼) 등 5인으로 결성된 '아마도이자람밴드'는 2003년 창단 이후 본업을 병행하며 흥대 앞 인근 클럽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결성 6년 만에 발표한 첫 싱글 앨범 '슬픈 노래'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풋풋한 느낌의 연주와 이자람의 담백하면서 긴 울림이 있는 노래로 사랑받고 있다.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이현미 무용단 공연**

1월 7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을 역임하고 전통춤과 창작춤을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이현미가 이끄는 이현미 무용단의 전통춤 무대.

**프로그램**

:: 한영숙류 태평무(춤/김연희,

이현미, 이미란)

:: 강태홍류 산조춤(춤/김연희)

:: 지전춤(춤/조영선)

:: 장고춤(춤/이현미)

:: 부채춤(춤/이영숙)

:: 입춤(춤/정연태)

:: 진주교방춤(춤/조영선, 김연희, 이현미, 이영숙)

/김민정, 최윤정, 박은희·아쟁/권혜정, 홍영혜·장구/이장우·좌고/박재현)

:: 신쾌동 류 거문고 산조(거문고/이유진·장구/송강수)

:: 판소리(판소리/박성희·고수/송강수)

:: 시나위(대금/채수만·피리/진형준·해금/방병원·아쟁/박 일·가야금/정미자·거문고/오상훈·장구/송강수·징/김명진)

:: 사물놀이(꽝과리/이주현·장구/전학수·징/최오성·북/박재현)

※ 해설/백규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연주회**

1월 28일 토요일 오후 4:00 중극장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수석지휘자 이동신의 지휘·해설로 2012년 첫 연주일정을 시작한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 엘가/사랑의 인사 작품 12

:: 로시니/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서곡

:: 마스카니/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 프로코피에프/교향곡 제 1번 라장조 작품 25 '고전'

:: 슈트라우스/라데츠키 행진곡 작품 228

※ 지휘, 해설/이동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월 14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함녕지곡, 거문고산조, 판소리 등으로 2012년 첫

토요상설무대를 연다.

**프로그램**

:: 함녕지곡(집박/유경조, 소금: 조은경·대금/김수일, 이만형, 엄익준·피리/김용우, 권미정, 최요셉, 해금

**2012년 토요상설무대 공연시간 변경안내**

2012년 1월부터 부산문화회관 토요상설무대공연시간이 오후 5:30에서 오후 4:00으로 변경운영됩니다.

■ 무료(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부산문화회관(607-6056)

### MUSIC

####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4일 부산반주음악연구소 신년음악회

반주음악 전반에 대한 연구 활동과 전문적인 반주자 양성을 위해 설립된 부산반주음악연구소 신년음악회.

- 연주/김수희, 백홍향, 강지원, 김효성(피아노), 윤주연 (바이올린), 김기량(첼로), 박영희, 김동희, 김옥 (소프라노), 조동훈, 우원석(테너), 조성빈(바리톤)

#### ▶11일 9인의 첼리스트



첼리스트 김기도, 김혜영, 박정렬, 박준현, 양욱진, 전지윤, 최지혜, 하유나, 한혜련 등 9명의 첼리스트가 들려주는 앙상블의 무대.

:: 프로그램

- 바흐/관현악 모음곡 제 3번 'Air'
- 하이든/첼로협주곡 라장조 등

#### ▶18일 배수정 피아노 클래스 '꿈과 희망, 도약을 위하여'

피아니스트 배수정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래스음악회.

- 연주/김민정, 강재동, 권수진, 김현수, 양금화, 전예진

#### ▶Busan Brass Quintet 제 2회 정기연주회

지난 2010년 박경렬(트럼펫), 김용수(트럼펫), 박용인(혼), 이용우(트롬본), 김기울(튜바) 등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Busan Brass Quintet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 아트카페 움 목요일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8:00(26일 공연없음) >>> 아트카페 움

#### ▶5일 2012년 신년음악회

바이올리니스트 이승재, 정운봉, 첼리스트 김석근, 비올리스트 성정인의 앙상블로 들려주는 신년음악회.

#### ▶12일 석유경 피아노 리사이틀

연세대학교 기악과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석유경 독주회.

#### ▶19일 김용우 피리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퓨전국악실내악단 '마루' 대표, 대한민국 피리연구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피리주자 김용우의 무대.

:: 관람료 무료

:: 문의 아트카페 움 (557-3369)

####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 ▶7일 프로그램

향발무, 기악중주 '침향무(황병기 곡)', 동부민요, 태평무, 기악독주, 동래학춤, 국악관현악 '남도민요연곡', 국악관현악 '설장구협주곡 모리(이경섭 곡)'

#### ▶14일 프로그램

대취타, 진주교방굿거리춤, 경기민요, 살풀이, 국악관현악 '아리랑(최성환 곡)', 시조, 부채춤, 사물놀이와 비나리

#### ▶21일 프로그램

삼고무, 판소리, 산조춤, 국악실내악 '아침을 두드리는 소리(강상구 곡)', 국악실내악 '아랑의 꿈', 한량춤, 가야금병창, 타악합주와 소리울림

#### ▶28일 부산예술단 공연

1994년 창단 후 정기공연을 비롯해 야외상설공연, 소

외계층을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부산예술단이 신명나는 국악한마당을 펼친다.

:: 관람료 균일 8,000원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아르헨티나로의 탱고 여행

1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풍부한 음악성과 관객을 사로잡는 대범한 연주로 호평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독주회.

연세대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석사), 에센 국립음대(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카메라타부산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정은 이번 무대에서 탱고를 주제로 무한한 열정과 넘치는 끼로 관객과 만난다.

:: 프로그램

- 피아졸라/리베로탱고, 오빌리언 카를로스 가르텔/Por Una Cabeza(간발의 차) 피아졸라/탱고의 역사 등 수곡
- 피아노/박필은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제 64회 한낮의 유; 콘서트 금난새와 함께하는 해설음악회

1월 17일 화요일 오전 1:00 >>> 부산롯데호텔 아트홀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해설로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청중과 호흡해온 지휘자 금난새와 유; 라시안 챔버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바장조 K.138  
비발디/‘사계’ 중 ‘여름’ 사단조 작품 8-2  
치마로사/오보에 협주곡 다장조  
모차르트/교향곡 제 40번 사단조 K.55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국제신문사(500-5222)

**제 21회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정기연주회**

1월 18일 수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성음악교육을 통해 성음악가를 양성하는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정규과정 졸업생들이 마련하는 정기연주회.

**::관람료** 무료

**::문의**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510-0676)

**하내희와 함께하는 첼로 앙상블**

1월 21일 토요일 오후 6:00 >>> **글로벌아트홀**

첼리스트 하내희와 그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첼로 앙상블 무대.

**::관람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부산시민과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제 49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1월 29일 일요일 오후 3:00 >>>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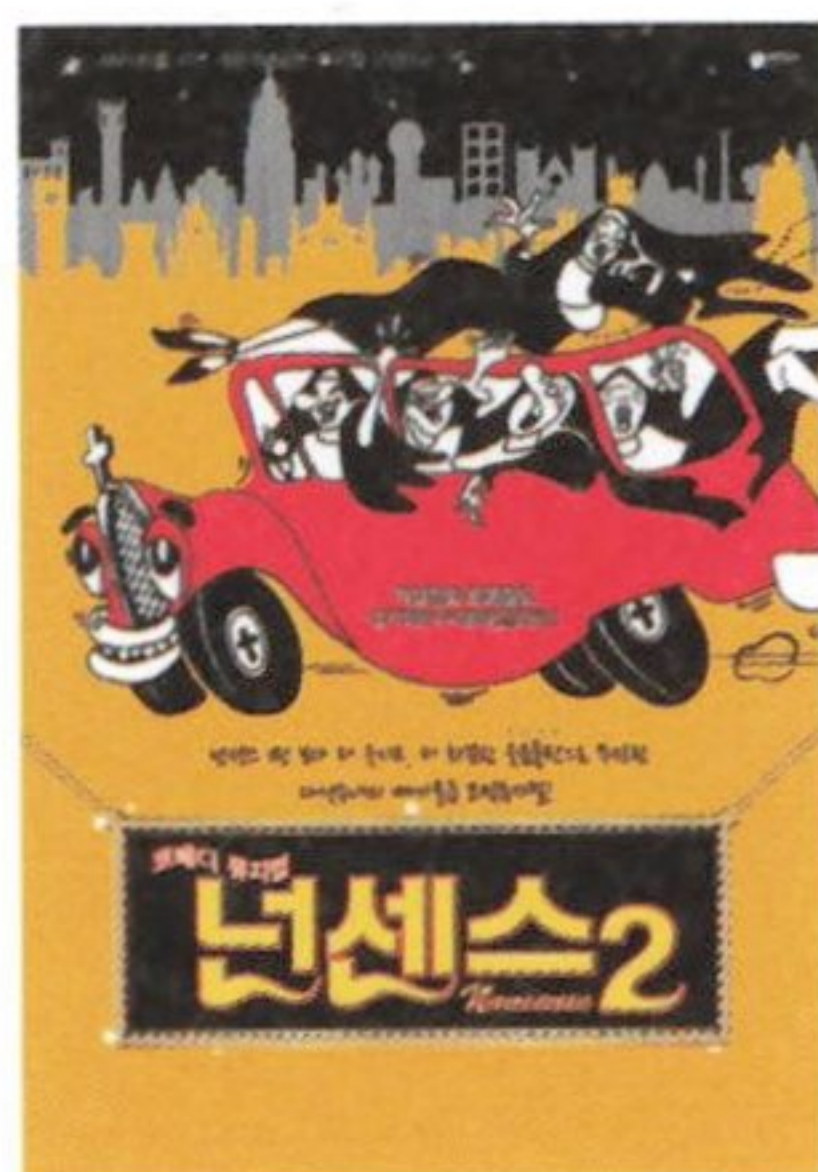
**::관람료** 자율(이웃돕기 성금)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PLAY

**2011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8월 19일(금)-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AN아트홀 서면**



자선쇼를 준비하는 못말리는 다섯 수녀들의 화끈한 춤과 노래, 코믹한 연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관람료** R석 45,000원  
S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연극 '그남자 그여자'**

10월 13일(목)-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  
(1/22일, 1/24일 오후 3:00, 1/23일 오후 6:00 공연, 1/25일, 화요일 공연없음) >>> **초콜릿 팩토리**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남녀의 만남에서부터 사랑, 이별, 재회를 그린 감성연극.

·출연/허동원, 이도경, 박민우, 김아영, 김태범 외

**::관람료** 균일 25,000원

**::문의** 초콜릿팩토리(621-4005)

**윤형빈쇼 with friend**

11월 5일(토)-OPEN RUN 매주 토-일요일 오후 3:00, 5:00, 7:00 >>> **윤형빈 소극장**

부산 최초의 개그전용관인 '윤형빈 소극장'에서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개그쇼.

개그맨 '왕비호' 윤형빈과 '감수성 내시' 김영민이 밴드공연과 개그를 접목한 뮤지컬 개그 퍼포먼스를 펼친다.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윤형빈소극장(610-1003)

**로맨틱 코믹극 '오직, 사랑'**

2011년 11월 25일(금)-2012년 1월 1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월요일 공연없음) >>> **에저또소극장**

가까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멀리 떨어져보면 알게 되는 미성숙한 성인남녀의 코믹 로맨스극 '오직, 사랑'.

·원작/머레이 쉬즈갈 ·연출/최재민

·출연/최재민, 이지훈, 김지연

**::관람료** 균일 25,000원

**::문의** 미니티켓(1600-1716)

**콘서트 뮤지컬 '배달왔습니다'**

2011년 12월 2일(금)-2012년 1월 8일(수)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 **디코소극장**



YAMAHA · KAWAI · STEINWAY  
PIANO DIRECT IMPORT  
TUNNING & REPAIRING

PIANO TECHNICIAN  
**CHO, HYUN SEOK** R.P.T.

INTERNATIONAL REGISTERED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피아노조율사)  
NATIONAL FIRST LEVEL PIANO TECHNICIAN  
(국지자격 1급 조율사)  
THE DEPARTMENT OF MUSIC COLLEGE OF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전속 조율사)  
STEINWAY PIANO 기술연수 수료

Tel. 051-553-4277  
051-753-8963  
H.P. 010-9003-8963

# Program

##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가수 지망생인 주인공이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서 추억과 꿈, 잃어버렸던 열정과 첫사랑의 설렘을 감미로운 속삭임으로 노래하는 콘서트 뮤지컬 '배달왔습니다'.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 연극 '클라우드 나인'

2011년 12월 3일(금)-2012년 1월 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12/31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공간소극장



한적한 시골마을을 배경으로 다양한 사연을 안고 고향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웃음과 감동으로 펼쳐지는 연극 '클라우드 나인'.

· 작/채지하  
· 연출/조기왕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 연극 '러브 액츄얼리'

2011년 12월 7일(수)-2012년 1월 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휴관) >>> SM아트홀 2관

1990년대를 배경으로 이제 사랑을 시작한 100일 커플, 권태기에 접어든 1,000일 커플, 연인이라기 보다 부부같은 10년 커플 등 세 커플의 만남과 사랑, 이별을 이야기하는 감성연극 '러브 액츄얼리'.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2011년 12월 31일-2012년 1월 1일 토-일요일 오후 3:00, 8:00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브로드웨이 쇼 뮤지컬이 선사하는 화려함과 유머러스하면서도 정교하게 짜여진 스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스테디셀러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관람료** R석 110,000원 · S석 99,000원  
A석 88,000원

**::문의** (재)영화의전당(780-6000)

### 2011 아듀 NO.1 뮤지컬 '그리스'

2011년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6:00, 9:30, 2012년 1월 1일 일요일 오후 3:00, 7:00 >>> KBS부산홀

청춘들의 사랑과 성장통을 그린 뮤지컬계의 스테디셀러 '그리스' 2011년 아듀무대.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 콘서트 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1월 3일(화)-31(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SM아트홀 3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연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 뮤지컬.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의** SM기획 (1600-1602)

###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1월 3일(화)-31일(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 소극장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자살'을 소재로, 죽음을 상품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죽음마저도

눈감아버리는 현실을 풍자, 누구에게나 삶은 소중하다는 교훈을 던지는 폭소 블랙코미디극.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 뮤지컬 '잇츠유'

1월 3일(화)-31일(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SM아트홀 1관



지역 방송사 보도국을 배경으로 한 때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꿈을 포기한 최고봉과 자신만의 라디오 프로그램 DJ를 꿈꾸며 열심히 사는 리포터 이지은, 야망을 간직한 방송국 간판 아나운서 한성미, 그런 그녀만을 바라보는 순애보 PD 봉차장 등 네 명의 남녀가 펼치는 꿈과 사랑의 로맨틱 코미디극.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 가족뮤지컬 '장화신은 고양이'

1월 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8일 일요일 오후 1:00, 3:00 >>> 시민회관 소극장



장화신은 고양이의 지혜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동명의 동화를 라이브 뮤지컬로 제작한 가족뮤지컬 '장화신은 고양이'.

· 연출/윤혜진  
· 출연/조민경, 심지석, 최은경, 조영실, 오세진 외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플러스 기획(080-071-1212)

### 뮤지컬 '러브메이커'

1월 7일(토)-2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천사들만 아는 100% 연애성공법, 초절정 로맨틱 판타스틱 뮤지컬 '러브메이커'.  
천사들이 남녀간의 진실한 사랑을 이어준다는 독특한 발상과 개성넘치는 인물 캐릭터, 유쾌한 춤과 노래가 가슴 설레는 진한 감동을 전해준다.

· 작, 연출/박운  
· 출연/김종일, 김진이, 민정기, 박운, 홍은주  
::관람료 균일 3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 철수와 영희를 위한 콘서트

1월 11일(수)-2월 4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일-화요일 공연없음) >>> 소극장 실천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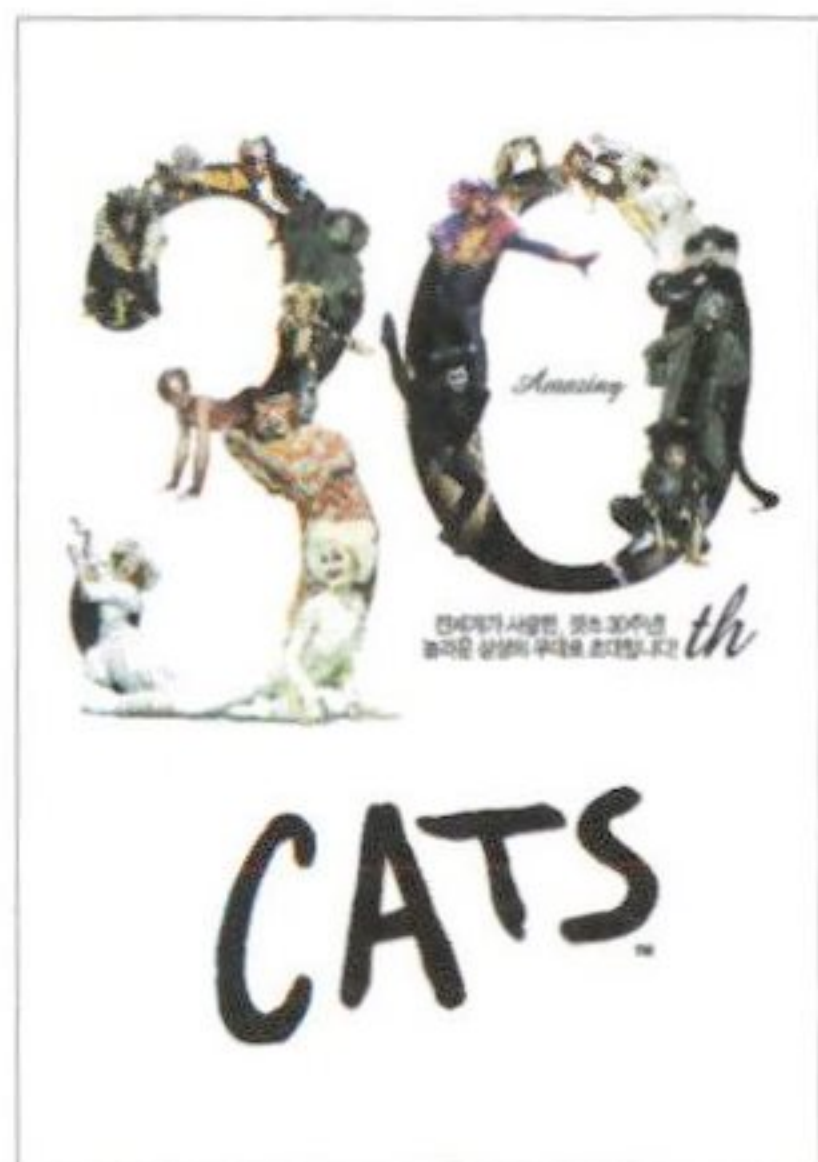


세상이 만든 틀 안에서 스스로를 루저로 취급하며 살기보다 세상에 맞서 다르게 살기를 꿈꾸는 모든 세대의 철수와 영희를 위한 노래가 있는 연극 '철수와 영희를 위한 콘서트'.

· 작, 연출/이성민 · 작곡/이종화  
· 출연/유미희, 변현주, 이현식, 차동희, 황정두, 김아람, 김고은  
::관람료 일반 22,000원(예매시 20,000원) 청소년 15,000원  
::문의 소극장 실천무대(245-5919)

### 뮤지컬 '캣츠' 부산공연

1월 13일(금)-2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8:00, 일요일 오후 2:00, 7:00  
(월요일 공연없음) >>> 시민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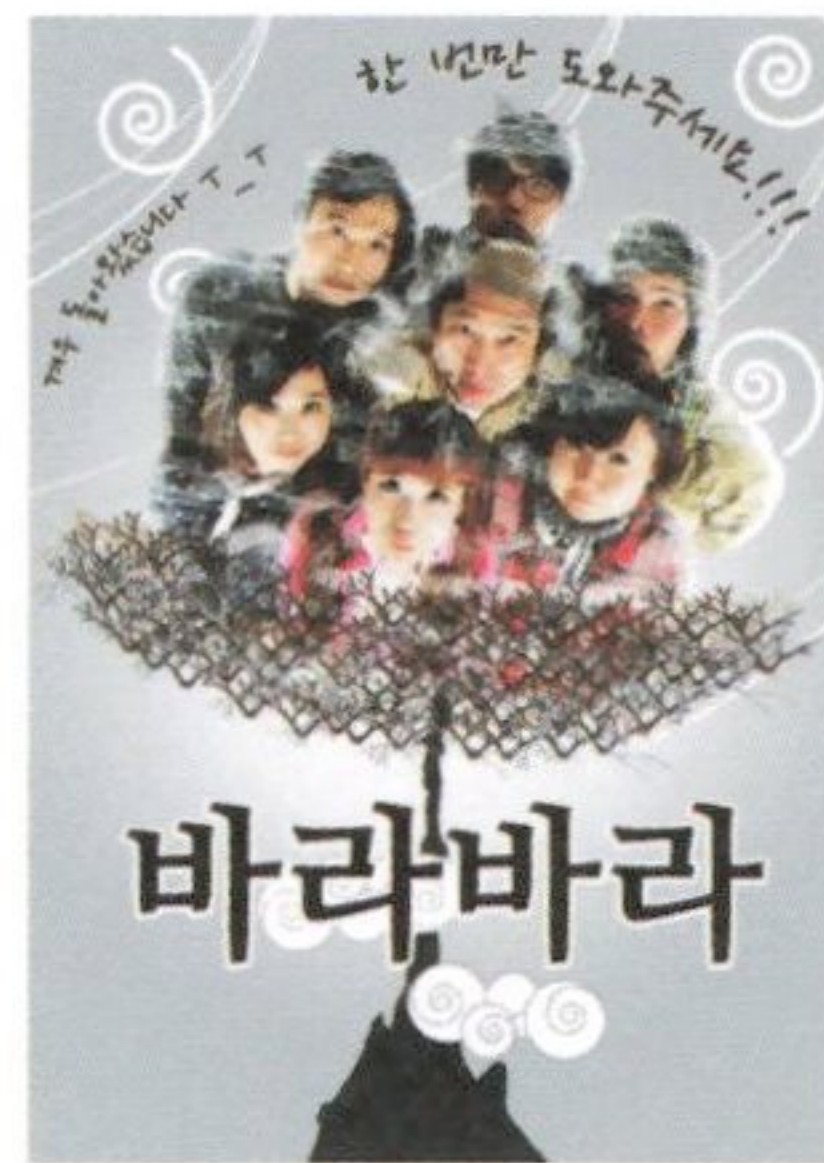


아름다운 음악과 화려한 무대, 환상적인 안무로 세계 26개국, 300여개 도시에서 14개 언어로 번역되어 7천 300만 관객을 감동시킨 뮤지컬 '캣츠'.  
1981년 런던에서 초연된 후 최고의 뮤지컬로 사랑

받아온 '캣츠' 탄생 3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무대에서는 최고의 뮤지컬 배우 박해미, 홍지민에 이어 가수 인순이가 '그라자벨라' 역으로 새롭게 합류, 역대 최강의 무대를 선사한다.  
· 연출/조앤 로빈슨  
· 출연/인순이, 박해미, 홍지민, 정민, 에녹, 이상준 외  
::관람료 VIP석 120,000원 ·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 A석 60,000원  
::문의 (주)WSM(1566-5490)

### 폭소 코메디언극 '바라 바라'

1월 13일(금)-4월 1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허둥 9단으로 인기를 모은 개그맨 허동환의 폭소 코메디언극 '바라 바라'. 단순한 웃음을 넘어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는 소극장 코메디의 진수를 보여준다.  
::관람료 균일 33,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 관객과 풀어나가는 연극 이야기! 명작으로의 여행! '보이책'

1월 13일(금)-2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시(월요일, 1/24일 공연없음, 2/4일-5일 오후 7:30)  
>>> 공간소극장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으로 자신을 스스로의 삶에서 소외시켰던 말단 군인 보이책을 통해 현대 사회라는 거대한 조직사회에서 갖게되는 자기상실감과 존재론적 고독, 불안의 정체를 들여다보는

## 국내 최고 전문 녹음홀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 글로벌아트홀

CD 녹음 / DVD 녹화 유학오디션용 / 국제콩쿨용	연주회 / 클래스발표회 / 행사 독창회 독주회 실내악 오케스트라 국악연주회
현재 미국 명문음대 100%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음 (CD 및 DVD오디션에서 합격사례) 피아노 : 송정민(이스트만음대 전액장학생), 엄유정(텍사스 어스틴음대) 첼로 : 김미나(줄리어드 합격 및 론지 장학생)/바이올린 : 이슬기(피바디음대) 성악 : 김지현 김혜원(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 합격) 외 다수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클래식기타 작곡 가야금 독주 및 합주 연주회 실황 녹음 녹화 가능
개인 음반 / 합창단 합주단 기념음반 / 교회찬양대 기념음반 녹음 및 녹화는 예약하셔야 합니다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전화 051-505-5995 팩스 051-505-5935 www.glovil.org / glovil@paran.com

# Program

## 기타공연장 공/연/안/내

문제주의적 연극 '보이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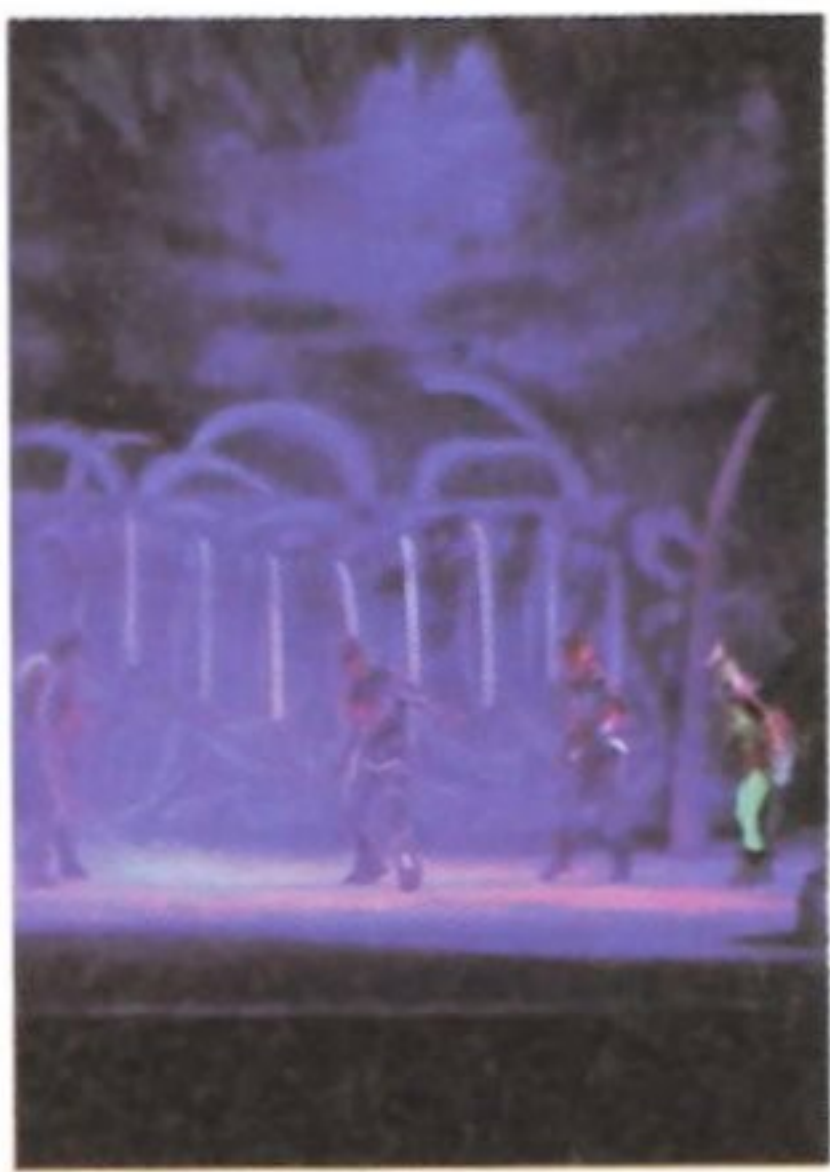
· 작/게오르크 뷔히너 · 연출/김만중  
· 출연/이재우, 김미승, 박유진, 박상규, 안성혜, 장현수, 박현민

::관람료 균일 20,000원(예매시 30%할인)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 2012 가족뮤지컬 '라이온 킹'

1월 1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5일  
일요일 오후 1:00, 3: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동명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역동적인 무대로 선보이는 가족뮤지컬 '라이온 킹'. 다양한 동물들의 섬세한 분장과 비보이들의 환상적인 아크로바틱 무대가 재미를 더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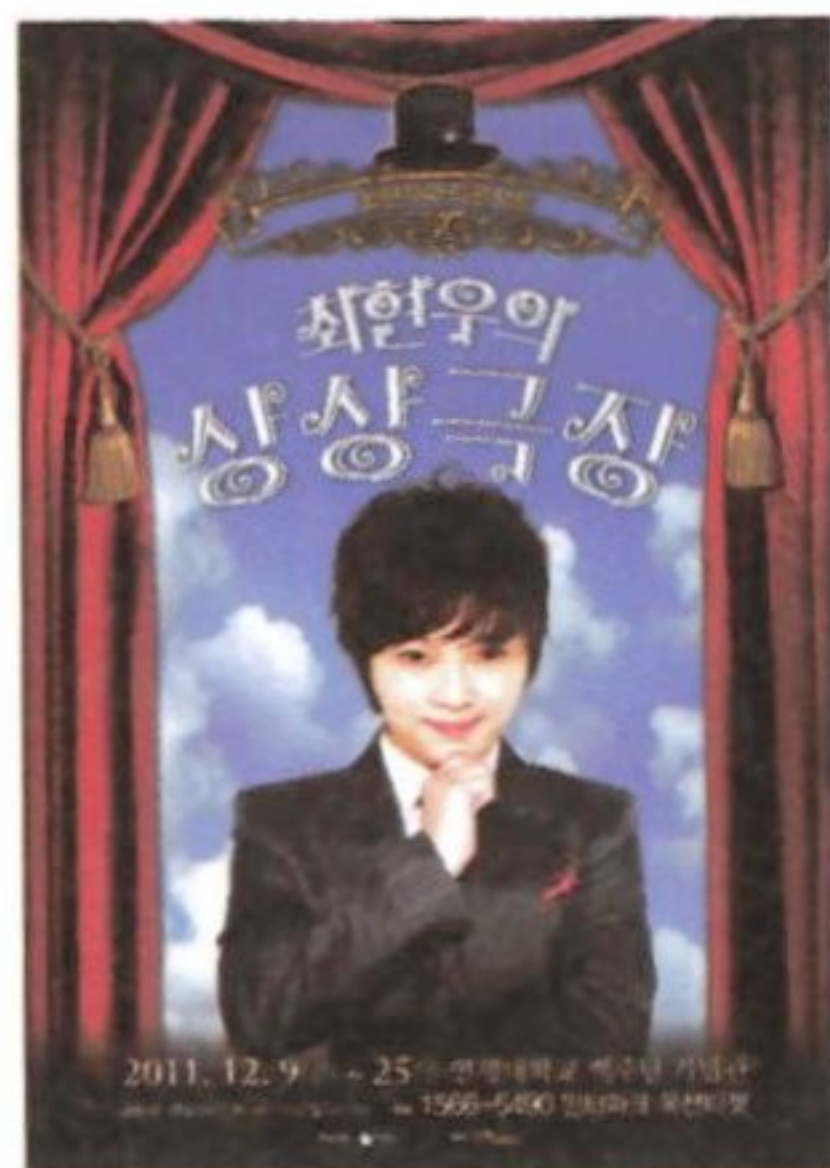
· 작, 연출/차정범

::관람료 R석 25,000원 · S석 20,000원

::문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 최현우 매직콘서트 '최현우의 상상극장'

1월 23일 월요일 오후 3:00, 7:00,  
24일 화요일 오후 2:00, 6:00 >>> **KBS부산홀**



관객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동시에 환상적인 경험을 제공, 동화를 잊고 지내는 현대인들에게 마법과도 같은 시간을 선사하는 최현우 매직콘서트. 화려한 조명과 영상, 마술이 이루어낸 환상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 뮤지컬 '친정엄마'

1월 28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9일 일요일 오후 2:00, 6:00 >>> **KBS부산홀**



늘 아옹다옹하는 엄마와 딸의 애증관계를 일상속에서 따뜻하게 그려낸 창작뮤지컬 '친정엄마'. 연극과 영화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친정엄마'는 이번 무대에서 대한민국 대표 국민엄마 김수미와 나문희가 친정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 작/고혜정 · 연출/권호성

· 출연/나문희, 김수미, 양꽃님

::관람료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A석 77,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월드쇼마켓(1566-5490)

## CONCERT

###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No Brake)' Season 3 - 부산

1월 14일 토요일 오후 6:00 >>> **KBS 부산홀**



우리시대의 토크(Talker) 김제동의 멈추지 않는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세 번째 무대. 이번 무대에서 김제동은 연설가, 지휘자, 록커로 변신, 정치와 사회 현실에 대한 패러디로 풍자해학을 보여주는 동시에 특별 게스트와 함께 토크 하모니를 펼친다.

::관람료 균일 77,000원

::문의 (주)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1588-8477)

## GALLERY

### 쉬잇, 귀 기울여봐!

2011년 9월 24일(토)-2012년 2월 26일(일)

>>>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소리를 구성요소로 하는 현대미술 작품을 통해 미술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전시.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 벽촌아트갤러리 개관기념전 서양화 16인전

2011년 11월 19일(월)-2012년 1월 14일(토)

>>> **벽촌아트갤러리**

· 참여작가/김남배, 김봉진, 김양목, 김인환, 김일량, 김종근, 문계수, 송영명, 신창호, 우흥찬, 이강운, 이익주, 전준자, 조동벽, 진병덕, 한상돈

::문의 벽촌아트갤러리(582-1103)

### 영국 현대미술 대표작가 2인전 런던산책:줄리안 오피 & 마크 퀸

2011년 12월 2일(금)-2012년 1월 3일(화)

>>> **롯데갤러리 광복점**

영국 현대미술을 이끌어가는 차세대 작가 줄리안 오피와 마크 퀸의 밝고 경쾌한 작품을 통해 어려운 현대미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관람시간/오전 10:30~오후 8:00

(금-일요일은 오후 9:00까지)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678-2611~2)

### 이영재展

2011년 12월 6일(화)-2012년 1월 15일(일)

>>> **갤러리 다운타운**

합리적인 형태를 중시하는 독일 바우하우스의 전통과 자연스러운 은근함이 돋보이는 조선자기의 미감을 접



목시커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보여온 도예가 이영재 작품전.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

::문 의 갤러리 다운타운(746-8353)

**맥화랑 기획전 '안부를 묻다'**

2011년 12월 9일(금)-2012년 1월 21일(토) >>> 맥화랑

::문 의 맥화랑(722-2201)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展**

2011년 12월 10일(토)-2012년 2월 12일(일)

>>>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

부산,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을 선정, 집중조명하는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展.

작가 자신이 바라본 현장, 즉 체감한 현실을 담보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평주, 김해진, 박윤희의 작품을 선보인다.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하정웅 기증작품  
'신장식과 손아유의 회화' 전**

2011년 12월 10일(토)-2012년 2월 12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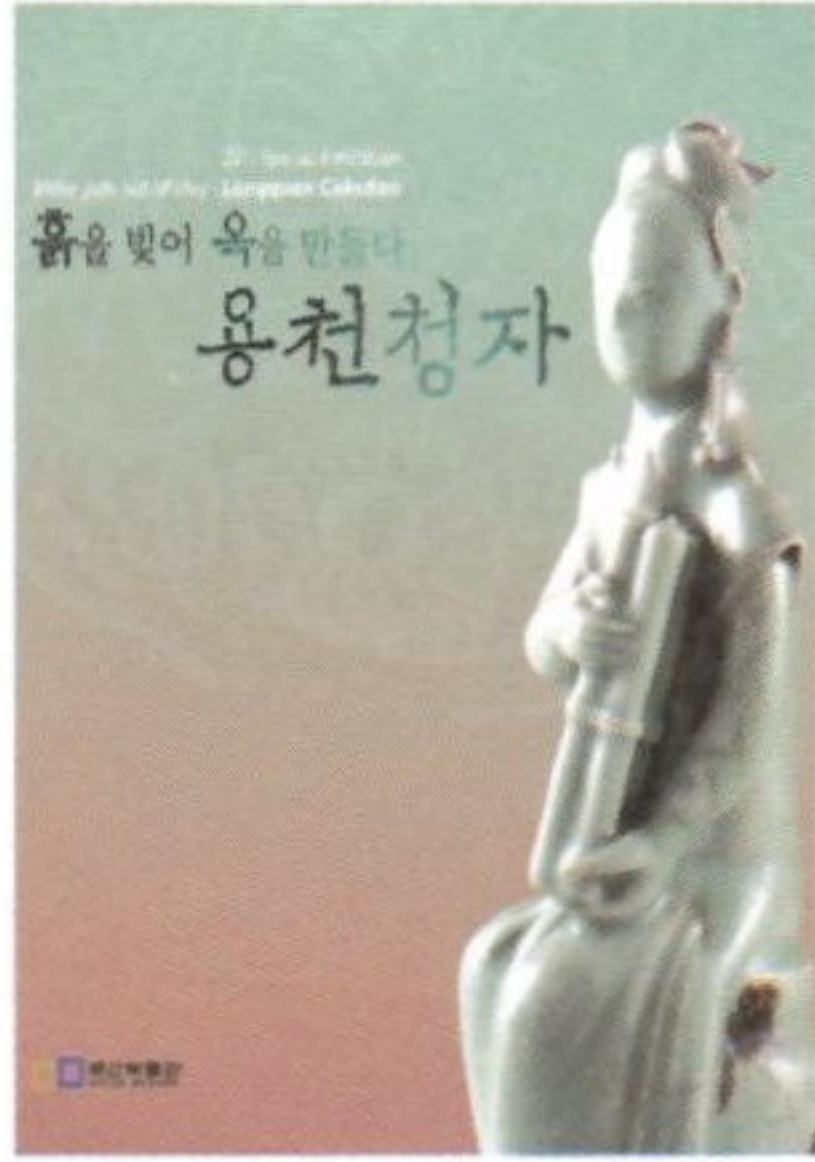
>>> 부산시립미술관 2층 기증작품실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2011 부산박물관 국제교류전  
흙을 빚어 옥을 만들다, 용천청자(龍泉靑瓷)**

2011년 12월 10일(토)-2012년 2월 5일(일)

>>>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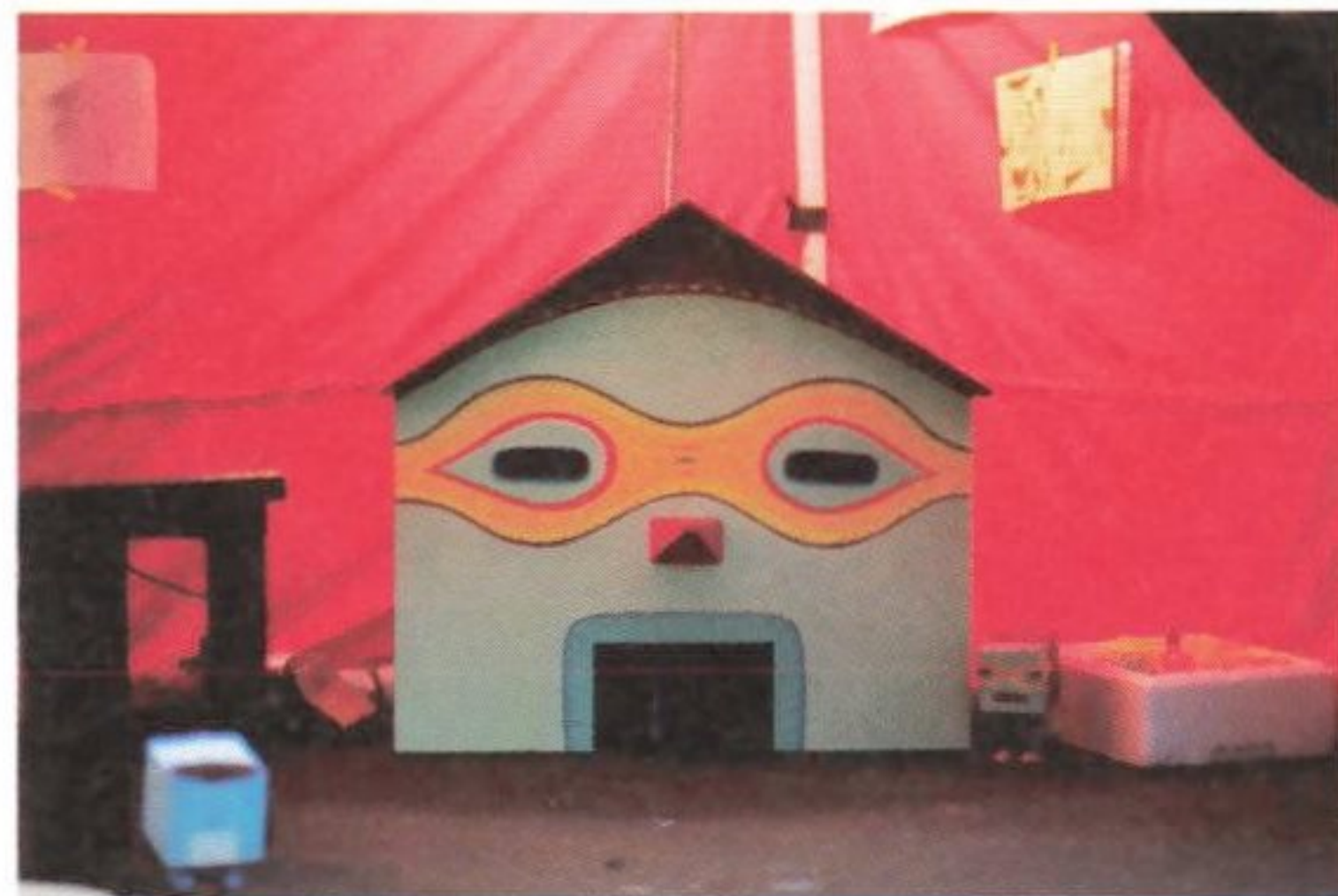
중국을 대표하는 청자로 수출량이 많아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이 미쳤던 '용천청자(龍泉靑瓷)'를 소개하는 2011 부산박물관 국제교류전.

::문 의 부산박물관 (610-7111)

**땡큐 2011! '기프트 & 파티'展**

2011년 12월 16일(금)-2012년 1월 4일(수)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정크하우스 작 'Monster House No.7'

· 참여작가/강영민, 금중기, 김계현, 김규엽, 마리킴, 박선기, 서희화, 아트눔, 정크하우스, 최규식, 최태훈

::문 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Way's Trace**

2011년 12월 16일(금)-2012년 1월 31일(화)

>>> 가양갤러리

· 참여작가/김범수, 박주현, 조은필, 변재규, 뿌리아 김

::문 의 가양갤러리(752-7830)

**2011 Are You Ready?  
박능생 개인전-도시의 흔적 2**

2011년 12월 17일(토)-2012년 1월 30일(일)

>>> 오픈스페이스 배

::문 의 오픈스페이스 배(724-5201)

**안녕 없는 생활들, 모험들**

2011년 12월 17일(토)-2012년 2월 12일(일)

>>>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

개개인의 일상에 침투한 자본의 논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를 영상, 출판, 퍼포먼스,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하는 기획전.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트릭아트 시즌2 부산특별전**

2011년 12월 17일(토)-2012년 2월 26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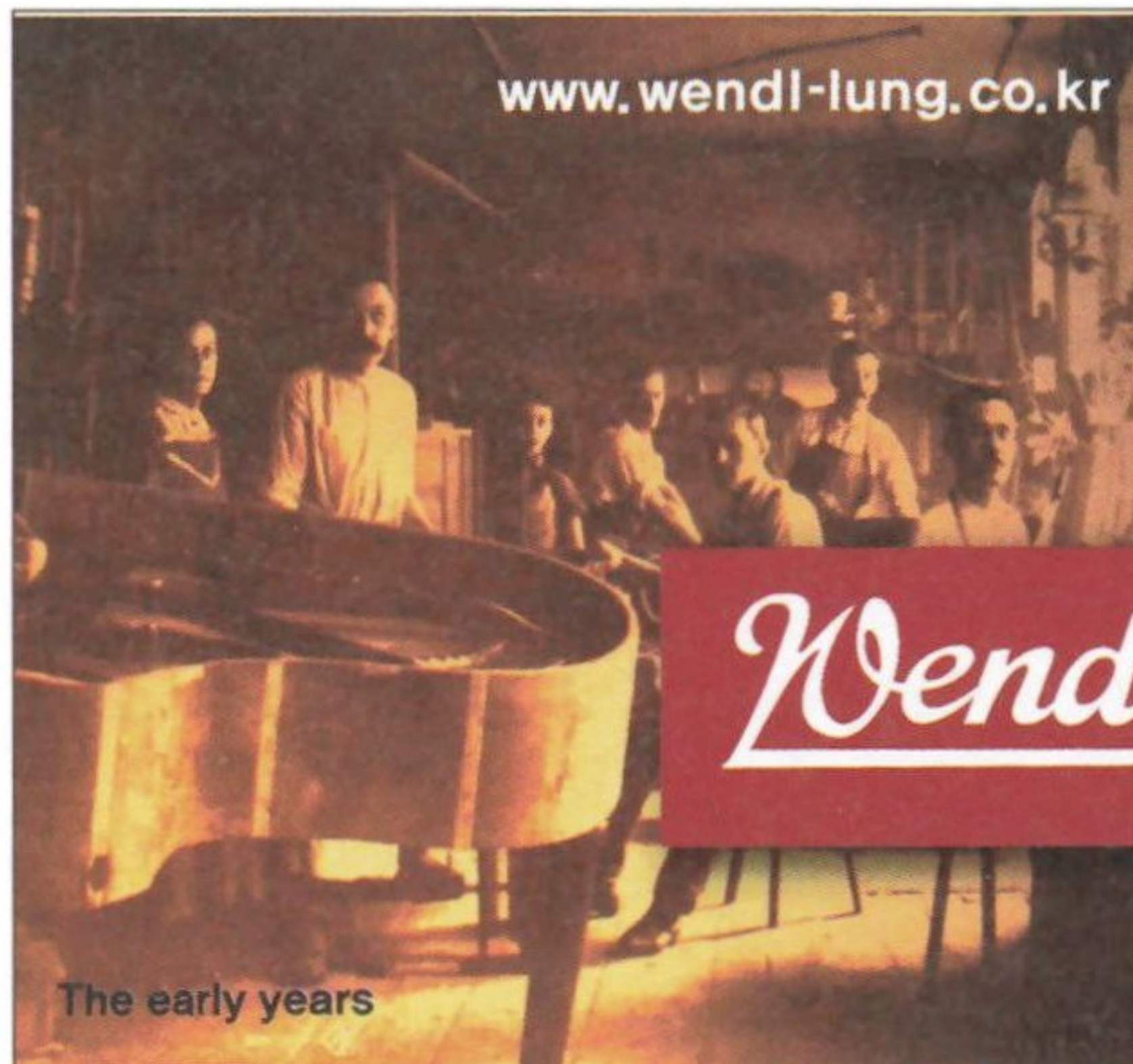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제 3전시관

평면의 그림이 마술 같이 살아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는 트릭아트 시즌 2.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

::관람료 균일 12,000원

::문 의 지오엔터테인먼트(741-7115)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소: 벤들·룽 피아노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 Program

## 기타공연장 공/연/안/내

### 타워갤러리 기획 연말 연시 선물작품전

2011년 12월 19일(월)-2012년 1월 6일(금)  
 >>>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 갤러리 봄디 5번째 기획 초대전 작은 선물전

2011년 12월 20일(화)-2012년 1월 31일(화)  
 >>> 갤러리 봄디



이민한 작 '별을 건다'

::문의 갤러리 봄디(070-7720-6862)

### 정인성 탄생 100주년 기념전 정인성, 지각과 감수성

2011년 12월 29일(목)-2012년 3월 18일(일)  
 >>> 고은사진미술관 신관

부산사진 1세대로 '생활주의 리얼리즘' 사진운동을 주도한 사진작가 정인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전.

::문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 해운대문화회관 기획전 '인상파와 놀자~!!'

1월 5일(목)-2월 26일(일)  
 >>> 해운대문화회관 1, 2전시실

모네에서부터 르누아르, 드가, 피사로, 세잔, 고갱, 고흐까지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아트포스터나 벽화가 아닌 라이센스와 회화복제방법 특허기술 등으로 제작한 작품들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

::관람료 균일 8,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동맥展

1월 6일(금)-1월 14일(토) >>> BS부산은행 갤러리



정지태 작 '한유'

::문의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 2012 '용, 꿈꾸다'展 -박은아, 서공임, 신창복, 이순임-

1월 6일(금)-1월 26일(목)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이순임 작

2012년 새해를 맞아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민화작가 박은아, 서공임, 신창복, 이순임이 용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 사진동호회전

1월 7일(토)-1월 13일(금) >>>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 'Shift' 전

1월 13일(금)-2월 26일(일) >>> 조현화랑 부산

· 참여작가/강석호, 김수영, 노충현, 유정현, 이광호, 이소연, 안두진, 그리고 조종성

::문의 조현화랑 부산(747-8853)

### 동의대학원-타임 리코드展

1월 16일(월)-1월 27일(금) >>> BS부산은행 갤러리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타임 리코드'를 통해 현대인들의 정서를 표현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 제 12회 여성작가전

1월 17일(화)-1월 31일(화) >>> 타워갤러리



성순희 작 '생의 화음'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1층  
업라이트 피아노 전시장

www.piano123.co.kr

그랜드피아노전문점 부산역가시

대표 강 규 찬 (조율사)  
H.P. 017-556-9410

피아노 판매, 조율, 대여, 수리 전문점

2층  
그랜드피아노 전시장

부산역가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T.758-5450/5445



# 딸아이의 장래를 결정지어준 아버지의 애청음반 김소희 '심청가'

박성희\_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어린 시절, 살을 에이는 어느 겨울날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 손에 이끌려 열차에 올라탔고, 기나긴 여행이 시작 되었다. 자다 깨고 또 자다가 깨보아도 열차는 달리고 있었다. 대 여섯 시간을 달렸을까, 열차가 멈춰 섰고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 나온 곳은 서울역 광장이었다. 정말 추웠고 무서웠다. 내 나이 9살때의 이 두려움은 공연 차 서울에 갈때면 아직도 간혹 느끼는 묵은 감정이 되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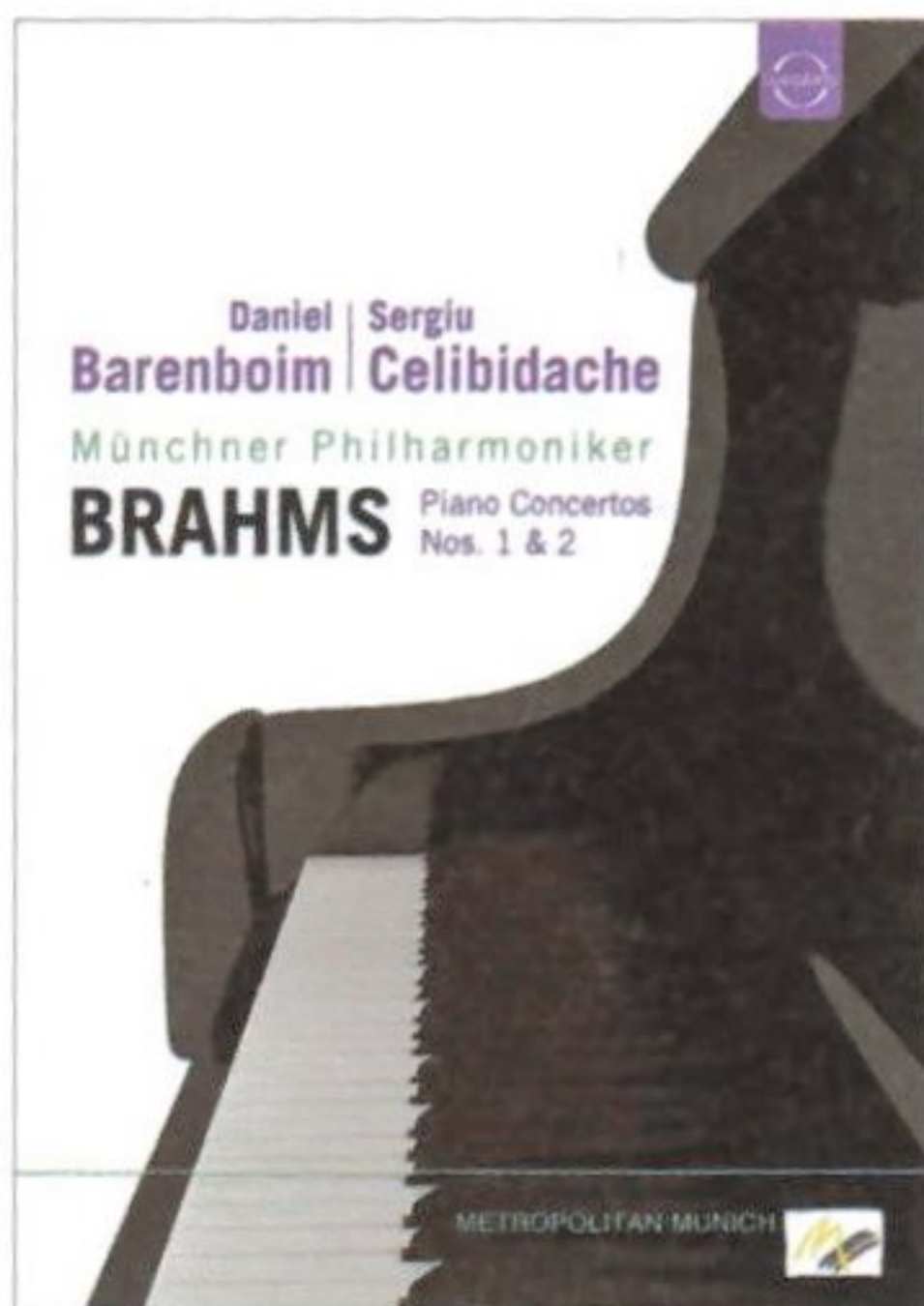
다시 9살때로 돌아와서,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높은 기와 지붕에 넓은 마당, TV에서나 보던 큰 한옥이었다. 또 한번 주눅이 들었다. 안방문을 열자, 나이든 아주머니 같기도, 좀 젊은 할머니 같기도 한 여자분이 단정히 빗어 넘긴 머리에 흰 한복을 입고 꼼짝 않고 앉아 계셨다.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께 선 말문을 여셨다. 어린 딸아이를 맡아주셔서 판소리 명창으로 꼭 키워달라는 간청을 드리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어조는 비장하기까지 했다. 그 분의

말씀들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워낙 바쁘셔서 너무 어린아이를 가르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았다. 한 시간이 넘는 두 분의 대화는 열차를 타고 온 시간보다도 길게 느껴졌다.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난 후, 그 분은 나에게 노래 한곡을 시켜 보셨다. 그러자 그 분 얼굴에서 딱딱한 표정이 사라지고 환한 미소가 지어졌다. 딸아이를 잘 키워보시겠다는 승낙을 하시는 듯 했다. 아버지께서는 별떡 일어나시더니 그 분께 큰절을 드렸다. 놀라웠다. 한참 뒤에야 알았지만 그 분은 바로 나의 첫 스승이신 故 김소희 선생님이셨다. 당대 최고의 국창이셨다. 그 뒤로, 그 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서울로 어려운 공부를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이제는 나 자신도 부모가 되어 자식의 장래를 결정지을만한 용기와 의지를 가지기란 쉽지 않음을 알 듯 한데, 무엇이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그렇게도 과감한 용기와 끈질긴 의지를 품게 하였을까? 딸아이의 장래를 결정지은 아버지의 용기와 의지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 힘은 바로 이 LP음반 김소희의 '심청가' 이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배움의 기회조차, 무지개빛 미래도 꿈꿀 수 없었던 아버지에게 음반을 수집하고 음악을 감상한다는 것은 분명 꿈만 같은 시간들이었을 것이다. 어린나이에 시각 장애 아버지를 봉양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에게 판소리 '심청가' 음반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야말로 소름끼치는 음악이었음이 분명하다. 고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전축에 음반을 올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음반 위에 올리고 음악을 듣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한을 품은 천상의 소리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흘러나왔고, 그 소리는 가히 시공간을 넘나드는 황홀지경이었음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 이 음반 속 김소희 선생님의 심청가는 아버지의 한 많은 인생살이를 달래주었고, 딸아이를 통해 그 꿈을 이루시려는 용기와 의지의 근원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아버지의 애청음반이었던 이 LP음반은 이제는 그 딸아이인 내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더욱이 무릎 꿇고 앉아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말고 새겨 배우라 하셨던 故 김소희 스승을 앞에 모셔놓은 듯, 이 음반은 나의 스승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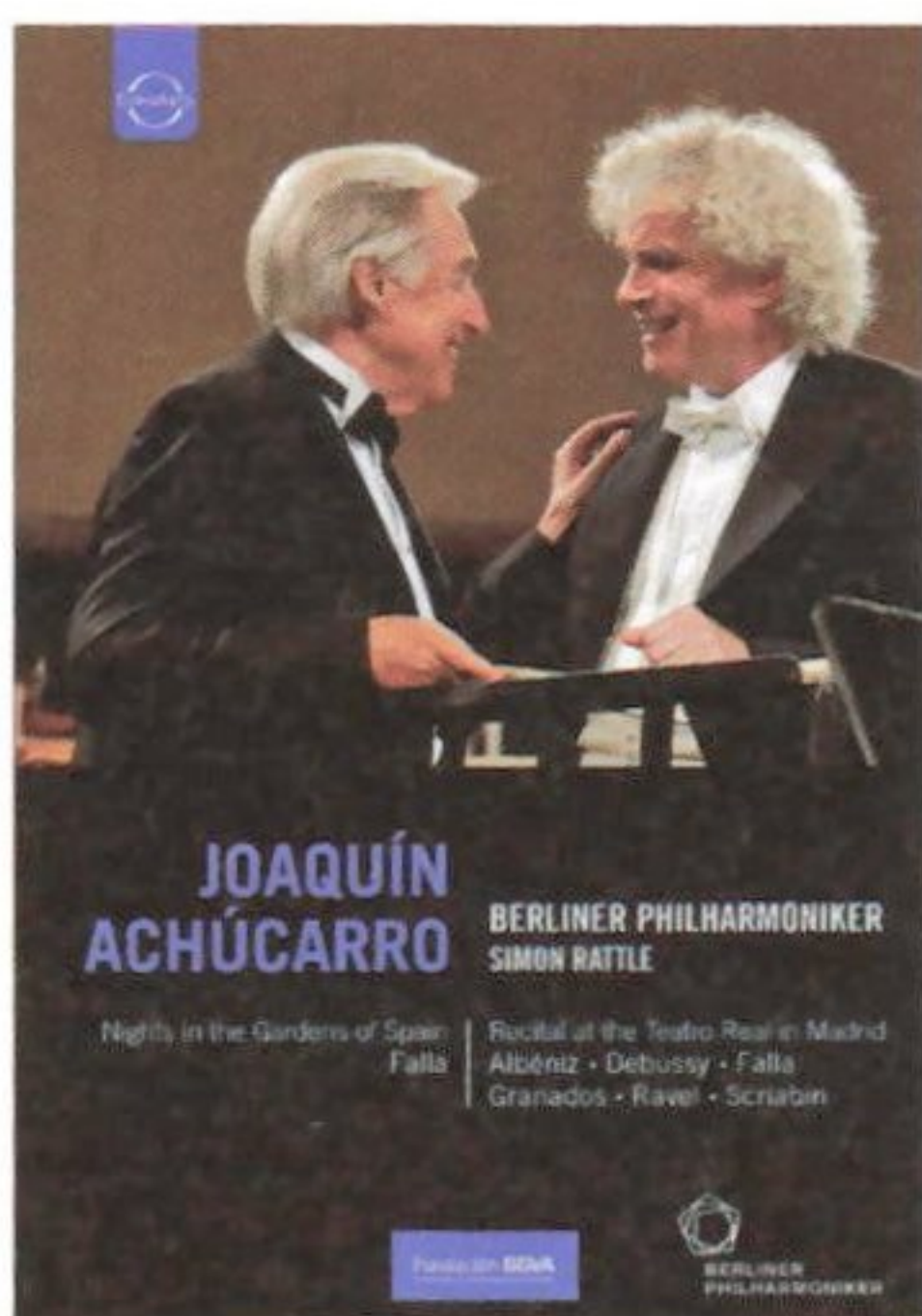


## 브람스 : 피아노 협주곡 1, 2번

▶연주/세르주 첼리비다케(지휘), 다니엘 바렌보임(피아노), 뮌헨 필하모닉

다니엘 바렌보임은 피아니스트 겸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지휘자이자 음악 대사와 인도주의자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와 손잡은 전설의 지휘자가 첼리비다케이다. 바렌보임은 첼리비다케를 두고 '그는 내가 만난 사람 중 최고의 예술가이다' 라고 말했다. 첼리비다케는 독일 음악의 전통을 고수해온 지휘자이다. 어두운 색으로 밑바탕을 칠한 후 베이스로 단단한 기초를 다지고, 여기에 유기적 복합음 체계를 형성해 가며 간간히 부드러운 관악기로 감칠 맛을 낸다.

이 DVD는 첼리비다케가 남긴 몇 안되는 협주곡 실황 공연으로,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두곡이 담겨 있다. 이 두 공연 실황에서 바렌보임과 첼리비다케, 그리고 뮌헨 필하모닉은 환상적인 공연을 보여준다.



## 호아킨 아추카로 리사이틀 + 베를린필 콘서트

▶연주/사이먼 래틀(지휘), 호이칸 아추카로(피아노), 베를린 필하모닉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호아킨 아추카로는 '완벽한 예술가'와 '스페인으로부터 온 피아니스트의 지도자'로 호평 받으며 많은 수상과 갈채를 받아왔다. 2000년에 그는 비범한 음악적 업적으로 유네스코로부터 '평화의 예술가'로 지명되기도 했다. 이 영상물은 베를린 필하모닉의 라이브 공연과 아추카로의 리사이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가을 밤 베를린 필하모닉과 아추카로는 사이먼 래틀의 지휘아래 '스페인 정원의 밤'을 인상적인 연주로 선사한다. 그리고 아추카로의 리사이틀에서는 스페인의 영감을 완벽한 그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 Part 1

Berliner Philharmoniker Concert (27분)

Falla : Nights un the Gardens of Spain-호아킨 아추카로, 사이먼 래틀, 베를린 필하모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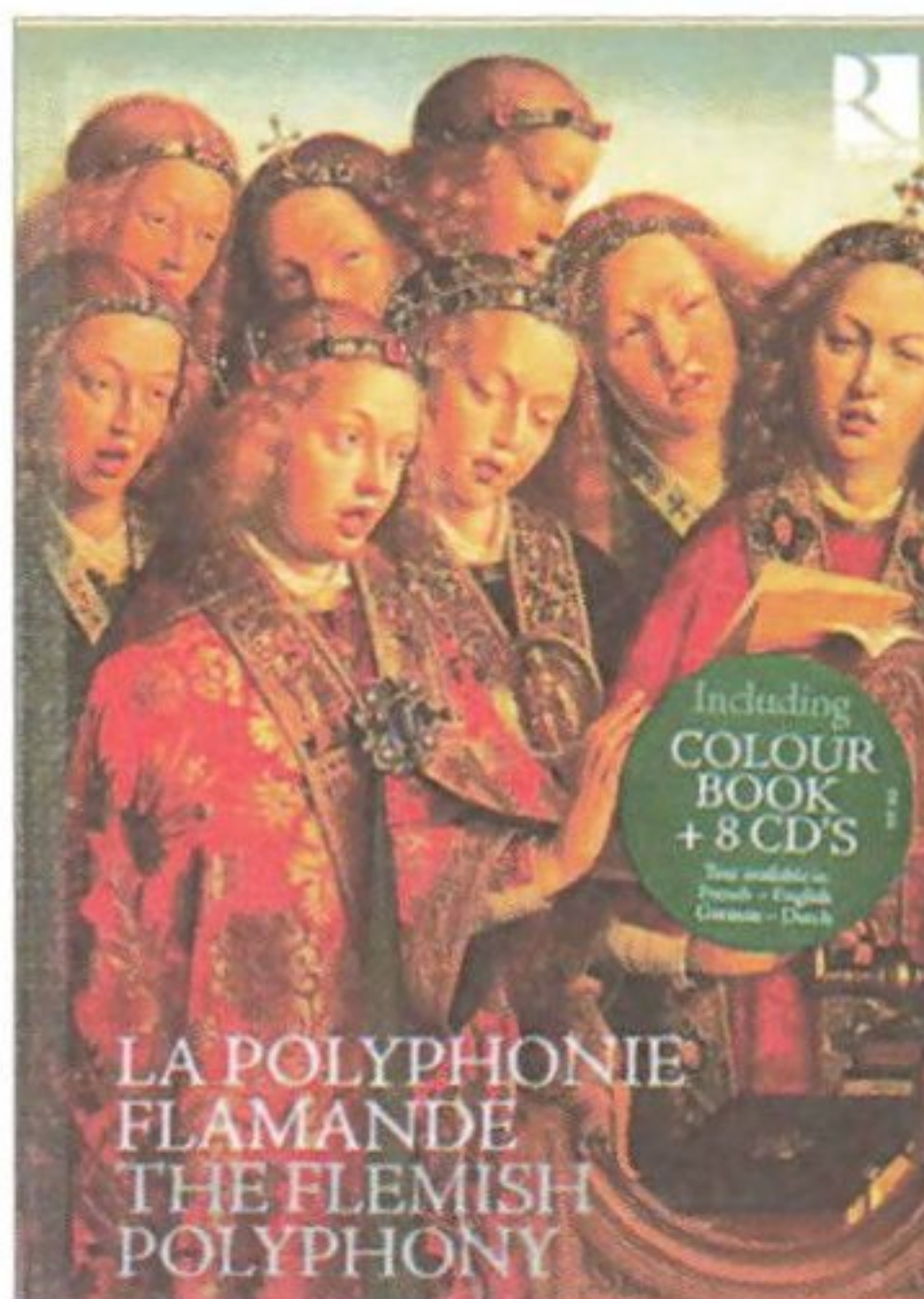
### Part 2

Joaquin Achucarro Ricital(75분), Albeniz : Navarra

Debussy : La Puerta del Vino / La Soiree dans Grenade

Granados : Quejao o La maja y el ruiseñor, Ravel : Gaspard de la nu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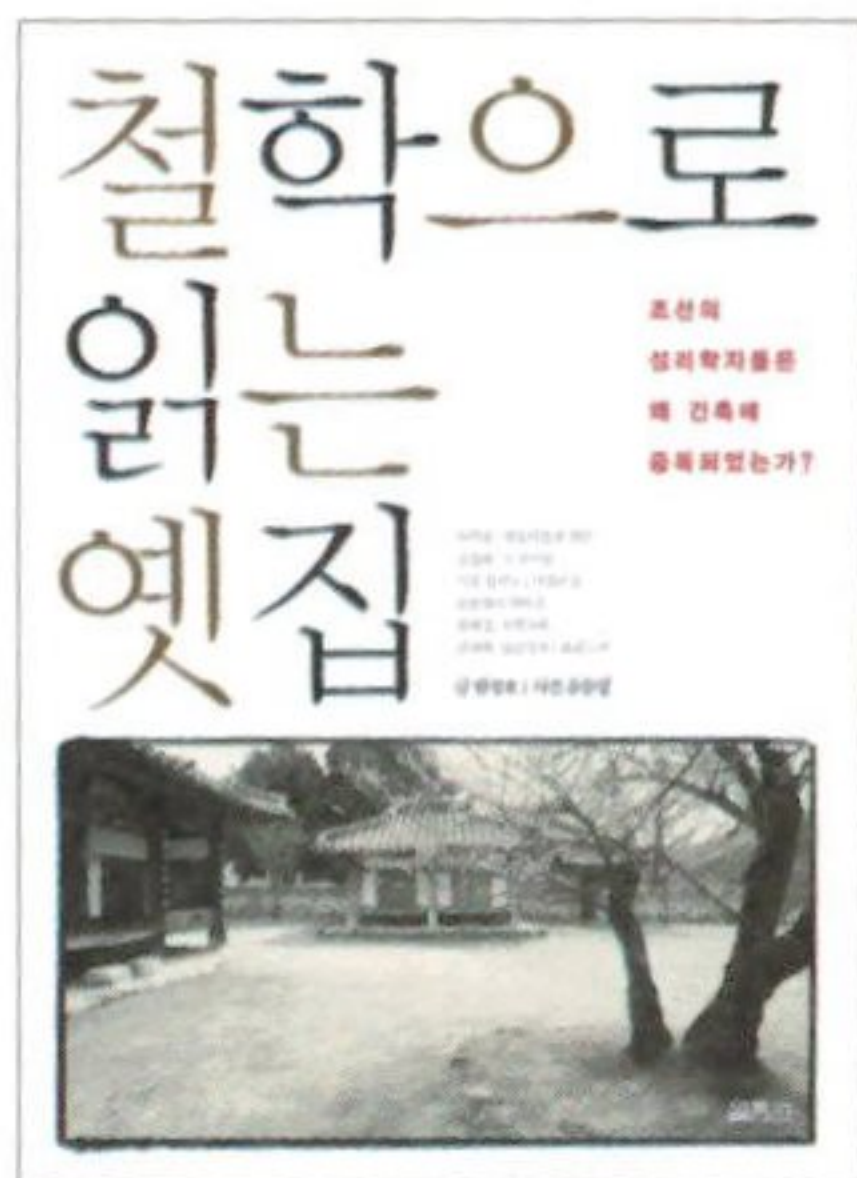
Falla : Hommage- 'Pour le tombeau de Claude Debussy' / Fantasia Baetica Scriabin : Nocturne)



## 플랑드르 악파의 폴리포니

▶연주/디아볼루스 인 무지카, 라 모라, 카펠라 플라멘카, 앙상블 무지카 노바, 카펠라 프라텐시스, 디스칸투스, 복스 루미니스, 로마네스크, 앙상블 오르가눔 외(8CD 200page Book)

15세기경부터 바로크의 여명이 트기까지 르네상스의 황금기에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북부 지역 출신의 작곡가들은 독자적인 폴리포니 기법으로 전 유럽을 두루 여행하며 아름다운 성악 폴리포니 작품을 남겼다. 플랑드르 악파 이전에 활동한 부르고뉴악파가 자유로운 세속 음악에 강한 면모를 보인것과 달리 플랑드르 악파는 종교음악 위주로 활동하였고 보다 논리적인 원리를 가진 음악의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플랑드르 악파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의 음악을 발전시켜 고전음악 강국이 되는 발판을 이루었는데, 이를 총정리한 놀라운 기획음반이다. 컬러 화보자료와 음악특징을 상세히 다룬 책자와 뒤파이, 뱅수아, 오케겜, 오브레흐트 등 거장의 중요 작품을 함께 엮어 플랑드르 악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하였다.



**철학으로 읽는 옛집**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왜 건축에 중독되었는가

함성호 지음 / 열림원  
/ 148p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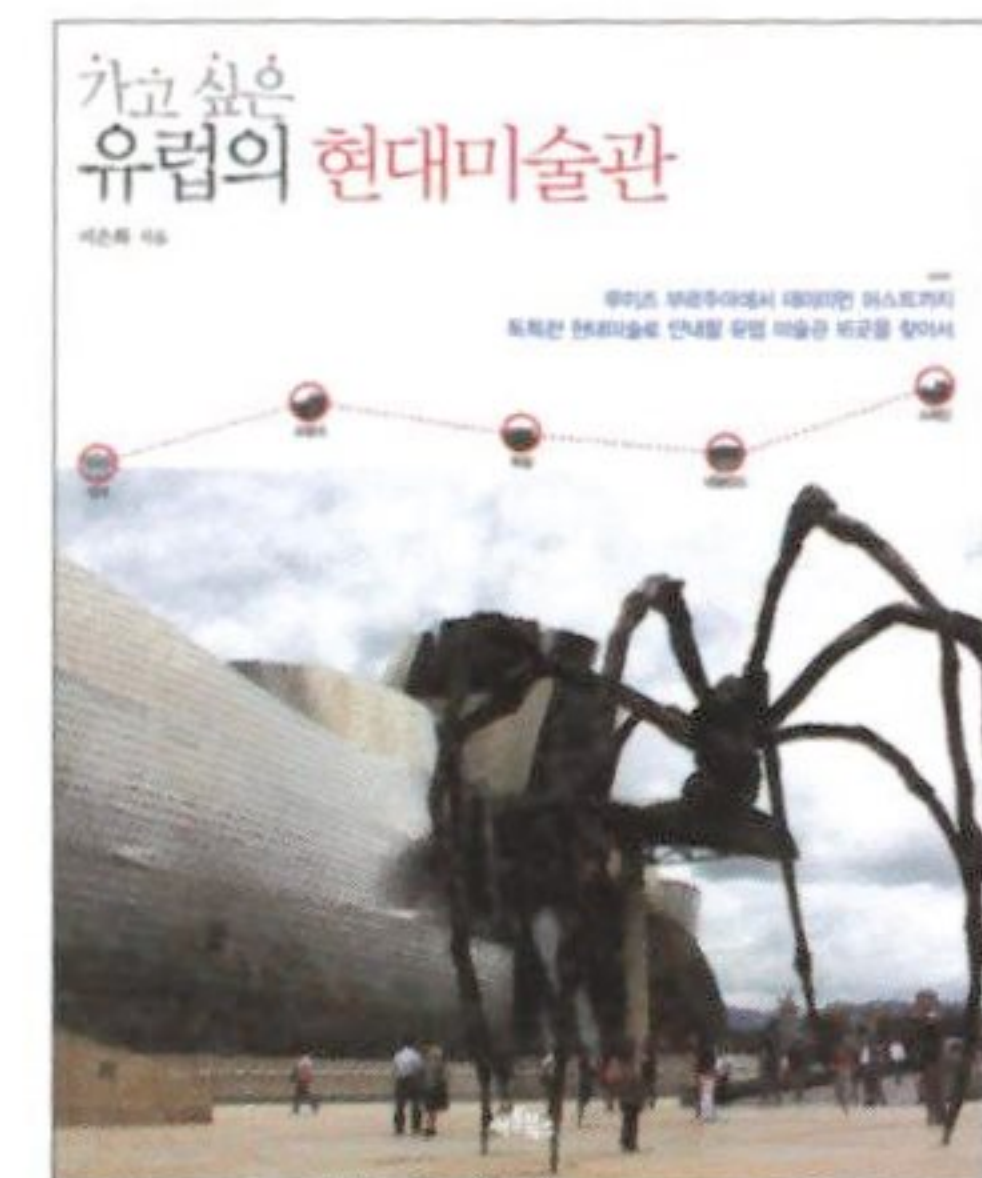
건축가이며 시인인 함성호 씨가 이언적, 윤선도, 김장생 등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이 지은 옛집을 답사하여, 옛집과 옛집을 둘러싼 이야기를 들려준다. 건축가 시인의 눈으로 성리학자들이 직접 집을 지은 마음을 들여다 보는 책이다. 저자는 회재 이언적을 조선 시대를 통틀어 가장 독특한 건축가로 꼽는다. 이언적의 독락당(獨樂堂)은 그 설계도 자체가 '시(詩)'라는 것이다. 독락당의 정자인 계정(溪亭) 역시 자신이 본 가장 아름다운 정자라고 말한다. 이언적은 마흔에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정계에서 밀려난다. 패배감과 세상에 대한 울분을 안고 고향에 돌아와 지은 집이 바로 독락당이다. 그런데 이언적은 자신의 비루한 처지를 4백 년 앞서 살다 간 사마광의 생애와 동일시하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선비의 유유자적한 생활을 노래한 사마광의 <독락원기(獨樂園記)>에 나오는 한 구절에 몰입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적 정취가 물씬한 구절을 있는 그대로 현실화한 것이 바로 '홀로 즐긴다'는 의미의 독락당이다. 단순히 집이 가진 조형적 아름다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집이 자리한 위치와 집에 얽힌 이야기와 집이 말하고자 하는 생각과 철학까지 아울러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사랑노래 혹은 절망노트**  
천재화가 이중섭의 삶을  
입체적으로 드러낸 책

박규현 지음 / 북인  
/ 321p / 12,000원

'걸어가는 달', '흔들리는 땅' 등의 작품에서 불안을 딛고 희망을 노래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했던 박규현 작가가 첫 번째 장편소설 주인공으로 이중섭을 선택했다. 화가의 못 다한 꿈을 이어받아 이중섭이 채 그리지 못한 벽화를 글로 형상화시킨다. 현재 출간된 이중섭에 대한 자료는 연대기적으로 삶을 기술한 평전 정도가 고작이다. 그의 작품 경향을 분석한 자료도 더러 있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을 본격적으로 형상화한 소설 작품은 없다고 판단 그래서 저자는 이 소설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저자는 이중섭이 살았던 시대, 그의 가족과 친구들, 미술작업, 화가 개인의 내면이란 조각들을 모아 '이중섭'이란 벽화를 만들어간다. 한 사람의 생은 다양한 조각들로 이루어진다. 생애(生涯)라는 큰 틀 안에 이중섭의 생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의 조합으로 한 인간의 생은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중섭은 그림을 택하지 않았다. 그림이 그를 택했다. 그에게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는 그리다, 죽었다"고 말하며 예술이란 불꽃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난 이중섭의 일생을 오랜 시간 되짚은 박규현 작가 역시, 자신의 예술혼을 이 작품에서 태우고 있다.



**가고 싶은 유럽의 현대미술관**  
20년간 유럽 미술관을 찾아다니는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한 책

이은화 지음 / 아트북스  
/ 495p / 22,000원

현대미술가·평론가·독립 큐레이터·대학강사 등 현대미술과 관계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지난 20여 년간 유럽 곳곳의 미술관을 찾아다니는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의 현대 미술관을 안내한다. 이 책에서는 빌바오 구겐하임이나 테이트 모던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 미술관에서, 훔브로이히 박물관 섬이나 팔레 드 도쿄처럼 고정관념을 깨는 색다른 미술관들까지 5개국(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페인) 16곳의 미술관을 만날 수 있다. 또 루브르나 오르세처럼 현대미술과는 무관해 보이는 미술관들이 어떻게 현대미술과 접촉을 시도하는지도 엿볼 수 있다. 미술관의 탄생 배경, 건축 콘셉트, 컬렉션의 특성, 전시 프로그램, 작가와 작품에 얽힌 뒷이야기 등, 현대미술 애호가뿐 아니라 독특한 미술관 여행을 원하는 독자들에게도 내실 있는 가이드북이다. 전 런던 소더비 인스티튜트 학장이며 미술비평가인 토니 고드프리는 이 책을 다음과 같은 말로 추천한다. "조세피나 리(이은화)는 소더비 대학원 시절 나의 아주 뛰어난 제자였다. (중략) 유럽의 혁신적이고 멋진 현대미술관들로 안내할 사람으로 조세피나보다 더 나은 안내자는 없을 것이다."

## 1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술단' 1월 공연일정이 확정되었다. 1월에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내 사랑 부산공연과 부산시교향악단의 꿈나무소망심기공연이 부산시청 대강당, 남구도서관, 금정도서관에서 각각 펼쳐진다.

일정		
1월 2일(월)	09:00 시청대강당	내사랑 부산공연 '2012년 시무식' (출연/시립합창단)
1월 13일(금)	14:00 남구도서관	꿈나무소망심기공연 '남구도서관에서' (출연/시립교향악단)
1월 13일(금)	16:00 금정도서관	꿈나무소망심기공연 '금정도서관에서' (출연/시립교향악단)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45)

## 우리춤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제 26기 어린이 한국춤교실

- 강습 기간 : 2012년 1월 9일(월) ~ 1월 13일(금) 5일간
  - 강습 장소 : 국제회의장(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층)
  - 강습 내용 : 강강수월래(10:00~11:00), 부채춤(11:00~12:00)
  - 강습 대상 : 초등학교 어린이(각 반 20명 내외)
  - 강 사 : 강강수월래-홍기태(수석 안무자), 이화성 / 부채춤-서정숙(훈련지도자), 김주연
  - 강습 발표회 : 1월 13일(금) 13: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준 비 물 : 어린이 부채 1쌍(각자 준비)
  - 수 강 료 : 10,000원(036-12-109517-0 부산은행 부산시립무용단)
  - 접수 기간 : 2011년 12월 19일(월)~마감시 까지(평일 10:00~18:00)
  - 전화 접수 : 051-607-3131~2 ※ 전화 접수 가능
- ※ 마감은 20명 정원이 채워질때 까지(마감 후 5일 이내 환불 가능 / 수수료 공제)



# 2012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5기 시민클래식교실 수강생 모집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클래식 음악 향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제 5기 시민클래식교실'의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1. 강습개요

- 강습기간 : 2012년 1월 4일~2월 29일 매주 수요일 14:00~17:00
- 강습장소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국제회의장
- 강 사 : 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연 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실내악 앙상블 외
- 강습내용 : 낭만파 작곡가 시리즈 I '낭만주의를 개척한 작곡가들' (8주 커리큘럼)
- 모집인원 : 150명(선착순 마감)

## 2. 수강신청

- 신청기간 : 2011년 12월 12일(월)~2012년 1월 3일(화) 17일간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전화 051-607-3111~4, 팩스 051-607-3119, 전자메일 mijungluj@daum.net, 방문  
수강료 입금(부산은행 036-12-131437-9 부산시립교향악단)
  - ※ 입금 확인 후 신청 완료

3. 수 강 료 : 1인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4. 강습세부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1월 4일 (수)	14:00~17:00	개강식 ① 낭만주의의 개관과 베토벤 후기작품	소극장
1월 18일 (수)	14:00~17:00	슈베르트와 예술 가곡	국제회의장
1월 25일 (수)	14:00~17:00	쇼팽과 피아노 음악	소극장
2월 1일 (수)	14:00~17:00	리스트와 비르투오조의 시대	"
2월 8일 (수)	14:00~17:00	베르디오즈와 표제음악	"
2월 15일 (수)	14:00~17:00	멘델스존과 회화적 오케스트라	"
2월 22일 (수)	14:00~17:00	벨리니와 초기 낭만파 오페라	"
2월 29일 (수)	14:00~17:00	슈만과 성격 소품 ② 수료식	"

■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선비들의 기상이 넘치는

# 지리산 청정골 산청

갑자기 불어닥친 한파로 올 겨울 처음 부산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던 지난 12월 9일, 예순 아홉 번째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12월 테마여행지는 선비들의 기상이 넘치는 지리산 청정골 산청. 옷깃을 여미게 하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인 정기회원 가족들은 테마여행지로서는 처음인 산청 여행에 큰 기대감을 보였다. 이번 산청 여행에는 부산시립극단 단원 이현주, 염지선 씨가 함께 동행했다.

2시간 30분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삼우당 문익점 선생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목화를 재배한 목면시배유지(木棉始培遺址). 고려 공민왕 때 사신으로 원나라에 갔다가 붓대에 목화씨를 숨기고 들어왔던 문익점 선생은 그의 고향인 이 곳 단성면 사월리에서 그의 장인 정천익과 함께 목화재배에 성공, 우리나라 의복 역사상 일대 혁명이라는 목면을 탄생시켰다. 현재 이곳에는 면화의 재배과정을 알려주는 면화전시관과 면화시배사적비, 문익점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부민각과 선생의 효행을 기리는 효자비각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특히 전시관 주변에는 현재도 문익점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목화를 재배하고 있다. 전시관 인근 목화밭에는 철 지난 지금도 새하얀 솜을 두른 목화가 여기저기 고개를 내밀고 있는 그 신기한 모습에 회원가족들은 추운 날씨에도 목화밭을 떠날 줄 모른다. 이어 달려간 곳은 같은 단성면에 자리한 성철대종사 생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법어로 유명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선승인 성철스님이 출가 전 살았던 생가에는 유품전시관과 사찰 겹외사(劫外寺)가 들어서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이라는 의미의 겹외사는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고자 했던 성철스님의 수행자적 의지가 담긴 이름이다. 석가모니 부처와 성철대종사의 진영이 걸린 대웅전 외벽에는 성철스님의 출가에서부터 수행, 설법, 다비식까지 스님의 일생이 담긴 벽화가 그려져 있어 철저한 수행과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성철스님을 그림으로 만날 수 있다.

겹외사 맞은편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회원들은 점심식사에 앞서 부산시립예술단 단원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정기회원들은 부산시립극단 단원 이현주, 염지선 씨의 지도로 마임연기 후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연기수업을 체험했다. 서툴면서도 진지한 회원들의 연기에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던 이날 체험에서는 한 가족이 한 팀이 되어 무대에 섰던 박춘태, 김후경, 박재민 가족이 회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아 이현주 씨가 직접 준비해온 상품권의 주인이 되었다. 준비된 오리불고기 백반과 산채비빔밥으로 맛있게 점심식사를 마



친 회원들은 오후 일정을 위해 안동 하회마을과 더불어 경상도의 대표적인 전통한옥마을로 유명한 남사예담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담장 너머 우리 전통한옥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옛 담 마을’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 옛날 선비들의 禮가 담긴 마을, 그리고 이 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마음에 禮를 담아갈 수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예담촌이라고 합니다.”

미리 마중나와 기다리고 있던 남사예담촌 노창운 사무장이 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선정된 남사예담촌은 수많은 선비들이 가문을 빛내던 학문의 고장으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강의 지명을 공자의 고향인 곽부의 니구산(尼丘山)과 사수(泗水)로 명명할 만큼 예로부터 학문을 숭상하는 마을로 유명하다. 3.2km에 이르는 아름다운 돌담길 안팎에는 오랜 연륜을 자랑하는 고택과 고목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노창운 사무장을 따라 처음 찾아간 곳은 남사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인 이씨 고가. 남사예담촌의 상징이 되어버린 일명 선비나무로 알려진 X자형 회화나무 두 그루를 지나 돌담 끝 대문을 통과하자 그 오랜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는 전통고가 가 수줍게 얼굴을 내민다.

빨간 홍시가 매달려있는 정겨운 돌담길을 따라 들어가면 높고 튼튼한 대문이 인상적인 최씨고가와 만날 수 있다. 이웃인 최도령과 별당아씨의 가슴아픈 사랑이야기가 전해오는 정씨고가 담장에는 지금도 매년 7월이면 사랑을 잃은 최도령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전해진다. 노창운 해설사가 풀어내는 고택에 얽힌 재미나는 해설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이번 테마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회화나무 열매를 끓인 물을 이용한 염색체험과 떡메치기. 마을답사로 출출해진 회원들이 직접 떡메를 쳐서 콩고물에 버무린 인절미를 만들며 마냥 신바람이 난다. 201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테마여행으로 더욱 의미 깊었던 12월 산청 테마여행. 희망찬 2012년 임진년을 맞이하는 기대만큼이나 정기회원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2012년 2월에는 **고령**으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여행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1월 15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1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가입자

고창표(남구 용호2동)  
김영훈(동구 초량동)  
김윤경(남구 문현4동)  
김정숙(남구 용호동)  
김혜진(연제구 연산2동)  
서정윤(해운대구 좌2동)  
설화순(서구 서대신동3가)  
오복수(밀양시 상동면)  
이채숙(해운대구 우동)  
이한숙(금정구 남산동)  
정순애(남구 대연2동)  
정혜경(연제구 거제3동)  
최경윤(남구 대연6동)  
한미영(영도구 동삼동)  
황국희(해운대구 송정동)

#### 엽서당첨자

곽여진(북구 화명동)  
권유진(금정구 구서동)  
김신숙(사하구 당리동)  
김현옥(연제구 거제동)  
박현비(남구 대연동)  
서영숙(남구 용호1동)  
양경자(해운대구 중1동)  
옥다빈(연제구 연산5동)  
윤신숙(남구 대연4동)  
윤예림(연제구 거제3동)  
이애진(서구 동대신동)  
이영희(연제구 연산5동)  
이준엽(금정구 구서동)  
정은주(기장군 기장읍)  
한미정(양산시 범어동)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가로열쇠

- 2011년은 신묘년, 2012년은 ○○○.
- 목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함.
- 중요무형문화재 제 21호. 경남 통영에서 전승되어 온 북춤으로, 삼도수군 통제영(統制營)에 소속되어 있던 교방청의 기녀들에 의하여 전승되었다. 활옷을 입고 양손에는 한삼을 낀 4명의 무희들이 중앙에 북을 놓고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북을 울리며 창(唱)을 하고 춤을 춘다.
- 최인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당시 4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크게 성공한 배창호 감독, 안성기, 이미숙, 김수철 주연의 한국영화.
- 장화 모양을 한 반도와 시칠리아, 사르데냐 두 섬으로 구성된 유럽 국가. 수도는 로마.
- 선달 그림이나 정초에 웃어른께 인사로 하는 절.

- 공자가 서른 살에 자립했다고 한 데서 나온 말로, 서른 살을 달리 이르는 말.
- 영국의 추리작가 I.플레밍의 '카지노 로열'에서부터 '옥토퍼시'까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국 정보부의 스파이. 영화에서는 손 코넬리, 로저 무어 등이 열연했다.
- 진정한 깨달음을 찾아 16년동안 5만리를 걸어 불교 성지를 순례했던 당나라의 승려.
- 조선 정조 4년(1780)에 박지원이 지은 책. 중국 청나라에 가는 사신을 따라 러허(熱河) 강까지 갔을 때의 기행문으로, '허생전' '호질' 등 단편소설도 실려있다.
- 계모와 계모의 딸들에게 구박을 받던 주인공이 요정의 도움으로 궁중 무도회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잃어버린 유리 구두 한 짝이 인연이 되어 왕자와 결혼한다는 내용의 프랑스 동화작가 페로의 동화.
- 아버지의 할아버지.
- 바벨을 두 손으로 잡아 한 번의 동작으로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일어서는 역도경기 종목의 하나.
- 전통적인 판소리나 그 형식을 빌려 만든 가극(歌劇).
- 1967년 이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마이클 니콜스 감독,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영화. 세계적인 듀엣가수 사이먼 & 가펩클의 노래가 적절히 삽입되어 영화의 효과를 한층 더 높였다.
-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최고의 영화상. '오스카'라는 애칭의 인간입상(人間立像)이 수여되기 때문에 오스카상이라고 부른다.

### 세로열쇠

-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으로 시작되는 김소월의 대표적인 시.
-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

이나 예술작품.

- 인간의 부귀영화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불교적 인생관을 주제로 한 조선 속종 때 문인 김만중의 장편소설.
-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 밑에 세웠다는 도시.
- 생김새는 이리와 비슷하며 붉은이리, 아시아들개, 인도들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멸종 상태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 늦가을에 처음 내리는 묽은 서리.
- 유대교의 율법, 전통적 습관, 축제 등 사회의 모든 사상(事象)을 집대성한 책.
-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신고 여섯 사람이 한 편이 되어, 상대편 골대에 퍽을 쳐서 많이 넣는 것으로 승패를 겨루는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
- 여색에 결코 유혹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처에게 장담하고 제주도로 떠났던 주인공이 그곳 기생 애랑에게 빠져 뒤주속에 갇혀 망신당한다는 내용의 판소리.
- 사람의 체질과 성질에 따라 치료는 달라져야 한다는 사상의학의 시조인 조선 후기 한의학자.
- 뛰어난 음악성과 대중성으로 전세계적인 인기를 모았던 영국의 4인조 그룹 비틀즈의 대표곡으로, 팝음악 역사상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곡이다.
- 고소공포증을 가진 사립탐정이 한 여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의문의 사건에 휘말려드는 이야기를 다룬 히치콕 감독의 대표작.
- 야구에서 출전 선수의 타격 순서 또는 수비 위치.
- 세계적인 지휘자 카라얀으로부터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극찬을 받은 우리나라 성악가.
-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우리나라 도시.
- 메이지시대 이후 유행하기 시작한 일본의 대중가요.

### 지난호 정답

호	두	까	기	인	형	박	영	석
치	치	간	팔	쥐	굴			
민	요	이	문	열	영	암		
지	젤	화	오	감	도			
시	경	천	재		다			
치	이		아	베	마	리	아	
미	녀	와	야	수	를		킬	
	이		채	플	린		밀	레
요	순	화			발		스	
가	루	지	기	설	레	이	건	

### 퍼즐당첨자 명단

#### 공간소극장

- 강서희(사하구 감천1동)
- 박성환(양산시 물금읍)
- 박정화(남구 용호1동)
- 정미정(양산시 북부동)
- 한미숙(양산시 물금읍)

#### 나랏소

- 김덕곤(기장군 기장읍)
- 김성희(해운대구 반여1동)
- 박은희(연제구 거제2동)
- 정향기(금정구 구서동)
- 최은영(해운대구 좌동)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 위승남(북구 화명신도시로)
- 유승민(북구 화명동)
- 이지원(서구 서대신동 3가)
- 최지현(양산시 물금읍)
- 한숙정(서구 토성동)

#### 큰집

- 김상화(서구 암남동)
- 박선자(사상구 주례2동)
- 양수영(동구 수정2동)
- 우도형(창원시 성산구)
- 이창용(해운대구 좌동)

그리움이 있는 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 1588-2757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Tel 051.611.8518

cafe.daum.net/say012

최고급 맛과 품질을 고집합니다

## 나랏소

반우 소박국이 고향 연문법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2년 1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한가맛이 국악흥노마당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모든 만물이 하나 되는 **和의 세계 '해령(解令)'**  
전통춤의 백미로 손꼽히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거문고의 중후한 음색과 여성적인 가야금의 현악 합주로 전하는 '출강'  
화려한 모양의 부채를 들고 추는 창작무용 '부채춤'  
새해, 밝고 희망찬 기운을 나누는 흥겨운 민요 한마당 [널뛰기 외  
음악과 놀이의 종합예술 '판굿'

집박 : 유경조(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협연 : 승무·부채춤 \_ 마려무용단(단장 김갑용)

민요 \_ 박성희·정선희 / 판굿 \_ 우리소리예술단(대표 박시영)



사회 : 김지현(TBN 교통방송 아나운서)



2012.1.23(월)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티켓정보 무료(전석초대)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1~4

주최  부산광역시 후원 BBS  불교부산방송

# 20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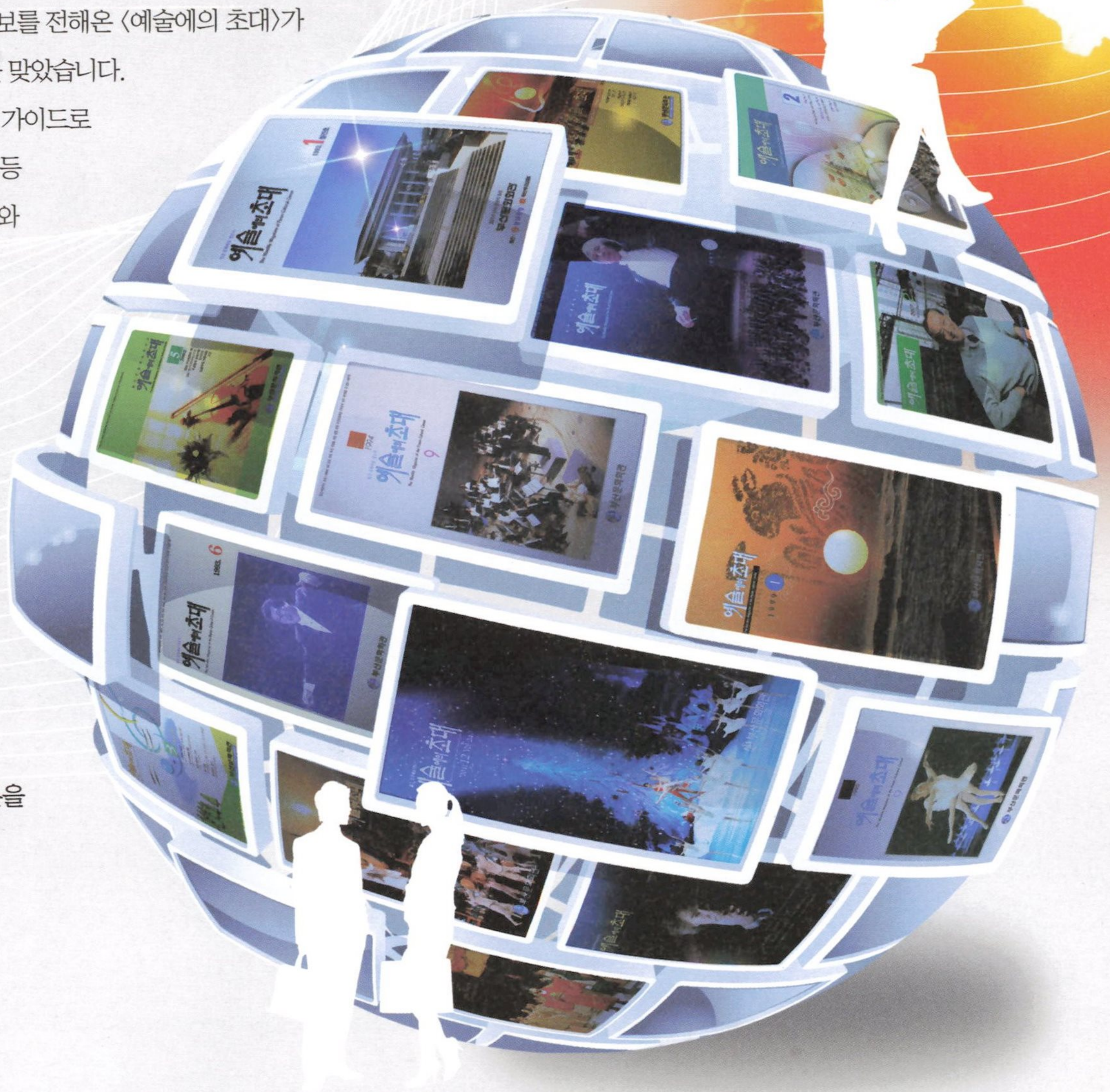
## 새롭게 출발하는 20년, 여러분들을 위한 아름다운 초대

1992년 1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부산문화계의 다양한 공연 정보를 전해온 <예술에의 초대>가  
2012년 1월호로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예술에의 초대>는 문화생활 가이드로  
그동안 공연, 전시, 문화 행사 등  
부산지역의 다양한 문화 정보와  
문화의 다양성과  
지역문화를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획, 문화예술 정보 기사를  
제공해왔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2012년,  
<예술에의 초대>는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줄  
다양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따뜻한 문화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20년 주요기사

우리의 얼을 찾아서(1994년) · 부산을 살다간 문인(1996년~1997년) · 국악과 친해집시다(1997년~1998년) · 부산미술 50년(1998년) · 탁계석의 오페라 산책(2000년) · 세계문화예술기행(2000년~2002년) · 최영철의 문화읽기(2001년) · 주경업의 민속기행(2002년~2003년) · 책속의 미술관(2003년) ·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2004년~2005년) · 부산,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2005년) · 김형술의 그림에세이(2006년) ·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음악(2007년~2008년) · 김홍승의 행복한 오페라 여행(2009년) · 황윤기의 월드뮤직여행 (2009년~2010년) · 생활 속의 판화이야기 (2008년~2009년) · 은현리 풍경에서 시를 읽다(2010년~2011년) 등

# 2012년 1월 공연일정



부산문화회관 전경



Sun	Mon	Tue	Wed	Thu	Fri	Sat
<b>1</b>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국제회의장			<b>4</b> ☎ 부산시립교향악단 시민클래식교실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b>7</b> ☎ 토요일 상설 무대-이현미 무용단 공연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b>8</b> ☎ 짙은 음반 발매기념 전국 투어 콘서트 '백야' 18:00 균일 3만3천원/파스텔뮤직(02-3142-2986)				<b>12</b> 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6회 정기연주회 및 2012 신년음악회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b>13</b> 중 소년소녀가장들이 자선음악회 제 12회 사랑과 감사의 콘서트 19:30 균일 5천원/조윤정(010-4353-6634)	<b>14</b> 중 드니 성호 왈츠사이로-여행자의 일기 19:00 8만원·6만원·3만원·2만원 Sens Management (02-749-8821, 010-7220-1328)  ☎ 토요일 상설 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b>15</b> 대 (사)은하수오케스트라 제 6회 정기연주회 18:30 무료/하와이관(010-7173-0131)			<b>18</b> 중 부산시립교향악단 시민클래식교실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부산시립무용단 2012 우리춤 산책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b>19</b> 중 제 1129회 MBC 목요일음악회 '효원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하는 신년음악회' 19:30 1만원·5천원/홍화철(010-2510-0753)  ☎ 부산시립무용단 2012 우리춤 산책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b>23</b> 중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설맞이 국악한마당' 17:00 무료(선착순 초대권 배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b>25</b> ☎ 부산시립교향악단 시민클래식교실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b>27</b>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25 '하와이''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b>28</b> 중 토요일 상설 무대-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연주회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b>2/1</b> ☎ 부산시립교향악단 시민클래식교실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b>2/2</b> 대 ● 2012 제 7회 부산국제음악제 개막연주회 '보로메오 스트링 콰르텟' 19:30 5만원·4만원·3만원 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	<b>2/3</b> 대 ● 2012 제 7회 부산국제음악제 '명품합주곡 with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19:30 5만원·4만원·3만원 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26 '아마도이지람밴드''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b>2/4</b> ☎ 토요일 상설무대-부산무용협회 무료(선착순) 부산문화회관(607-6056)

# January 2012 Program Guide



The Busan Cultural Cent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⑤ The Citizen Classical Music with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4:00 B.P.O(607-3111~3)	5	6	7 ⑤ Saturday Regular Stage -Lee Hyunmi Dance Company Performance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
8 ⑤ Dark Album Sale Commemoration Concert 'White night' 18:00 ₩33,000/Pastel Music(02-3142-2986)	9	10	11	12 ⑥ The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476th Regular Concert '2012 New year's Concert' 19:30 ₩10,000 ₩7,000 ₩5,000 B.P.O(607-3111~4)	13 ④ The 12nd Adolescent heads of Family for Benefit Concert 19:30 ₩5,000/Jo Yunjung(010-4353-6634)	14 ④ Denis Sungho Between Valses - Traveller's Diary 19:00 ₩80,000 ₩60,000 ₩30,000 ₩20,000 Sens Management (02-749-8821, 010-7220-1328) ⑤ Saturday Regular Stage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
15 ⑥ The 6th Regular UNHASU(The Galaxy) Orchestra Concert 18:30 Free Ha Waeran(010-7173-0131)	16	17	18 ① The Citizen Classical Music with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4:00 B.P.O(607-3111~3) ⑤ 2012 Year's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Performance 19:30 ₩5,000/B.M.D.C(607-3131~2)	19 ④ The 1129th MBC Thursday concert '2012 New year's Concert with Hyo won Traditional Orchestra' 19:30 ₩10,000 ₩5,000 Hong Heechul(010-2510-0753) ⑤ The Year 2012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Performance ₩ 5,000/B.M.D.C (607-3131~2)	20	21
22	23 Lunar New Year's Day ④ The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New year's Concert 17:00 Free/B.M.T.O(607-3121~2)	24	25 ⑤ The Citizen Classical Music with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4:00 B.P.O(607-3111~3)	26	27 ⑤ The Concert, Underneath the Sky 'Hawaii' 20:00 ₩30,000/B.C.C(607-6058)	28 ⑤ Saturday Regular Stage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
29	30	31	2/1 ⑤ The Citizen Classical Music with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4:00 B.P.O(607-3111~3)	2/2 ⑥ 2012 Busan Music Festival 'Borromeo String Quartet' 19:30 ₩50,000 ₩40,000 ₩30,000 Buan Arts Management(740-5833)	2/3 ⑥ 2012 Busan Music Festival 'Concertos with Busan Symphony Orchestra' 19:30 ₩50,000 ₩40,000 ₩30,000 Buan Arts Management(740-5833) ⑤ The Concert, Underneath the Sky 'Amado Izaram Band' 20:00 ₩30,000/B.C.C(607-6058)	2/4 ⑤ Saturday Regular Stage -Dance Association of Busan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

- ⑥ Grand theater
  - ④ Medium theater
  - ⑤ Small theater
  - ①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 B.P.O/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 B.M.D.C/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 B.M.C/Busan Metropolitan Chorus
  - B.M.T/Busan Metropolitan Theater
  - B.M.Y.C/Busan Metropolitan Youth Chorus



임진년 壬辰年 새해를 우리춤으로 열며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 2012 우리춤산책

예술감독 홍기태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 1.18(수) - 첫째 날

처용무 : 강모세  
승무(이매방류) : 안주희/ 뒷장고-김주연  
도살পুর이 : 이정인  
장고춤 : 황선희, 김동숙, 강미향  
태평무(한영숙류) : 서현미  
진주검무 : 이현주  
고성오광대 말뚝이 춤 : 허태성, 황동하  
악사  
상쇠: 김동수, 북: 이동근, 장고: 김은정, 징: 장영진, 태평소: 윤현호

## 1.19(목) - 둘째 날

춘앵무 : 이화성  
태평무(강선영류) : 류권홍  
진주교방굿거리춤(김수악류) : 김주령  
산조춤 : 윤은하  
진주검무 : 이상민, 박은혜, 김도은, 김시현  
살풀이춤(이매방류) : 장래훈  
태평무(한영숙류) : 이현주  
소고놀이 : 김진영  
악사(남산놀이마당)  
상쇠: 장재희, 장고: 설영성, 북: 류제철, 징: 방형웅, 태평소: 김현필

훈련지도 : 서정숙

무대 : 서종철 조명 : 신상준 음향 : 정연욱

기획 : 조영미 홍보 : 김태훈 소품 : 안정숙

# 2012.1.18(수) ~ 19(목) 19:30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입장권 균일 5,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무용단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무용단 607-3131~2 www.koreanfolkdance.com

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셔틀버스 무료 운행 출발시간 > 월~금 19:00(공연시에 한함) · 대연 지하철 5번 출구 유엔로터리 방향 100m 지점 7번가 피자 앞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

2012년에도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2012년 2월 10일(금)

## 가야문화의 고지, 고령 대가야 역사기행



우륵박물관

곳곳에 대가야문화 유적이 산재해 있는 유서 깊은 역사의 고장 고령으로 떠나는 역사기행. 대가야박물관을 시작으로 대가야왕릉 전시관,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등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 10:00 대가야박물관, 대가야 왕릉전시관,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지산동 고분군
- ⌚ 12:30 중식
- ⌚ 13:00 가얏고마을 우륵박물관 탐방
- ⌚ 14:00 전통음식 및 농촌 체험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6:30 부산으로 출발

## 2012년 3월 9일(금) 대구 근대역사기행



의료선교박물관

조선시대에서 일제시대, 아픈 한국의 근, 현대사와 그 속에서 곳곳이 살아온 대구사람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구 근대역사 기행.

도심 한복판 거미줄처럼 이어진 좁은 골목에서 근대를 추억한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 10:00 대구도착, 근대역사 골목투어 (동산 선교사주택, 3·1 만세운동길, 계산 성당 등)
- ⌚ 12:30 중식
- ⌚ 13:00 이상화·서상돈 고택
- ⌚ 14:00 약령시 한의학문화관, 약령전 골목투어
- ⌚ 15: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6:00 부산으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

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여행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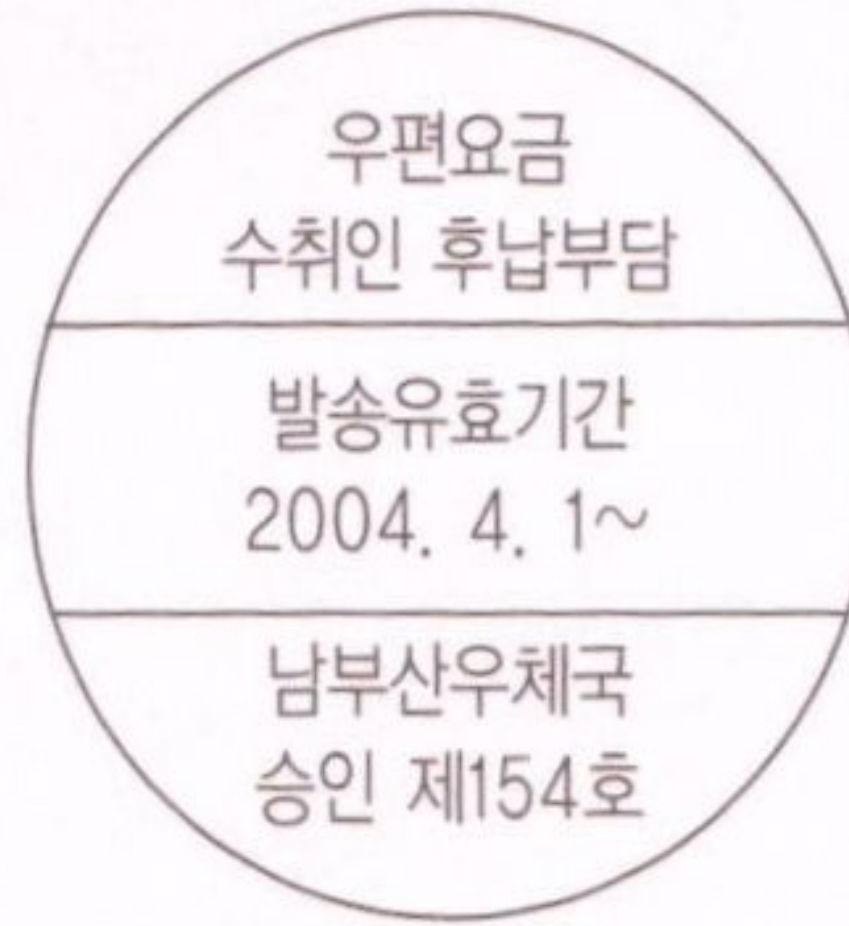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08 - 024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08 - 024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27

## 아마도 이자람밴드

2012.2.3(금)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입장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사이클럽 하늘아래 그 콘서트 club.cyworld.com//0912.conc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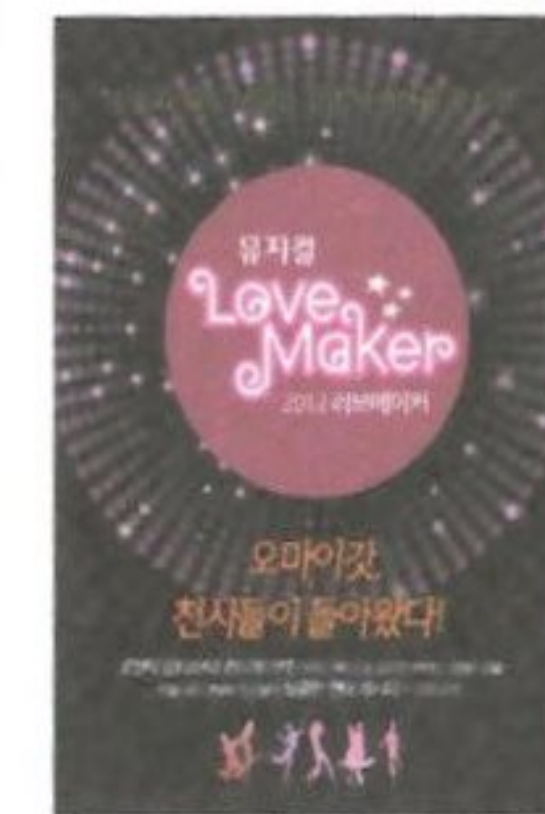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Wine Beer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 뮤지컬 러브메이커 20% 할인



2012.1.7(토)~2.5(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 없음)

▶ 입장권: 균일 35,000원  
▶ 장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 문의 및 예매: 1588-2757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 날짜: 2011.1.1(토)~2011.12.31(토)  
▶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무로 체험권

향문 시간 사전 예약제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0

## 코메디언극 바라바라 20% 할인



2012.1.13(금)~4.15(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균일 33,000원  
▶ 장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 문의 및 예매: 1588-2757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명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점은?

퍼즐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

광고 하나로 천냥 빚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 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B U S A N  
P H I L H A R M O N I C  
O R C H E S T R A

# 2012 신년음악회

*New Year's Concert*

## Program

차이코프스키 「잠자는 숲속의 미녀」 모음곡 中  
P.I.Tchaikovsky "The Sleeping Beauty" Suite

프로코피에프 「로미오 와 줄리엣」 모음곡 中  
S.Prokofiev "Romeo and Juliet" Suite

아담 「지젤」 中 "그랑 파 드 되"  
A.Adam 'Grand Pas de deux' from "Giselle"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 (1919년판)  
I.Stravinsky "The Firebird" Suite (1919 ver.)

2012.1.12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리 신차오  
Li Xincao

주 최 부산광역시  
입장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 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22년간의 기다림  
세계 4대 뮤지컬

# 미스 사이공



KCMI, INC. PRESENTS  
CAMERON MACKINTOSH'S  
PRODUCTION OF  
BOUBLIL & SCHÖNBERG'S  
LEGENDARY

**MISS  
Saigon**

TM ©1988 CML

2012년 4월 5일 - 4월 2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 VIP석 130,000원 R석 110,000원 S석 90,000원 A석 70,000원 B석 5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예매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interpark.com 문의 | 1599-1980 goconcert.co.kr